

8개의 드라마로 펼쳐진  
상대원의 살아있는 이야기

#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

장노현 지음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이야기북1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

|      |   |
|------|---|
| 발행인  | 이대엽 · 이종덕   |
| 편집인  | 노재천   |
| 기획총괄 | 박승헌   |
| 기획진행 | 이종필 · 김성호   |
| 발행처  | 성남문화재단  |
|      | <a href="http://www.sncf.or.kr">www.sncf.or.kr</a> / <a href="http://www.snart.or.kr">www.snart.or.kr</a> |
| 발행일  | 2009. 1   |

|          |              |
|----------|--------------|
| 글        | 장노현          |
| 일러스트&디자인 | 디자인하우스 / 임승희 |
| 인쇄       | 디자인하우스       |





#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

#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 • 목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이야기북'을 펴내며 4

서문 / 이야기를 통한 문화공동체 만들기 12



마님발 구두세탁소,  
상대원 구보씨 이야기 21



토박이, 상대원 공씨 이야기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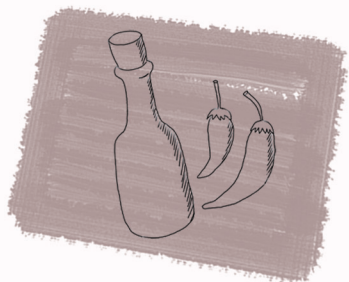


또또기계 아줌마,  
상대원 노씨 이야기 61



못갓춘 마디, 상대원 키드 이야기 81

석유가게 앞 포장마차,  
상대원 주부 백씨 99



기름고추집, 상대원 봉씨 이야기 117

그릇가게, 상대원 염씨 이야기 135



스묵여덟 해, 상대원등이 이야기 153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이야기북’을 펴내며

### 8개의 드라마로 펼쳐진 상대원의 살아있는 이야기

2008년 3월, 성남문화재단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시장·상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상대원동 곳곳을 찾아다니며 상대원에 얹힌 이야기를 묻고 또 들었다. 상대원동에 얹힌 사연들은 켜켜히 쌓인 역사책 마냥 ‘인생극장’을 펼치며 파노라마처럼 이어졌다. 재단은 여기 상대원동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온 그 ‘인생 이야기’가 바로 상대원동의 살아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이야기들은 상대원동에서 살아 온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넘어 상대원동과 상대원공단, 그리고 상대원시장과 원다방을 축으로 거미줄처럼 얹힌 인연들을 한올 한올 풀어주고 있었다. 마님발 구두세탁소 구보윤씨는 아내와 처음 원다방에서 맞선을 보고 4개월만에 결혼을 했다.

“당시에는 만날 장소가 성남 쪽에서는 특별한 장소가 없으니까 원다방이라든가 돌고래다방이라든가 또 그 밑에 무슨 다방이 몇 군데서 주로 만났어요. 대부분 그런 데서 만났어요. 다방에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다방에서 노래 나오고, DJ 그런 것도 원다방에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단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가씨 만나러 또 총각들 만나러 또 꼬시러 또 아니면 음악 감상하러 이렇게 많이들 나와서.....”

또또기계 아줌마 노민숙씨는 결혼을 반대하는 집안 식구에게 ‘내 인생은 내가 살거야’라며 큰 소리치고 가출(?)해 의지한 곳이 원다방이었다.

“우리 아저씨가 우리 엄마한테 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러는데, 오빠도 그때 술 한잔 먹고 들어와 가지고, 내가 다리를 붙질러 앉혀서 먹여 살리는 한이 있어도 당신네 못주겠다고, 부모도 없는데서 자랐는데 내가 줄 수 있냐 못 주겠다고 막 그랬는데. 그때 당시 우리 오빠가 술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생활이 힘든데도 돈도 좀 안 갖다 주고 그래 속이 상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고 오빠 인생은 오빠가 살아가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딱 가방을 메고 나왔는데, 나와 가지고 원다방이라고 있잖아요, 상대원시장 입구 들어가는데 원다방 거기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고 내가 그날 저녁에 오빠가 무서워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친구네 집에서 자고 언니네로 내뺄라고 그랬는데, 못 가게 하더라고요 우리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이제 좀 살다가 결혼식을 올렸어요.....”

상대원동에 얹힌 이야기 실타래가 풀릴 때마다 ‘원다방’이 빠지질 않았다. 좀 먼데서 상대원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택시를 타고 “원다방 앞에 갑시다!”고 했다. 원다방은 상대원의 랜드마크이자, 성남 사람들 머릿 속에 “상대원동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거”, 바로 그것이었다.

성남문화재단은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을 약칭 ‘원다방 프로젝트’라고 이름짓고,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이라는 공식명칭을 붙였다. 원다방에서 노래가 나오고 DJ가 있었다? 그래! 원다방에서 음악을 들려주자! 그리고 상대원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이야기를 나누자. 인생살이 속에 얹혀 있는 애타는 사연과 지금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 놓고 풀어 놓을 수 있는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자!

사람들 이야기에서 아이디어는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설 틈 없이 일하시는 상인들이 구수한 이웃집 이야기와 신나는 음악을 편하게 들을 수 있게 스피커를 하나씩 달아 드리자. 원다방에서 상대원동‘쭈머DJ’들이 상대원 상인과 주민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즉석에 노래자랑으로 판을 벌리자.....

성남문화재단은 5년전에 없어져 버린 ‘원다방’을 상대원시장의 ‘사랑방’으로 다시 탄생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그 ‘원다방’에서 상대원 사람들이 살아왔던 이야기와 노래를 펼쳐 보기로 했다.

2008년 10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상대원시장에 자리잡은 원다방의 ‘신나는 방송국’에서 음악이 흘러 나오고 있었다. 시장 상인들을 가게마다 달려있는 스피커를 통해 금요일 2시에 방송되는 <상대원 드라마>에 귀를 쫓긋 세우고 있었다. 귀에 익은 로고송이 먼저 인사를 드린다.

“♫~떡집 아저씨가 나와 / 두부집 언니가 나와 / 1학년 철수군도 나와 / 노인정 할머니도 나와 / 금요일엔 들어 상대원 드라마 / 라디오를 틀어 상대원 드라마~♫”

♫ BGM

상대원 드라마 두 번째 이야기, <그 가을, 원 다방>

1화, 첫 사랑

남자     오랜...만이야.

여자     그래요, 참 오랜만이네요.

남자     우리, 15년 만인가?

여자     아마... 그 쯤 되었을 거예요.

남자     니가 아직도 성남에 살고 있을 줄은 몰랐어.

여자     성남에서 나고, 자라고, 벌써 35년째 성남에만 살고 있지... 성남 토박이죠.

남자     그래도 니가 아직 성남에 사니까, 이렇게 다시 만날 수있게 된 거지. 니소식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 시집 갔다는 소식 듣고, 당연히 어디로 이사 갔겠거니 했는데...

여자     남편도 성남 사람이예요.

남자     그렇구나... 야, 원다방도 많이 좋아졌네. 그 때는 형광등도

맨날 깜빡깜빡 거리고 그랬는데.

여자 그쵸, 인테리어도 다 바뀌었어요... 그래도, 커피 맛은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오빠, 여기 커피 좋아하셨잖아요.

남자 그랬지... 요새까지도 가끔 원다방 커피 맛을 그리워했으니  
까. 여지요!

종업원 네~ 주문 하시겠어요?

남자 커피 두 잔 주세요. 한 잔에는 프림 넣지 마시고요.

종업원 알겠습니다.

여자 (수줍게) 기억, 하네요?

남자 그럼, 기억하지. 너는 늘 설탕 한 스푼만 넣고 마셨잖아.

여자 세상에... 그게 언제 적 애긴데.

남자 너에 대한 건 잊은 게 하나도 없어.

여자 오빠도 참... 왜 그래요, 쑥스럽게.

남자 (민망해하며) 아이들은. 잘 커?

여자 그럼요, 큰 아이는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인걸요.

남자 야, 벌써 그렇게 됐어? 시간이 많이 흐르긴 흘렀나보다.

여자 저 많이 늙었죠?

남자 늙기는, 넌 그대로야. 눈가에 있는 점도 고대로네. 너 그거 눈  
물점이라고, 싫어했잖아. 눈물점 있으면 올 일 많다고 (웃음)

여자 그랬죠. 오빠는 지금도 시 좋아하세요? 오빠 가방에는 늘 시  
집이 여러권 들어 있었는데... 가끔 빌려주시고 그랬잖아요.

남자 시라... 시집 안 읽은 지도 벌써 몇 년이네. 사는 게 바빠서 말  
이야.

여자 그 때 오빠가 빌려주신 시집 중에, 돌려드리지 못한 시집이  
아직도 책장에 꽂혀 있는 걸요.

남자 그게 지금도 있어? 우리 집에 있던 시집들은 다 이사하면서  
버렸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정리하는데 애 먹었다.

여자 아, 갑자기 생각나는 시 구절이 있어요. 노을이 물들어 간다  
는 것은...

남자 지금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이 붉게 타고 있다는 것이다.

여자 시집 다 버렸다면서요.

남자 마음 마저 다 버린 건 아니니까...

여자 (말 돌리며) 오빠, 요새 뭐 하고 지내세요?

남자 나? 나... 서울에서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어.

여자 사모님 하고요?

남자 음... 그렇진 않고. 어쨌든, 지금은 혼자서 운영하고 있어.

여자 다음에 가족들이랑 한 번 놀러갈게요. 제일 맛있는 걸로 주셔야 해요.

남자 그래... 혜경아.

여자 깜짝이야, 갑자기 왜 이름을 부르고 그러세요. 이름 불러본 지도 한참이에요... 맨날 누구 엄마, 이백팔호 아줌마...

남자 혜경아, 행복하니?

여자 네?

남자 행복... 하냐고.

여자 행복이라... 행복... 해요. 행복 하고 말고요. 아이들은 큰 사고 없이 잘 크고있고,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그래도 아이들 키우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고...

남자 그런 거 말고, 너 말이야, 니 마음이 행복한지 묻는거야. 나는 니가 늘 행복하길 바랬어.

여자 무슨 소리예요.

남자 혜경아, 그 때 내가 원다방에 나오지 못한 건...

여자 오빠.

남자 정말 미안해, 내가 그 때는 너무 어려서...

여자 오빠.

남자 어..?

여자 나도 가끔 그 때를 떠올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벌써 십오년이나 지났고, 이젠 오빠도 나도, 그 때의 이십대 청춘이 아니잖아요.

남자 니가 보고싶었어. 단 한번도, 널 잊은 적이 없어.

여자 이러려고 연락하신거예요?

남자 혜경아...

여자 오빠가 내게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고 했던 그 날, 저 이 원다



방이 문 닫을 때까지 오빠를 기다렸어요. 식은 커피를, 세 잔이나 리필했죠. 그 이후로, 단 한번도 이 원다방에 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오빠가 떠났지만, 나는 오빠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때의 우리는 열심히 사랑했고, 덕분에 좋은 추억도 많이 남았으니까요.

남자   혜경아, 우리 좀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

여자   이야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거의 이야기 뿐이에요. 저 지금 제 남편 사랑해요. 오빠처럼 시를 읽어주는 남자도, 가끔 저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는 남자도 아니지만... 이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사람, 이 사람은 단 한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남자   ...미안하다.

여자   저 먼저 일어날게요. 커피, 잘 마셨어요. 그리고 오빠, 행복하세요.

이 책에 실린 8편의 인생 드라마는 상대원의 역사다. 원다방에서 차 한잔을 나누며 마주 앉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로 상대원의 리브 스토리이고 상대원시장의 바글바글한 저녁시간을 채웠던 훈훈한 음악들이다. 성남문화재단은 상대원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생생하게 그대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담을 방법은 무엇일까하고 말이다. 그 고민의 실마리를 장노현 박사께서 풀어 주셨다. 성남문화재단에서 펼치고 있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활동인 ‘사랑방 문화클럽’의 클럽 대표들에 대해 ‘서사 인터뷰’를 시도하신 작업을 보고, 재단에서 그 ‘구술 생애 서사’ 방법을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서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로 풀어볼 것을 제안드리자 어려운 작업임에도 흔쾌히 맡아 주시고 열정을 쏟아 주셨다. 지면을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또한 성남문화재단 모니터링팀이 함께 동참하여 큰 힘이 되어 주신 점, 김정은 연구원께서

세세하게 자료를 챙겨주시고 상대원 프로젝트북 정혜원 작가께서 편집 실무를 선뜻 도와 주신 점, 이 모든 분들의 뜨거운 애정이 없으셨다면 이 책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주인공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에서 말 못할 사연까지 가감 없이 털어 놓아 생생한 상대원 사람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채워주신 여덟 분과, 책에 이름을 신지는 못했지만 인터뷰에 응해주신 상대원의 모든 분들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성남문화재단은 향후 ‘이야기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성남문화재단 2단계 5개년 계획(2009년~2013년)이 시작되는 2009년 도는 ‘동네만들기 지원센터’를 열어, 그 핵심사업으로 ‘우리동네 생활 이야기’를 추진해 갈 것이다. 성남의 동네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찼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 이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 책으로 엮고 사진과 영상에 담고 음악으로 나누는 일이야말로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공동체를 꽃피워나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남문화재단에게는 꿈이 있다. 성남의 동네 어디에서나, 그곳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 스스로가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들을 책과 사진과 영상으로 만들고 음악과 그림으로 즐기며 문화공동체를 펼쳐가는 꿈 말이다.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 프로젝트가 그 작은 씨앗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09년 1월  
성남문화재단



## 이야기를 통한 문화공동체 만들기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는 성남시 상대원동 주민들의 구술 생애 자료를 서사물(이야기북)로 재구성한 것으로,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틴 아메리카의 작가 마르케스가 자신의 자서전에 쓰고 있듯이, “삶은 한 사람이 살았던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기억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일상인의 구술 생애 자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대한 기억이며, 삶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는 상대원이라는 공간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상대원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야기의 굵이굵이에 상대원 사람들의 깊은 숨결이 간직되어 있다. 그것은 허구적 이야기에서는 접할 수 없는 삶의 진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매개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새로운 지역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의 지향점이며, 이런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필자는 하이퍼텍스트 기반의 이야기 공간을 구

상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씨앗이 되는 이야기가 필요했고, 여기 실린 8사람의 생애 이야기는 그 씨앗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씨앗글들은 구술자 선정, 구술 채록과 전사, 그리고 서사의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다. 애초에는 상관되는 이야기 요소를 서로 연결해주는, 일종의 ‘하이퍼링크’를 부여함으로써 초보적인 형태의 하이퍼텍스트 서사 형식을 구현하려 했다. 하지만 그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미리 밝히면서, 각 과정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덧붙인다.

## 1) 구술자 선정 과정

구술자 선정 작업은 9월부터, 몇 가지 원칙 하에 진행되었다. 우선 상대원 거주 기간이 오래되어야 하며, 둘째, 상대원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령과 성별, 직업, 관심사항 등에서 다양한 분포를 가져야 했다.

실제로 책에 수록된 8명의 구술자들은 상대원 거주 기간이 적게는 이십수년에서 많게는 오십년에 이르는 사람들이다. 또한 사회적 유명인을 되도록 배제하여 평범한 상대원 사람들의 삶의 무늬와 결을 살피려고 했다.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5:3이 되었고, 연령은 30세 이하 2명, 30-50세가 3명, 50대 이상 3명으로 구성하였다. 직업과 관심사항 등도 저마다 다양하게 했다.

선정된 구술자는 아래 표와 같으며,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이는 몇 명의 구술자가 가명 사용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본명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더불어 본명의 사용을 허락해주었던 구술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 구술자(가명) | 출생연도 | 성별 | 상대원 거주 | 하는 일      |
|---------|------|----|--------|-----------|
| 구보윤     | 1963 | 남  | 35년    | 구두수선업     |
| 궁태원     | 1959 | 남  | 50년    | 사진작가      |
| 노민숙     | 1960 | 여  | 29년    | 주부, 부업    |
| 민서희     | 1982 | 여  | 27년    | 학원강사      |
| 백자경     | 1969 | 여  | 30년    | 주부, 봉사활동가 |
| 봉준수     | 1945 | 남  | 38년    | 자영업       |
| 엄철희     | 1953 | 남  | 29년    | 자영업       |
| 지석태     | 1980 | 남  | 25년    | 대학원생      |

## 2) 구술 채록과 전사 과정

이 과정은 구술 서사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텍스트 자료로 옮겨내는 것이다. 구술 서사인터뷰는 조사자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구술자가 자신의 삶 전체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구술자들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생애 경험의 구성요소들을 스스로 취사선택하여 자신의 원하는 방식대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디지털 녹음기를 통해 녹음되었다. 녹음된 구술자료는 다시 텍스트 자료로 전사되었다. 전사 과정에서는 내용을 요약하거나 중복 어구 등을 삭제하지 않고, 구술자료의 원형을 있는 그대로 살렸다.

## 3) 서사의 재구성 과정

이 과정은 구술자료를 재구성하여 좀 더 의미있는 서사물(이야기)로 만들어내는 단계이다. 서사인터뷰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구술자의 구술 자체가 이야기 형식을 띠지만, 좀 더 밀도 있고, 재미있고, 읽기 편한 이야기를 위해 재구성 과정이 필요하였다. 재구성은 신중하게 진행하였는데, 우선 상대원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가능한 한 모두 재구성에 활용하였다.

또한 구술자의 구술 방법이나 특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전체 서사를 가능한 한 작은 부분들로 나누었다. 구술 이야기는, 인쇄된 이야기와는 달리, 이야기 구성 요소의 삽입, 중복, 순서의 뒤섞임 등이 심하게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런 구술적 특성을 그대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전체 서사를 가능한 한 작은 부분들로 나누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8개의 생애 이야기는 모두 17개 안팎의 부분들로 나누어졌고, 그것은 다시 몇 개의 더 작은 부분들로 이루어졌다. 대개 구술자가 선택한 이야기 순서대로 배열된 이들 작은 부분들(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단위텍스트 혹은 렉시아라고 한다)은 독자적 자립성 강하며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연관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은 이 책이 따르는 배열 순서를 벗어나, 다른 방식과 순서로 재조립될 수도 있다.

따라서 만약 이 자료를 디지털 매체인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면, 당연히 하이퍼텍스트 서사(Hypertext Narrative)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필자는 처음부터 이 과정까지를 염두에 두고 이번 프로젝트의 전과정을 진행해 왔다.

비록 이번에는 제외되었지만, 향후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가 온라인 상에서 하이퍼텍스트 구술생애 서사물로 재탄생할 수 있다면, 이는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하이퍼텍스트 서사물이 될 뿐만 아니라, 작은 지역사회를 하나의 문화공동체로 만든다는 이번 프로젝트의 기본 목표에도 훨씬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상대원 사람들의 삶의 기억을 공유하는 사이버 공간으로서, 상대원 사람들을 위한 좋은 소통의 마당으로서, 상대원 사람들에게 의한 끝나지 않는 삶의 이야기 공간이 될 것이다.

필자는 구술 텍스트의 특성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필자가 재구성한 원고 중간 중간에 구술자의 목소리를 직접 노출시켜 놓았다. 이 과정에서 필자가 재구성한 원고의 분량과 구술자의 목소리가 담긴

직접 인용의 분량을 대개 2:1의 비율로 조정하여 서사의 흐름이 난잡해지지 않도록 배려했다.

필자가 재구성한 원고는 허구적 내용을 배제하고 구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주로 단문을 사용하였다. 구술자의 목소리가 담긴 직접 인용 부분도 신중한 선택 과정을 거쳤다. 주로 구술자가 객관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부분이나 상대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는 부분을 위주로 직접 인용 부분을 선택하였다. 선택된 부분은 최대한 원문 그대로를 살려 신되, 가독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중복어구와 단순 감탄어구를 제거하고 문장부호를 삽입하는 정도로 최소한의 정리 작업만을 거쳤다.

“우리 사는 데는 상대원동이 한정돼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성남초등학교에서 성남제일로 인제 다시 인구가 늘어나니까 학교를 하나 짓고 다시 상대원동에 인구가 많으니까 대원초등학교를 지어서 대원초등학교로 왔다가 또 인구가 많으니까 중원초등학교를 또 중원초등학교로 이렇게 자꾸 가까운 쪽으로 근거리 쪽으로 가다보니까 하나 둘 셋 네 번 왔죠. 그러니까 6년 동안 4번이면 무지하게 많이 옮긴 거죠”

상대원 인구의 팽창에 맞춰 초등학교가 신설되어 가는 과정을 구술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탤릭체 부분을 제거하고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하지만 구술자의 말에 없는 어떤 어구나 단어도 첨가하지 않았다.

“우리 사는 데는 상대원동이 한정돼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성남초등학교에서 성남제일로, 인제 다시 인구가 늘어나니까 대원초등학교를 지어서 대원초등학교로 왔다가, 또 인구가 많으니까 중원초등학교로 이렇게, 자꾸 가까운 쪽으로 근거리 쪽으로 가다보니까 네 번 왔죠. 6년 동안 4번이면 무지하게 많이 옮긴 거죠.”

상대원이라는 하나의 풍경에 그려진 여덟개의 풍경화를 「상대원 사



람들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내놓으면서, 그 풍경화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열여덟 개의 풍경화로, 서른여섯 개의 풍경화로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온라인 상의 하이퍼텍스트 이야기 공동체로 다시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상대원이라는 지역의 문화공동체만들기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은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함께 만든 이야기북이다. 먼저 8명의 구술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구술자를 섭외하고 사전접촉을 통해 구술 채록이 가능하도록 해주었던 성남문화재단 모니터링팀의 곽대현, 김희운, 오해숙, 이길순 씨에게 감사드린다. 모두들 상대원을 아끼고,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이다.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정은 연구원도 크게 힘을 보탰다. 그녀는 봉준수, 엄철희, 지식태의 녹음 자료를 텍스트 자료로 전사해 주었다. 특히 지식태의 재구성 원고는 그녀가 완성한 것이다.

2009년 1월 2일

장 노 현 씀



마님발 구두세탁소,  
- 상대원 구보씨 이야기





# 마님발 구두세탁소, - 상대원 구보씨 이야기

1.

소년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315번지에서 태어났다. 그 때가 1963년 이니 당시 성남이라는 도시는 세상에 없었다. 사실 태어났다고 했지만, 그의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출생되었을 뿐이다. 아버지는 2남 2녀를 출생시키고 소년의 동생이 갓 돌을 지날 무렵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혼자가 되셨다. 아무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네 명의 자식을 떠맡은 어머니의 서울살이는 신산하기 그지없었다. 별이가 막막해서 아이들의 식사는 수제비가 다반사였다.

“근데 보니까 서울에서 우리 어머님이 사실 꽤 고생하는 거 어렵פות하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동네 조금 여유롭게 사는 집안에 물을 한 통씩 길어다 주면 그 당시에 2원 3원 이렇게 받으시면서 그걸 모아서 생활을 유지하고. 당시에는 수도가 집집마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그 때 생각나는 게 69년 70년 초쯤 된 거 같아요. 우리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서울 쪽에서 동사무소라든가 동사무소 쪽에서 식구별로다 밀가루 한 포대 한 포대 해가지고 네 식구면 넷, 다섯 식구면 다섯 포대를 한 달에 한 번씩 쫓던가 일 년에 몇 번씩 줘서 그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침에는 밥을 먹었는데 점심과 저녁은 항상 밀가루 반죽에다 수제비 종류를 해먹고 살아왔어요.”

2.

소년의 집은 답십리 개천 주변에 있었다. 이삼십 평 남은 되는 집이었

다. 끼니도 어려운 사정이었으니 집의 형편이야 짐작이 가지만, 그래도 어머니에게는 더없는 의지처였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않았다. 바람은 밖에서 불어왔다. 소년이 초등학교 2학년 될 때쯤 서울은 재개발 바람이 불었고, 소년이 살던 답십리 개천 일대로 철거 대상이 되었다. 소년의 나이 아홉 살, 한창 뭔가를 알아갈 무렵이었다. 개천에 아름다운 봄꽃들이 피어날 무렵 소년의 집은 사라졌다.

봄비에 꽃잎이 지듯 집이 무너져 내렸다. 그렇지만 소년의 어머니도, 소년도, 그의 형제들도 누구 하나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철거민이 되었다. 철거민들은 성남으로 옮겨졌다. 소년네 식구들이 성남으로 이사하던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차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른다. 소년은 허름한 세간을 실은 짐차 뒷칸에서 그 비를 다 맞았다. 다른 철거민들처럼 소년네 식구도 단대동 단대오거리 주변 어리에 부려졌다.

“임시적으로 천막을 하나씩 주면서 임시적으로 살아라 해가지고 그때 많은 철거민들이 수십명 수백명이 와 가지고 거기 군데군데 이렇게 철거를 천막 쳐놓고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다가 (천막 크기는 어느 정도 됐나요) 천막 크기는 한 세네평 정도 될 거 같아요. ... 그렇게 해서 살다가요, 인제 인제 그 뭐라고 그러지 인제 땅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관할하는 땅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 그러드라고요. 거기서 제비뽑아 가지고, 그 땅 상대원이면 상대원 은행동이면 은행동 하대원이면 하대원 있는 거처럼 제비뽑는 그걸 가지고 그 번지수를 쫓아가 가지고, 거기에다 사람들이 천막을 우선 쳐가지고 살다가, 여유가 생기면 벽돌 같은 거를 사다가 집을 짓기 시작하드라고요”

소년네 식구도 단대오거리에서 천막살이를 하다가 상대원 3동 쪽 땅을 분배 받았다. 처음에는 천막으로 시작하였다. 주변에는 천막집이 좀 있었고 벽돌집이 몇 군데 있었다. 소년의 어머니는 이후 여러 번 그때를 이야기 하셨다. 소년의 기억이 희미해질 때쯤이면 어머니는 다시 이야기하셨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소년이 그때를 기억할 수 있

는 것은 절반은 어머니의 기억에 의지한다.

3.

소년의 어머니는 혼자 몸이었다. 생계를 위해서는 일거리가 필요했다. 그래서 집 짓는 공사장의 잡부가 되었다. 다행히 집짓는 일거리가 끊이지는 않았다. 어머니는 그렇게 번 돈을 조금씩 떼어 벽돌을 사다 날랐다. 그리고 저 아래쪽 개천의 모래를 퍼다 날랐다. 어머니도 형도 누나도 그리고 소년도 틈만 나면 개천의 모래를 세수대야로 퍼다날랐다. 그리고 시멘트를 사다가 조그만 집을 지었다. 집이랄 것도 없었다. 처음엔 방 1칸이었다. 그리고 한 1년 2년 지나 그 옆에다가 방을 하나 이어냈다. 그리고 5년 정도 지나서는 그 요상한 집을 헐고, 정식으로 집을 지었다. 방 2개에 부엌이 하나씩 딸려있는 그런 집이었다. 소년은 유독 집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다른 기억은 없어도 집에 대한 기억은 정확했다.

집 주변에는 아직 노는 땅들이 많았다. 아직 집들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거기다 콩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조도 심고 호박도 심고 고구마 감자도 심었다. 어머니는 새벽이나 저녁 늦게는 밭을 갈았고, 낮에는 나가서 일을 하셨다. 그렇게 어머니는 자녀 넷을 키워냈다. 그래도 집안은 늘 가난했다. 그래서 소년의 누나와 형은 일찍 일거리를 찾아야 했다.

“누나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만두시고, 형은 그때 좀 어느 정도 푹 푹해 가지고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까지 다녔었는데, 그 고등학교가 국가에서 인가나지 아니한 고등학교를 다녀서 거기 졸업해 봤자 인가가 안 났으니까 말하자면 인제 자격증이 없는 것처럼 됐었는데, 그래서 우리 형이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다시 따야 되겠다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땀어요. 그리고 누나는 생활도 어렵고 그러니까 서울 동대문 미싱사로다가 10년 15년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엄마 도와서 이렇게 하고”

소년은 초등학교만 나왔다. 스스로도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했다. 공부 좀 잘하고 똑똑했으면 고등학교까지는 갔을 것이다. 소년은 첫 직장을 상대원 1동 쪽으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상대원공단에서 시작하였다. 그 후로 서울 쪽에도 가서 일하고 광주 쪽에 가서도 일했다. 주방에서 그릇 닦기도 했고 중국집에서 배달도 했다. 그렇게 소년네 식구들은 최선을 다했다. 어머니는 방을 늘려 세를 놓았다. 살림에 보태기 위해서였다.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려 나가시고 그러다가 방을 이제 하나 둘 세 개, 세 개 있는 집을 지면서 방 세 개니까 하나를 또 세를 놓으시더라구요. 그 당시에 내가 열 네 다섯 살 때 그 무렵 쯤 된 거 같아요. 방을 세놓고 세 받아가지고 꾸려나가시고 이렇게 하다가 집을 한번 또 다시 진 거 같아요. 여유가 또 생기고 그러니까 집을 그 당시에 하나 둘 방 세 개에 부엌 두개 정도 되는 그러고 방 하나 세놓고”

4.

소년의 형은 집안의 장남이었고 기둥이었다. 형은 똑똑한 편이었고 공부도 좀 잘 했다. 형은 비인가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다시 검정고시를 봐야 했다. 그래야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소년은 포기해도 형만은 공부를 계속하기를 바랐다. 소년도 거기에는 별 불만이 없었다. 형이 좀 더 나은 집안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큰 바람이었다.

형은 검정고시 공부를 하다가 방위병으로 군대에 가게 되었다. 정식으로 군대를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학력이 부족해서 방위병이 되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 때는 부대에 가서 보초를 섰다. 항상 피곤하고 힘들었다. 어느날 피곤에 지쳐 형은 보초를 서다가 졸았고, 마침 상사에게 걸렸다.

“형이 보초병 저녁에 스다가 그게 인제 윗상사한테 걸려가지고 (졸았



다고) 예예 그래 형이 좀 맞았나 봐요. 그 당시에는 좀 군 생활이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가슴을 발로다 몇 대 맞았나 본데 그거로 인해서 형이 사망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방위니까 그 뭐 저기 비행기장 국방부 거기 다니다가 이렇게 다쳐서 성남병원에 있었걸랑요. 그때 성남병원이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복정동에서 이쪽으로 좀 들어오다 보면 성남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입원했다가 이렇게 어떻게 죽었어요. 사망진단이 가슴이 어떻게 안 좋아서 피곤해서 뭐 이렇게 약해서 몸이 약해서 죽었다고 진단이 나와 그걸로 그냥 하고, 인제 배상금은 보상금이 좀 나왔는데 한 200 정도 나왔던 거 같아요.”

소년의 형은 그렇게 죽었고, 어머니는 또 많이 힘들어 하셨다. 집안의 기둥 같은 형이 그렇게 됐으니. 소년은 그때 서울 어디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고 있다가 힘들어 하는 어머니 때문에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상대원으로 돌아와야 했다.

## 5.

당시에 소년의 집 주변에는 여전히 집이 몇 채 없었다. 대신 갈대처럼 우거진, 1미터 이상 되는 풀들이 사방팔방에 자라고 있었다. 풀밭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그렇게 우거진 풀들도 장마철이 되면 빗물에 다 씻겨 내렸다. 상대원 3동은 산을 깎아 잡은 터였다. 그래서 장마철이면 늘상 일이 터졌다.

“상대원 3동 모든 일대에 산을 다 깎아놓았기 때문에, 장마가 한번 지면은 1미터 이상 되는 개울 같은 게 생겨지고 그랬어요. 막 흙이 다 깎어져 내려가세요. 장마가 이렇게 되면은 뭐 100미터 200미터 어쩔 땐 500미터씩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상태에서 그 흙이 떠내려가서 깎아지면은 1미터, 1미터 50정도 되는 웅덩이들이 많이 파여졌는데,”

장마가 그렇게 무섭게 휩쓸고 가도 아이들은 새로 생긴 웅덩이를 놀

이터 삼아 자랐다. 집이 쓸려 내려가거나 천막이 쓸려 내려가지는 않아서 다행이었다. 지금 기억에는 없지만 혹시 그런 집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랬더라도 아이들은 별 상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곳에서 생명력 짙은 질경이처럼 아이들이 자라났다. 소년도 그곳에서 청년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을 보냈다. 청년이 되고서도 한동안 할 일이 없으면 그 주변을 배회했다.

“그런 곳에서 많이 놀았는데 그 웅덩이에다가 땅을 파서 굴을 파서 사람이 대여섯 명 정도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한번은 굴을 사방팔방에 애들이 심심하고 그러니까 굴을 파는 재미에 너도 나도 판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번은 우리 또래 형뻘 되는 형이 그 굴을 파다가 굴에 치어서 죽은, 무너져 죽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깊이가 1미터에서 2미터 정도까지 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 거 못하게 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특별히 놀이터랄 것이 없는 동네 아이들은 그런 곳에서 그렇게 놀았다. 요즘처럼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독서실 같은 것이 있을 리도 만무했다. 그래서 다 큰 아이들은 모여서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 6.

소년은 스무살 청년이 되었다. 그 무렵 그는 건축 공사장 야방일을 시작했다. 야방은 공사장의 밤 경비 일이었다. 물론 낮에는 잡일이나 허드렛일도 거들어 주어야 했다. 그렇게 집짓는 현장을 한 곳 두곳, 한동 두동 쫓아다니며 건축 일을 배웠다. 눈썰미가 좋은 그는 그런대로 건축 일을 익혀갔다.

그 때쯤 그의 어머니는 집을 새로 짓기로 했고, 그는 몇 년간 건축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직접 자신의 집을 지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따로 업자를 부르지 않고 직접 인부를 사다가 집을 짓기로 했다. 어려서부터 집같은 집을 갖는 것이 그에게나 가족들에게나 커다란 희망이고 꿈이

었다. 비를 맞으며 트럭 짐칸에 실려 성남에 도착했을 때를 생각하면 우리집 짓는 일이 꿈만 같았다.

집 짓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두 달 여 만에 완성된 집은 이십삼평 오홉 짜리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짜리 집이었다. 지하에는 방과 부엌을 각각 세 개씩 들였다. 단층에는 방 2개에 거실과 부엌을 갖춘 집과 방 하나에 부엌만 딸린 집을 만들었다. 방과 부엌을 많이 만든 것은 역시 세를 놓기 위해서였다.

“어머님하고 저하고 고생을 엄청나게 해 가면서... 공부는 못했어도 눈썰미가 좀 있어가지고 집을 나름대로 멋있게 진다고 했는데. 그 집이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크게 하자가 없더라구요. 지금도 그 집이 있어요. 어머니 혼자서 2층에 사시고 1층과 지하는 세놓고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완성하고 또 누나도 나이가 차서 시집가고,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 7.

언제부턴가 상대원 1동 쪽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섰다. 공장에서는 서울서 온 철거민들이 일을 했다. 젊은 사람들부터 아저씨 아줌마들까지 상대원 공장으로 일을 다녔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총각 처녀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들 모두에게 인근의 상대원시장은 삶의 거점과 같은 곳이었다. 쉬는 날이 오면 상대원시장통에는 총각 처녀들로 넘쳐났다.

“일요일 날 보면은 그 젊은 청년들이 아가씨들이 몰려 나와서. 상대원시장이라는 시장통에 옷이라든가 또 모든 물건을 사는 쪽은 상대원 시장이었기 땀에 그 당시에 아주 커서 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또 그 당시에 술집도 많았었고 좀 있었고 그래서 인제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상대원 1동 쪽 상대원시장 쪽으로 많이 몰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보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는 안다녔었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사람들이 밀릴 정도로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공장이 한참 잘 돌아가고 (주로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시장을 이용하셨나요) 예 그랬었어요.”

당시 옷을 산다거나 학용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자취 생활하면서 필요한 갖가지 생활용품을 구하는데 상대원시장은 참으로 요긴한 장소였다. 상대원 사람들은 저녁 무렵이면,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이면 시장으로 나왔고, 시장은 그 덕분에 호황을 구가했다. 시장 안 자그마한 술집은 상대원 사람들의 세상 이야기가 넘쳐났고, 시장통 골목 안 가득히 국수를 먹고 닭발과 곱창을 주문하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했다.

상대원시장은 동네 구멍가게보다 물건이 싸고 많았다. 과일도 많았고, 고기도 흔했다. 그릇 가게도 잘 되었고, 신발 가게도 경기가 좋았다. 사람들은 미어터지게 많았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아마도 상대원공단의 경기가 죽고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부터, 상대원시장도 활기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집집마다 차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더 멀리 백화점으로, 대형 할인마트로 원정을 나갔다.

## 8.

처음 분양받은 상대원 집터 주변은 그 후 5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산을 깎아 급하게 만든 그곳에 생계를 이어갈 방편이나 일자리가 있을 리 만무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원 지역은 집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도 계속 집들이 지어졌다.

“5년 이상 지나고 하니까 집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드만 71년 지나 5년 지나니까 어느 정도 들어서고, 한 10년 되니까 삼분의 이가 들어서고 85년도 90년도 되니까 웬만큼 곳곳이 다 차지더라고요. 한 15년 전 만해도 아직까지 집을 안 지은 터들이 많이 있었어요. 집이 지어지니까 사람들이 계속 집이 계속 지어지니까 건축 일 하는 사람들이 그거 일하

면서 돈벌이가 되고 돈벌이가 되니까 가정도 꾸려나가 먹고 살고, 이제 성남 공단이 생기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해서 수입이 생기면 또 집들을 새롭게 짓고 해서, 점차적으로 70년 초반서부터 90년 이렇게 95년 이렇게 가면서 점차적으로 집들이 많이 들어선 거죠.”

9.

그는 14살부터 일을 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에서 출퇴근 하거나 공장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혹은 혼자서 자취 생활을 하기도 했다. 공장 생활을 시작한 것은 전구를 만드는 공장이었다. 공단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동네에 떠도는 소문을 따라 찾아갔었다. 그는 그곳에서 완성된 전구에 불이 켜지는지 검사했다. 1년 정도 했고 곧 옮겼다.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는 글러브에 솜뭉치 같은 것을 넣고 미싱으로 박음질을 하는 일을 다시 몇 년간 했다. 신발 만드는 공장에도 다녔다. 어리다 보니 한 군데 계속 붙어있지를 못했다. 그는 중국집에서 배달일을 하기도 했다. 당시 에스콰이어 신발 공장 근처에 있던 중국집이었다. 신발 공장은 중국집의 큰 고객이었다.

“상대원 1동 쪽에 중국집이 한 군데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 취직하게 돼서, 그 에스콰이어가 이제 그때 활발하게 신발을 만들었는데, 저녁에만 되면은 중국음식을 상당히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일동들이 다 자전거 타고 거기 한 거진 한 500미터 정도 될 거예요 중국집에서, 그러면 직원들이 자전거에 싣고 짜장면을 삼사십 그릇씩 배달해서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가 일하던 중국집처럼 공장 주변 음식점들은 모두 장사가 잘 됐다. 공단 근처와 동네 찾길 주변에는 포장마차들이 많았다. 퇴근길에 사람들은 포차에 들러 한 잔씩 했다. 자취하는 이들은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다. 메뉴는 자장면, 짬뽕, 우동 같은 것이었다. 90년대 들어 성남시에서 도시 정비를 이유로 하천을 복개하고 포장마차를 철거할 때까지 포장마차는 성남 상대원의 밤 풍경을 지켰다. 포장마차가 그렇게 철거

되던 1996년 무렵 이미 그는 공단과 중국집을 전전하던 직장 생활을 끝냈다.

10.

상대원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팍팍했다. 부모들은 삶에 쫓겨 아이들을 돌볼 겨를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간섭 없이 커 나갔다. 어떤 아이는 어려서부터 술과 담배를 배웠고 또 어떤 아이는 약간 방탕끼를 갖고 제멋대로 살았다. 어려서부터 집을 떠나 객지로 떠도는 아이들도 간혹 있었다. 그도 한때 한동안 그런 방탕한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도 그런 부류의 친구들이었다. 희망도 별다른 것이 없었고, 낮에는 직장에서 돈을 벌었지만 저축은 하지 않았다. 술이나 마시고 당구나 치면서 시간은 그냥 그냥 지나갔다. 그러다가 스물일곱이 되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술에 만취하여 남의 집 간판을 건어차고 행패를 부리다가 가게 주인과 종업원들에게 몰매를 맞는 일이 발생했다. 친구는 많이 앓았지만 한 두 달 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만큼 아프고 나서야 병원을 찾았다. 동네병원에서는 큰 병원을 권했다. 종합검진 결과는 최악이었다. 치료 시기를 놓쳐 합병증이 생겼던 것이다. 간경화가 오고 결핵도 생기고 폐도 안 좋아지고, 나중엔 몸도 비쩍 말라갔다. 모두들 친구가 죽게 됐다고 그랬다. 친구는 그런 와중에도 돈이 없어 병원을 도망치다시피 나왔다. 집에서 죽을 날만 기다렸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날들이었다. 간혹 돈이 생기면 약방을 돌아가면서 진통제를 사먹는 게 전부였다. 그러던 친구가 어느날 건강해져서 나타났다.

“그 친구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싹 치료받았어요. 그래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거를 나한테 전한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침 받았단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더라, 나는 없는 줄 알았더니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에게 구원받고 그렇다. 친구 니가 잘 알다시피 내가 이렇게 중병에 걸렸었는데 이렇게 고침 받았지 않았냐? 니가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그렇게 나를 전도를 하

더라고요.”

그는 상대원 2동 쪽에 있는 대원교회를 나갔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 잘 아는 친구였고, 그런 친구의 진실한 말이 마음에서부터 감동을 줬던 때문이다. 술과 담배를 싹 끊었다. 별로 어렵지 않았다. 1989년, 스물 일곱 여덟의 한창 나이에 그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

11.

그가 아내를 만난 건 그로부터 2년 정도 지난 후였다. 나이가 서른 즈음에 된 신앙심 깊은 그에게 주변 사람들이 중매를 서겠다고 나섰다. 아주머니들은 언제나 신앙심 좋은 아가씨를 물망에 올려놓고, 청년과의 결혼 생활을 요모조모 그려보고 예상해 보았다. 그의 집에 세들어 살던 젊은 아주머니도 그랬다. 오랫동안 그를 지켜보고 이만 하면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서, 아는 친구의 여동생을 소개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처자였다. 그가 신부감을 처음 만난 곳은 상대원 3동 원다방이었다. 맞선을 보게 된 것이다. 원다방은 상대원에서 제일 유명한 다방이었고, 전에도 자주 다니던 곳이라 익숙했다. 맞선녀는 한번 봤을 때 그냥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급해졌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었다.

“한 번 봤을 때 그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좋게 이런 대화 나의 삶의 상태를 어느 정도 얘기하고, 서로 간에 좋은 첫 만남이었었구. 헤어져서 또 다음에, 대부분 그러잖아요, 여자 측에서 전화가 온다든가 여자 측에서 만나자 그러면 성사가 되고 남자 쪽에서는 일단 기다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선 본 여자 측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또 만나자고, 아닌가? 내가 거꾸로 말했나? 거꾸로 말했네. 하여튼 나는 내 입장이 그러니까, 중매 서신 분한테 나는 보니까 마음에 든다 그쪽 여자 측에서도 마음에 들면 또 만나게 해 달라, 그렇게 했더니, 중매쟁이가 그럼 한번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해서 서로 연락이 돼서 또 만나게 됐어요.”

12.

원다방은 한 20평이나 25평 정도 되는 다방이었다. 테이블은 15개 정도 놓여 있었고, 것처럼 선보려 나온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던 곳이었다. 같은 교회 다니던 권사님 한분도 원다방에서 선을 봐서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990년 초만 해도 사람들은 만남의 장소로 다방을 주로 이용했었다.

“당시에는 만날 장소가 성남 쪽에서는 특별한 장소가 없으니까 원다방이라든가 돌고래다방이라든가 또 그 밑에 무슨 다방이 몇 군데 우성다방이라든가 그런 데서 주로 만났어요. 대부분 그런 데서 만났어요. 다방에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이드신 분들은 별로 없고) 나이드신 분들 가는 다방이 따로 있었던 거 같고, 원다방은 보통이었던 거 같아요. 주인이 젊은 사람 위주로 하나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하나 아니면 다양하게 하나 그런 거 같았어요. 그 당시에 다방에서 노래 나오고, DJ 그런 것도 원다방에서도 있었고, 우성다방 돌고래다방 이런 다방마다 한 동안 유행처럼 몇 년 동안 그런 거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가씨 만나러 또 총각들 만나러 또 꼬시러 또 아니면 음악 감상하러 이렇게 많이들 나와서, 원다방 수다방 돌고래 우성다방 고 일대에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한 거 같아요.”

13.

원다방에서 맞선 봤던 여자를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는 청혼을 했다. 둘 다 혼기가 찬 상태였고, 서로 바쁘게 사니까 시간 끌 일 없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여자 쪽에서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눈치였고 빨리 응답을 바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청혼을 받은 여자도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러자고 대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자는 서울 대치동에서 살았고, 신학생이었다. 그리고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이고 신도들도 시각장애인이 많은 장애인 교회에서 전도사 활



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데이트는 대부분 서울 대치동이나 잠실 쪽에서 했다. 직장 일을 마치고 저녁 무렵에 주로 만나면 잠깐 얼굴 보고, 식당에 가서 식사했다. 잠실 롯데백화점 식당가에서 식사한 적도 있고, 석촌호수를 12시가 넘도록 돌아다니기도 했다. 가끔은 옷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었다.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식은 다니던 대원교회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진행되었다. 신부의 후배들이 찬양을 해주고 섹스폰 연주를 해 주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서울 올림픽공원으로 향했다.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음식도 나눠먹었다. 일요일인 다음날 오후, 오전 예배를 마치고,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신혼여행 길에 올랐다.

14.

집안이 워낙 가난한데다 직장생활하면서 벌었던 돈도 족족 탕진해 버린 터라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다. 그래도 어머니 집 2층에 신혼집을 차리게 되었다. 어머니와 함께 산 것은 1년 남짓. 1년이 지나자 어머니는 400만원을 내놓으시며 독립하도록 했다.

그는 상대원 2동에다 보증금 400만원에 월 10만원 하는 셋집을 얻었다. 방 하나에 부엌 하나 짜리 집이었다. 지하방은 늘 습기가 가득했고 빗물도 새고, 곰팡이도 많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착실하게 살았다. 구두 공장에 다니면서 돈도 조금씩 모았다. 몇 년간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자로 일했고, 보수로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었다. 신학공부를 하던 신부가 공부를 마치고 졸업할 즈음, 다시 집을 옮겼다.

“상대원 2동쪽에 방 하나 부엌 하나 지하실에서 살다가 어느 정도 돈을 조금 모아서 방 두 개 거실 하나 짜리를 얻게 됐어요. 거기서 또 한 3, 4년 살았어요. 근데 그 지하실 방 하나 부엌 하나 살 때 진짜 힘들게 산 게 뭘냐면은, 아주 그 당시에 집들이 아주 완벽하게 잘 지은 것이 아니라 웬만한 지하실은 다 천장에 물이 떨어지고 물이 새고, 막 여름이면 그 물 땀에 고생들 많이 했는데, 우리도 역시 장마철 되면 빗물이 새

고 또 곰팡이 나고 또 부엌 쪽에서는 지렁이가 올라오고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벗어나가지고 방 조금이라도 더 큰 데로 이사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 상태에서 지하 방 두 개에 거실 하나 있는 집으로 전세로 갔나 전세 얼마 짜리로 갔지 전세로 가서 살게 됐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집에 관심이 많았다. 벽돌을 몇 개씩 사들이고 개천에서 모래를 퍼다가 처음으로 집을 지을 때도, 자신이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새로 집을 지을 때도, 그리고 결혼하고 독립할 때나 집을 늘려갈 때도, 그는 늘 ‘방 몇 칸에 거실 하나 부엌 하나’ 하는 방법으로 집을 설명했다. 그에게 집이란 그런 것이었다. 집의 위치도, 방향이나 모양도, 그리고 색깔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지친 몸을 쉬게 할 방이 몇 개인지 음식을 끓일 부엌이 팔려 있는지가 중요했던 것이다.

소년이었을 때도 청년기를 지나 이제 결혼을 하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안정된 주거는 그만큼 중요했다. 혹시라도 비 오던 그 어느 봄날처럼, 또다시 집이 헐리고 거리로 허허벌판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크고 화려한 집을 원하거나 집을 가지고 돈 벌이를 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으면서도, 집은 그의 최고의 관심사이자 인생 목표와도 같았다.

15.

한 집안의 가장이 된 그는 구두공장에 다니면서 구두일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그들이 그랬다. 직접 구두수선하는 일을 배워 보라고, 공장 다니는 것보다 보수가 훨씬 낫다고. 그도 그 일을 해보고 싶었다. 한참을 망설이고 생각했다. 한 달 두 달 일 년, 그 이상 고민하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신문을 보게 되었다. 구두 세탁과 수선을 함께 하는 사람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 사람처럼 큰길 옆 구두박스를 하나 얻어 하려면 만만치 않은 목돈이 필요했다. 그에게 그런 큰 돈이 없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해야 했다. 동네 골목으로 눈을 돌렸다.

“동네 상대원 3동 쪽 골목에 상가가 쪼그만 게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달에 5백만원에 30만원씩 주는 그런 쪼그만 상가를, 한 3평 정도 되는 상가를 하나 얻어서, 이제 마님발 구두세탁소 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특별하게 지으셨네요) 예 마님발 구두세탁소 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없었어요. 성남에서는 최초였던 거 같았어요. 신문을 보니까 구두 세탁해 가지고 괜 찮게 돈벌이가 된다 이렇게 나와서, 내가 그거 보고 참고를 했어요. 다니던 구두 만드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 구두수선을 하면서 구두도 닦고 고쳐주고 하는 그런 거를 상가를 얻고 하게 됐어요.”

마님발 구두세탁소는 쪼그만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할 수 밖에 없었다. 매상이 오르지 않는 것은 당연했다. 그래서 그는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는 대신 수거배달로 영업 방식을 전환했다. 광고전단과 스티커를 만들어서 상대원 일대와 하대원, 단대동, 더 나가 은행동까지 뿌렸다. 아마도 10만장은 족히 뿌렸을 것이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심지어는 거리에 나다니는 아줌마들에게도 구두 수거배달 서비스를 홍보했다. 다행히 큰 호응이 있었다. 이후 가게는 차츰 활기를 띠었다. 신속한 수거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장만하고 면허증을 따기도 했다. 운도 따랐다.

“제가 구두수선 가게를 딱 만들고 두어달 지나고 나서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위기가 닥쳤는데 나는 그때 사람들이 경기가 안좋으니까 막 수선해서, 옷 수선 신발 수선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수선해서 쓰는 게 유행이었었던데요. 그래서 때를 잘 만나서 일거리가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하면서 돈을 조금 벌었어요”

16.

마님발 구두세탁소는 잘 되었다. IMF 경기 한파의 덕을 본 것이 운이 따랐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신속 수거

배달이 사람들에게 먹혔던 것이다. 가파른 언덕배기 많은 상대원 인근에서 오토바이는 영업에 없어서는 안 될 일등공신이였다.

하지만 그는 그게 늘 불안했다. 언덕배기에서 자칫 오토바이 사고라도 나는 날이면 큰 일이라는 생각이 때때로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남들이 보기에는 가진 것도 지킬 것도 별로 없는 인생이라고 볼 지 모른다. 하지만 그에게 아내와 조그마한 가게는 너무도 소중한 것이었다. 소년 시절 철거민이 되어 객지로 보내졌을 때의 막막함을 몸 속의 유전자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아내랑 합의 하에 가게를 팔고 길가의 구두박스를 알아보기로 했다. 가게를 내놓았을 때 그것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금방 나타났다. 권리금도 천이백만원을 받았다. 가게를 연 지 2년만의 성과로서는 그런대로 흡족한 편이었다.

길목이 좋은 곳에 구두박스를 얻고 싶어 기도를 많이 했다. 처음에는 서울 송파와 잠실 쪽에서 알아봤지만 자릿세가 너무 비쌌다. 마땅치가 않아서 분당으로 고개를 돌려 수내동 구두박스를 하나 얻게 되었다. 그 후로 벌써 10년이 지났다.

“지금 이렇게 분당에서 구두수선 잘 하고 있어요. 구두수선만 하다가 자리가 좋으니까 열쇠도 하면 좋을 거 같아서 열쇠도 하게 됐구, 또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좋을 거 같아서 칼도 갈고, 뭘 도장도 하게 되고, (손기술이 아주 좋으신가 보다) 원래 (어디 가서 배우신 건 아니고 혼자서 터득하신 건가요 도장 파고 하는 것도) 아니요.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기초적으로 조금 어떻게 하는 방법만 배웠어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제가 습득하면서 했던 거 같아요. 구두수선도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서 두달 세달 배워 가지고 배워서 이렇게 차려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구두 공장에서 조금 구두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눈썰미로 보니까, 아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 했더니 또 잘 되더라구요.”

스스로의 노력과 삶에 대한 정성을 다했고, 거기에 적당한 행운이 따르면서 그의 삶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결혼 이후 7년 동안 생기지 않던 아이도 태어났다. 첫째가 태어난 것이다.

“우리 집사람이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만 낳라 그랬는데, 또 내가 외아들이었고, 어머니도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는 너무 외롭다 둘 낳아야 된다 자꼬 주변에서 그러길래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어 그럼 하나 더 낳자, 그래서 보민이 동생을 또 4년 만에 또 낳어요. 그래서 애가 9살이고 동생이 지금 5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금 살고 있는 금광1동의 아파트도 운 좋게 분양을 잘 받았다. 그는 스스로를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저 같은 경우 보고, 뭐래나 자수성가한 사람. 예 나는 솔직히 재산도 그렇게 크게 많이 물려받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어디 아무 데나 나가서 막 이렇게 저거 할 입장도 안되는데, 그냥 하나님 은혜로,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은혜인 걸 제가 알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면서. 그래 지금 이 시대에 뭐 물려받은 거 없지 배운 거 없지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 이런 아파트까지 장만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열심히 살다보니까 아파트에서 살게 해 주고.”

상대원의 철거민 천막촌에서 시작했던 삶은 지루하고 험한 길을 돌았다. 그래도 삶은 꺾이지 않았다. 삶이 아직도 두렵기는 하지만 더 이상 막막하지는 않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갖는 자신감과 여유가 조금씩 생겨나는 느낌이다. 성남은 지대가 높아 물난리 날 일이 없다. 그는 자신의 삶도 이제는 더 이상 평지풍파 없이 안정될 것을 확신한다.

18.

그의 삶에서 어머니는 조용하면서도 든든한 후원자였다. 그가 이렇게 안정된 삶을 일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 어머니는 삶의 형편을 요리조리 재는 민첩함보다는 그냥 앞만 보고 무뎡뎡하게 살아오셨다. 그의 아내도 여지껏 처음 분양받은 땅에 그대로 살고계신 어머니의 삶이 참 인상적이라며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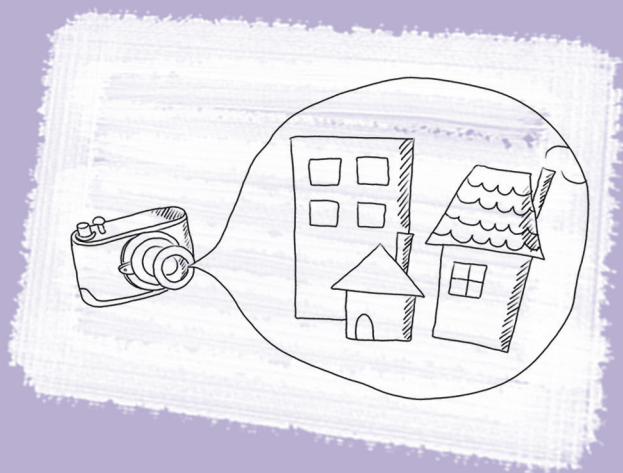
“처음 어머니(가 성남에) 들어왔을 때 땅이 막 이렇게 땅으로 쪼뼛데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땅을 우습게 알았대요. 지금은 굉장히 비싼 땅이 됐잖아요. 어머니 집도 비싸졌어요. 인제 근데 그때는 너무 우습게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쌀 한 말에 이 땅 가져 그랬대요. (하하 그래서 어머니가 좀 샀나) 아니 사진 안했는데 그런 걸 모르시니까. 그 당시에 답십리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고 어머니 혼자 밖에 안 계시다고 그 당시에 함께 왔던 사람들은 집 다 팔았대요. 그 옛날부터 살던 분들이 아니 서복순 씨는 어떻게 이 집을 유지할 수 있었냐고 너무 신기하대요.”

주변 이웃들이 땅을 팔고 이사를 가도 어머니는 결눈질을 하지 않았다. 70년대 후반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분양지를 2~3만원에 내놓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땅을 사들이지도 않았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조금씩 키워가고 불려가는 게 전부인 삶이었다.

19.

아무 가진 것 없는 철거민으로 시작한 상대원의 그의 삶. 상대원공단에서 공원으로 시작해서 도로변 구두박스를 운영하기까지 긴 길을 돌고 돌아 오늘에 이른 것 같다. 천막에서 지하실 방을 거쳐 지금은 번듯한 아파트에 살기까지 변화도 심했다. 그래도 상대원에서의 삶에 후회는 없다. 성남은 살기 좋은 곳이다. 누군가 이곳에서의 40년 삶을 평가해 보라면, 좀 쑥스럽긴 하지만 ‘자수성가’네 글자로 답하고 싶다.

토박이,  
— 상대원 궁씨 이야기







# 토박이,

## - 상대원 궁씨 이야기

### 1.

궁씨의 눈에는 상대원의 변화가 늘 안타깝다. 상대원이 자꾸 죽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뒷걸음질하는 상대원을 다시 활기찬 동네로 만드는 방법들이 그리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상대원3동 자치센터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머리 속으로는 여러 가지 궁리를 해 보기도 했다.

우선 상대원에도 지하철이 필요해. 상대원을 지나는 버스가 아무리 늘어도 지하철 하나만 못하지. 지하철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지역발전에 있어서 천지 차이야. 아파트를 지어도 역세권에 5분 거리와 10분 거리가 크게 다르잖아. 상대원시장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시장에서 공연을 하면 좋겠어. 공연을 활성화해서 집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내서 공연도 보게 하고 그 김에 콩나물 한 보파리라도 사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거야.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에서 하는 일회성 각설이 공연 같은 것도 좋지. 그걸 좀 발전시켜 아마추어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어. 모란시장에는 상설공연장을 만들었잖아.

“올해 봄에 어딜 갔었냐 하면 강릉에 교일동이란 델 갔었어요. 거길 벤치마킹하러 갔는데, 거긴 동네가 신생 도시더라고요 신생동이에요. 그런데 계획 돼서 만들어진 거니까 동사무소 건너편에 아주 좁은 텐데, 거기를 활용을 해서 공연장을 만들었어요. 관심있는 분야라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다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

능성도 있는데 잘 되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각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해서 운영할 때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공연할 수 있는 사람, 공연하는 사람들이 대기 상태래요. 강릉 교일동에서만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강릉 시내의 동아리에서 와서 공연을 한답니다 이제는. 그래서 항상 대기 상태로 돼 있대요. 생각보다는 훨씬 낫다, 잘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딱 보고 상대원시장 우리도 그런 거 하면 딱 좋겠다.”

## 2.

궁씨는 지금도 상대원 3동에 살고 있다. 1959년 태어나서 지금까지 상대원을 떠나본 적이 없는 터줏대감이다. 상대원 곳곳에 50년의 삶의 자취가 기록되어 있는 셈이다. 궁씨는 사진작가이며, 동시에 사진을 전공하는 대학원 학생이다. 상대원시장 입구의 한 5층 건물에 궁씨의 사진 작업실이 있다. 좀 낡은 계단을 올라 들어가게 되는 작업실에는 촬영도구들과 함께 그가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다. 신도시 개발을 위해 철거 중인 판교 지역을 마네킹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사진이 인상적이다.

오래 전 70년대에는 성남을 주로 많이 찍었었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찍은 사진을 다 불태워 버렸다. 한 두어 가마 되는 분량이었다. 그것을 남겨두었더라면 기록사진으로 큰 가치를 가질 텐데 아쉽긴 하다. 어쨌든 궁씨와 상대원은 50년의 세월로 묶여 있다. 상대원은 그 갈피갈피에 궁씨의 삶이 갈무리했고, 거꾸로 궁씨는 사진으로 상대원의 모습을 기록해 왔다.

“상대원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내가 지금 사진 작업을 하면서 항상 내 고향이라는 거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또 조상 대대로 내가 8대째 살고 있고, 우리 아들네미가 지금 9대째네 그니까 뭐 다른 사람보다 애정이 강하죠. 저희 할아버지가 사시던 데가 보통골로, 가족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없고 다 이쪽으로 내려와 있다.”

## ● 상대원의 현황과 역사 ●

상대원은 검단산 줄기의 남서쪽 구릉지로, 동북쪽으로는 광주 시 중부면 및 목현동과 맞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은행동 및 금광동, 남쪽으로는 하대원동과 접하고 있다. 법정동인 상대원동은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의 3개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7년 2월 28일 현재 상대원1동은 6.79km<sup>2</sup>의 면적에 12,650세대, 33,478명이, 상대원2동은 0.54km<sup>2</sup>의 면적에 8,256세대, 19,997명이, 상대원3동은 0.31km<sup>2</sup>의 면적에 7,104세대, 17,994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상대원이란 명칭은 고려 때부터 유래하였다. 고려 중엽인 1225년경에 사원(寺院)이 건립되어 원터 또는 대원(大院)이라 부르다가 원터 위쪽을 상대원, 아래쪽을 하대원이라 하였다. 일설에는 조선 후기의 문신인 이집(李集)의 서원이 있는 곳을 하대원이라고 한 데 대하여, 조선 중기의 문신인 송언신(宋言愼)의 서원이 있었던 이 지역을 상대원이라 하였다고 전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세촌면 지역으로서, 웃대원 또는 상대원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보통골, 중간말과 군내면의 사기막골을 병합하여 상대원리라 칭하고 중부면에 편입시켰다. 1973년 7월 법정동인 상대원동으로 성남시에 편입되었고, 1989년 5월 중원구 관할 지역이 되었다.

성남의 대표적인 공업 지역이자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복합 구성되어 유동 인구가 많다. 상대원1동에는 사기막골길 및 공단로 좌우로 공업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상대원시장을 중심으로 부도심적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교육 시설로는 중원초등학교, 상대원초등학교, 대원초등학교, 대일초등학교 등이 있다.

### 3.

상대원은 검단산 남서쪽의 지대가 높고 기복이 심한 지역이다. 예로부터 보통골, 사기막골 등 몇 개의 마을이 자리잡고 있었다. 궁씨는 그것들이 합해져 상대원리가 되고 다시 상대원동이 되는 역사를 다 지나왔다. 예전에 비하면 인구도 많아졌고 살기도 좋아졌다.

“옛날엔 상대원 1리 2리 이런 식으로, 상대원 1, 2, 3동까지 지금 현젠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인구도 거의 8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2, 3동 합해서. 큰 동이죠 다른 데 비하면. 제가 영월에 가서 보니까 1개 시가 7만 얼마 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구요. 공무원이 또 500명 이래. 그래서 깜짝 놀랐어. 공무원 500명이 7만 명을 담당하네. 성남시보다 훨씬 낫다야. 1,2,3동 공무원들이 3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데. 그런 농담도 내가 농담 섞어 얘기했는데, 옛날에 비하면 인구도 많아졌고 산업화가 되면서 참 좋아졌더라고 봐야죠 덕분에.”

상대원에 공단이 들어서고 성남이 서울의 위성도시가 되면서 궁씨도 혜택을 보긴 했다. 상대원이 바뀌지 않고 옛날 그대로였다면, 궁씨도 영락없이 농사꾼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태까지 땅이나 파고 살았을 것이다. 궁씨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대원에서의 삶을 스스로 위로한다. 허나 지금 현재는 그런 위안이 스스로도 좀 겹언쩍다.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원의 쇠락이 이야깃거리가 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 4.

궁씨가 중학생이었을 때 상대원공단은 활기가 넘쳤다. 아침 상대원 거리는 공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공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 했어요 그냥 뭐 붓 진짜 그야 말로 뭐 붓물이라고 그러나 막 밀고 들어가는 그러고 다녔어요 야니케

이구 뭐 또 콘티빵 뭐 이런 때는 진짜 인구 많았었고, 또 상대원에 방이 웬만하면 방이 조금만 꾸며서 놔도 다 세가 나가고, 어릴 때 우리집이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소도 키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 팔고 소 키우던 외양간 같은 게 비좁아요 방으로 꾸며 갖고 세도 놓고 하도 인제 사람들이 밀려들어 오니까, 그게 72년 3년 정도 되죠. 여기 철거민들 들어와서 개발되고 공단이 완전히 정리가 끝나고 공장이 들어오고 이럴 때니까.”

그때 그의 집은 지금의 공단오거리 근처였다. 원래는 총 열가구 살던 조그만 동네였는데 공단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없어져 버렸다. TV에서 가끔씩 고향이 없어진 수몰민 이야기가 나오지만, 궁씨는 자신도 수몰민과 다를 바 없다고 여겼다. 이러한 고향상실감은 그의 사진 작품에도 반영되었다.

“제가 판교작품을 중점적으로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판교는 나의 고향이다 생각하고 작업을 했던 데예요. 저는 원래 다큐멘타리 쪽에 관심 없어요. 화인아트 쪽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저쪽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내 고향인데, 내가 정말로 옛날에 초등학교 때 봤던 그런 고향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작업을 했고, 그래서 판교라든가, 판교는 저의 친구들 많고, 그 친구들 도움 받아가면서 같이 작업을 하고 하면서 아 내 고향이다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했고.”

## 5.

궁씨는 3학년까지 성남초등학교를 다녔다. 성남 상대원을 비롯해서, 단대리, 수진리, 탄리, 그리고 모란에서도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다. 학교 가는 길은 그야말로 고개 넘고 물을 건너는 험한 길이었다. 황서고개와 박석고개를 넘어야 하는 학교길은 겨울엔 너무 추웠고, 날씨 좋은 날엔 가끔씩 출몰하는 문둥이 때문에 무시무시 하기만 했다. 문둥이는 가끔씩 고갯길 이곳저곳에 나타나 등교하거나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을 놀래켰다. 그럴 때면 아이들은 진달래꽃 뒤로 숨어야 했다. 황서고개는

지금 황새울 축제, 황새울 공원 등에 이름이 남아있다. 학교까지 가는 길에는 또 개천이 3개나 있었다.

“여기서 개천을 두 개를 건너야 되요. 요기 개천... 아 세 개 건너다.! 요기 뭐야 지금 종합시장 앞의 개천, 성남초등학교 앞의 개천. 세 개를 건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막 쏟아지면, 야! 저기 상대원 골짜기 사는 애들 빨리 집에 가. 그래갖고 먼저 보내주고 그랬어요.”

## 6.

상대원은 잘 사는 동네였고 은행동은 못사는 동네였다. 상대원공단이 사람들을 먹여살렸다. 69년도 70년도에 철거민들이 들어와 천막촌을 형성할 때만 해도 상대원동이 이렇게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생각치 못했다. 처음 철거민이 들어왔을 때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동네였다. 아니 오히려 어린 궁씨에게 그건 신기한 구경거리였다.

“처음에 철거민들 들어와 갖고 군용텐트 쳐갖고 거기다가 한 가옥씩 집어넣고 준 거야. 줄 쪽쪽 쳐서, 여기 니네 땅 여기 니네 땅 해갖고. 여기는 지금 분양지들이 다 그런 식이거든요. 상대원동 삼동 분양지 이 동 분양지 옛날에 그랬죠.”

당시 이 지역 국회의원은 차지철 씨였다. 차지철하면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하기도 했었다. 10.26 당시 대통령과 함께 김재규의 총에 죽을 때까지 한 시대의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었다. 상대원을 포함한 성남 지역은 그 사람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던 곳이다.

“성남 광주 여주 이천 이쪽으로 해서 차지철 씨가 국회의원 했었죠. 차지철 씨가 그런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혜택은 좀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가져요. 옛날에 여기 공단 같은 경우에 기념식하고 그러

면, 땡! 하는 폭죽. 어렸을 땐 진짜 되게 무섭더라고. 그렇게 해서 상대원이 변화되어 왔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집 앞에서 이리 이사 내려오면서 공단이 진짜 한참 활성화됐을 때는 그 많던 사람들 지금은 다 어디 갔는지.”

궁씨는 상대원 일대가 철거민 천막촌에서 공단 지역으로 대변신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다. 기억 속에서는, 어린 시절에 보았던 천막촌 풍경이 손에 잡힐 듯 가깝고, 잘 나가던 시절 상대원의 생동과 활력이 또한 어제의 일처럼 느껴진다.

그렇지만 세월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시대를 풍미하던 권력자가 총소리에 지듯이, 상대원의 활기도 덧없이 시들어갔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쪽이 개방되면서 상대원공단에는 빈 공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상대원은 다시 쇠락의 세월을 맞이해야 했고, 궁씨는 다시 한번 그것을 지켜보게 되었다. 물론 지금 상대원에는 벤처빌딩이다 해서 다시 예전의 활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궁씨가 보기에는 그런 시도들이 거인의 쓸쓸한 뒷모습 정도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 7.

지역 자치센터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궁씨는 요즘 들어 상대원이 다시 되살아나 옛날의 활기를 되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원을 지나는 지하철 노선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 궁씨의 주장이다.

“오히려 전철이라든가 이런 연계적인 거, 좀 더 상대원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는 게 어떨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8호선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란에서 섰다가 그냥 다시 가지 말고, 한 바퀴 상대원 쪽 둘러서 남한산성역에서 만나서 다시 서울로 가고 이런 쪽으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뭘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다른 데 쓰는 거보다 그런 쪽으로 쓰면 좀 더 저희한테는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공단에 있는 사람들 출퇴근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침저녁으로 공단 대원터널 그쪽으로 교통이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게 지하철이 들어옴으로써 좀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궁씨는 자신이 지하철 노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신은 힘없는 주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 힘없는 주민들은 밀리는 교통 때문에 고통 받고, 비싼 주차 문제 때문에 힘들어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다.

“가면 주차장 요금이 너무 비싸. 저번에 서울 한번 나갔는데 거기가 특A급지래. 10분에 삼천원이에요. 잠깐 시장 가서 몇 개 사가지고 왔는데, 만 얼마 달래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 무슨 소리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가 서울시에서 주차료 쥔 비싼 텨니다 그러더라구, 이 아저씨. 택시 타고 올걸. 택시비도 이 보다 안 나오겠다. 에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장이나 국회의원 혹은 도지사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궁씨의 생각이다. 70년대 차지철 씨가 그랬던 것처럼, 힘 있는 권력자가 나서면 지역 주민에게 조그만 혜택이라도 좀 더 손쉽게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곤 한다.

상대원시장도 마찬가지이다. 궁씨는 시장의 상권이 좀 더 활성화되면 문화적으로, 전국의 다른 어느 시장과는 다른 특출난 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설 공연장이나 전시장이 운영되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모란시장처럼 상설공연장을 만들자. 요기 뒤에 가서 보셨죠. 가축시장, 고 뒤에 옆에 보면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있거든요, 원래 주차장들이 아니라고 그러데요. 고론 거기를 공연장으로 하나 만들어서 공연장이 낮에 걸리적거리면 공연 안할 땐 접어놔다가 폼다가 이런 식



으로 해서라도 공연장을 상설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고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 상인들한테 고맙게 주민들이 더 나오지 않나. 솔직히 그렇잖아요 요새 나도 마찬가지로 술 먹지 않으면 집에 가서 누구하고 TV 보고 있거든요. 건강 생각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저는 생전 안 하죠.

궁씨 생각에는 영화배우 출신인 성남 시장이 공연장과 전시장 그런 데에 좀 더 힘을 써 주면 가능할 것도 같다.

## 8.

상대원에는 황촌말, 송촌말, 대원, 보통골, 사기막골 등 옛날 마을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토박이 궁씨는 옛날 마을들을 마음 속에 쉽게 그릴 수 있다. 황촌말은 요기 앞동네고, 대원은 상대원1동 사무소 뒤쪽으로 원주민촌이 있었다. 사기막골 같은 데는 상대원에서도 문화적 값어치가 나가는 동네이다.

궁씨는 간혹 성남의 문화유적을 촬영하러 나선다. 작년 여름에는 사기막골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런데 여름이라 수풀이 너무 많이 우거져 작업하기 불편했다. 하는 수 없이 겨울에 다시 작업을 하기 위해 남겨두었다. 그때 궁씨는 동네 사람으로부터 사기막골 가마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궁씨의 큰 형님의 친구였다.

“그 형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절 지으면서 가마터도 나왔었는데, 처음에 문화재관리국인가 거기서 나왔었는데 이것 저것 조사하고 물건 가지고 갔는지 안가지고 갔는지 몰랐는데 그런 일도 있었다 라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기막골, 상대원에서 유일하게 또 문화재가 나온 자리고. 옛날 성남 여기 처음 개발할 때는 문화재라는 게 크게 관련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개발하기 바빴지, 문화재가 무슨 소용 있어, 그냥 막 밀고 갔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요론 호롱병 하나도

주서오시고 하시더만, 인제 그런 게 지금 현재까지 그래도 남아있는 사기막골 같은 경우에 문화가 그래도 좀 숨 쉬고 있지 않나. 그 얘기 들어 보니까 지금도 고 지역에 파면 아마 그런 가마터는 있는 거 같아요.”

궁씨는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이 안타깝다. 간혹 나서는 문화유산 촬영 작업도 그런 마음의 반영이었다. 사진 촬영에 그치지 말고, MP3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녹취해 두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부분의 하나였다. 겨울이 오면 사기막골 문화유산 촬영을 다시 시작하면서 녹취도 시도해 볼 요량이다.

9.

궁씨는 상대원의 변화를 다른 부분에서도 느낀다. 상대원은 더 이상 폐쇄된 지역사회가 아니다. 상대원은 이미 세계를 향해 열린 사회이다. 상대원에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다문화가정이 그것을 증명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동사무소 같은 데서 외국인 대상의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궁씨와 같은 사진작가 중에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작업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궁씨는 상대원 3동에서 진행했던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실에 관한 흥미로운 경험을 갖고 있다.

“요번에 프로그램 발표하는데 외국인들 적극적이더라구. 와서 뭐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텔레비전에 내가...’ 요런 노래 딱 하는 거 보니까 어 참 적극적이구나. 다문화적인 거를 그래도 국적이 바뀌어서 그런지 많이 한국적으로 따라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졌고. 지금 변화를 겪고 있는데.”

10.

궁씨가 사진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 부터였다. 흑백사

진에 매료되어서 78년도부터 입문하게 되었다. 당시 서울 새나라백화점 7층에 있던 서울사진학원에서 배웠고, 우연치 않게 군 사진병 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사진병으로 복무하기도 했다.

“성남에서 을지로5가까지 다니는 570번 버스 있었죠. 상대원에서는 저쪽에서는 66번 있었고, 그 버스들 완전히 콩나물이었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근데 그게 흑백 약품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옆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닦아져요. 요즘 약품이 좋아져서 그런데 옛날에는 바로 화공약품 몇 개를 혼합을 해서 약품을 만들다 보니까 냄새가 무지하게 강했어요. 그 정도 해가지고 학원 다니면서 배웠고, 집에서 복학하라고 돈 준 거 싹 필름사고 카메라 사고.”

군에 가기 전에 성남을 대상으로 사진 작업을 많이 했었다. 당시엔 작품 사진을 한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냥 사진이 좋아 종합시장 앞이라든가, 은행동, 상대원동, 특히 상대원 쪽은 특별히 많이 찍었었다. 그때 까지도 궁씨는 자신이 사진작가로 살아가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때 까지는 마냥 사진이 좋았던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군입대 전에 별 생각 없이 두어 가마 되는 성남 사진을 모두 불살라 버렸다. 필름마저도 남 겨두지 않은 것이 지금은 못내 아쉽고 섭섭하다. 간혹 누군가 성남을 찍은 옛날 사진이 없느냐고 물어온다. 아마도 성남 토박이 사진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문의를 하는 것일 텐데, 그럴 때마다 궁씨 사진작가는 속이 상한다.

궁씨가 3년간 사진병 복무를 마치고 성남으로 돌아왔을 때, 성남에는 비디오 붐이 일었다. 결혼식, 회갑잔치 때 한 30~40분 찍어 편집해 주면 15원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금세 경쟁업체들이 생겨나면서 가격은 7~8만원 대로 떨어졌다.

11.

그 후로 얼마동안 궁씨는 주중에는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는 형님 가

계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결혼할 나이가 되어가면서 돈이 되는 고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해졌다. 그래서 형이 권유하는 전자대리점을 상대원시장 바로 근처에 열었다. 시장조사 같은 것도 하면서 열심히 했다. 얼마후에 상대원 상권의 흐름을 알고부터는 판매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한 일년 정도가 늦더라구 서울서 보다. 물건 판매하는 게 좀 쉬웠어요. 야 서울에 올해 뭐 잘 나갔니? 아 작년에 뭐 잘 나갔는데. 개 갖다 놓으면 나가요 여기. 그래서 서울 가서 보고 그래서 고런 부분은 좀 쉬웠던 거 같고. 그러다가 95년도에 대형마트가 생겼잖아요. 제일 먼저 했던 게 김우중씨가 했던 하이마트 그게 막 들어오면서 소형 대리점들이 막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는 바로 손을 뗐어요”

그리고 다시 한 3년을 낚시에 미쳐서 낚시가게를 운영하기도 했다. 성남에는 낚시인구가 꽤 많다. 낚시가 고급 레포츠라기 보다는 일반 레포츠다 보니까, 특히 민물낚시 인구는 상당히 많다. 궁씨의 어림 짐작으로는 성남 인구의 7~80%를 낚시인구로 칠 수 있다. 처음 낚시가게는 24시간 영업을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다.

“성남 요 근방 민물 쪽에서는 양어장 위주였구요. 댐 같은 데는 충주댐 요런 정도. 저 같은 경우는 민물낚시보다는 바다낚시하고 누어낚시를 위주로 했었죠. 제일 위주로 한 건 누어낚시를 위주로 했었고. 지금 일반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지만. 누어낚시는 안동댐 위주로 다녔고. 옛날에는 팔당상수도 해제 구역인 양평 쪽으로 왕창리 그 이후로 해제 지역이고. 저 북한강 쪽으로는 문호리 그 위로 해제지역이고.”

12.

궁씨는 결혼 전에 아내와 약속한 게 하나 있었다. 40대 넘으면 잘 살든 못 살든 사진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약속이라기 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하는 편이 맞겠다.

마흔 다섯이 되던 2004년에 궁씨는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정식으로 사진을 배우러 대학 1학년에 입학한 것이다. 그리고 내쳐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다. 내년이면 졸업 논문을 내야 한다. 고맙게도 궁씨의 아내 는 이해심이 많았고, 아버지도 재력이 있는 분이였다.

“저희가 형제가 5남 1녀예요. 근데 형들 세 분은 나가 있고 저희 와이 프가 결혼해서 20년 넘게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이런 얘기는 좀 그런 데 와이프가 잘 하니까 나까지 얼쳐서 막 넘어가는 건데, 10년(?) 넘게 그냥 공단에서 내려오면서 그 집에서 쪽 살다가 우리 결혼하면서 집 새 로 짓고 고로 이사와 바로 옆집이니까 골로 이사 와서 계속 그 집에 서 살고 있죠.”

궁씨는 아버지의 소개로 아내를 사귀기 시작했다. 그때 아내는 시장 에서 아버지와 연관된 일을 하고 있었고, 집에도 일 때문에 종종 들렀 다. 아버지는 궁씨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상대원에서 농사를 지었 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아버지가 크게 불리셨다고 했다. 당 시 상대원 일대는 농사 여건이 좋았다. 지금은 메꿔졌지만 저수지가 두 군데나 있어서 물사정도 좋았다.

성남이 개발되면서 농사짓던 토지를 수용하게 되었는데, 땅값의 일부 는 돈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대토로 줬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 땅에 대한 안목이 남달랐다.

“그런 말씀도 한번 하시더라고요. 나 비디오 할 때, 비디오카메라가 삼백만원인데 ‘아버지 나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사줘야 합니다.’ 안 사 줄 거 뻔히 알면서 얘기를 했어요. 사 주겠나 설마, 그랬더니 사주드라 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분양지 한 채거든.’ 사실 난 그런 개념 이 없을 때죠. 그 당시 진짜 분양지 하나 사냈으면 지금 돈 되는 건데, 뭐 2억 얼마씩 간대嘛. 20년 전에 2억 얼마하고 지금 하고 얼마가 비교 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아버지는 땅 가지고 부자가 되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상대원 변화를 가장 잘 읽었던 사람이 아버지였다.

13.

사진 작업을 하면서 궁씨는 상대원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 철거민들이 이주해 와서 천막치고 살던 69년, 70년부터 상대원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처음 상대원동은 찌들은 인생들의 집합소였다. 삶은 어렵고 구차했었다.

“옛날에 지금 공단이 2공단 3공단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3공단 쪽이 늦게 생겨가지고 그 당시에 철거민들이 땅을 준 걸 팔고, 제가 어려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땅을 준 걸 팔고 거기에 들어가서 불법으로 하꼬방을 지어놓고 나무나 이런 걸로 대충해서 집을 짓어놓고 거기서 살아갔고 그 양반들한테 다시 한번 땅을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중원초등학교 앞에 거기 보면 거긴 분양지가 유일하게 15평이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다 주고 그랬던 거 같은 기억도 있어요. 어쨌든 다시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 동네 번지수가 407번지였을 때 동네사람들이 사 고단지라고 그런 소릴 했었거든요.”

그 후 얼마 지나면서 단층 기와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것만 해도 좋았다. 상대원은 차츰 난민촌의 모습을 벗어나고 있었다. 도시에서는 특별한 경우인데, 상대원 3동에는 새마을 주택단지라는 것도 들어섰다.

“그러면서 공단이 활성화되고 방들이 부족하고 상대원이 그야말로 황금기를 겪어 가면서가 더 좋았었고, 다시 85년도냐 6년도냐 그때 쯤해서 다시 주택들이 막 짓기 시작했잖아. 굉장히 활성화되고 옆집 지면 그 다음날 또 옆집 짓고 해서 다 바뀌었죠. 2동 3동 똑같이 그 당시에 그렇게 바뀌어서 지었고. 그러면서 어느날 갑자기 다세대 붐이 일대. 은행동을 시작으로 해서 상대원 2동 3동 다세대 붐이 일어났고 다세대

짓고, 음 다세대가 시작된 건 90년도 중반 이후라고 봐야죠. 예 예 그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그런 거 같아요 맞다 그 정도 제가 낚시 가게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 지금의 상대원동 풍경은 형성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상대원의 변화는 끝나지 않았다. 현재 허가는 안 났지만 상대원은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 재개발이 들어가면 이제 상대원은 예전을 모습을 완전히 잃고 새로운 모습이 될 것이다. 궁씨도 그 이후의 상대원의 모습과 상대원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어쩌면 그때도 궁씨는 여전히 상대원에 살면서 사진 속에 상대원을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 14.

아내 사랑하는 사람은 팔불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궁씨는 아내가 고맙고 자랑스럽다. 아내는 1남 1녀의 아들 딸을 잘 키웠다. 딸은 대학에 다니고 아들은 대학을 준비 중이다. 그 아이들은 궁씨의 고향인 상대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니 아이들의 고향도 상대원이다.

“우리 아들 딸은 빨리 가자 왜 여기 살고 있냐 난 이유를 모르겠다 라는 쪽이에요 특히 아들네미가 그런 주장이 강한 편이죠 우리도 분당이나 서울 나가서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왜 이려고 사냐 그런 거 그 애는 또 명품족이에요.”

돈 걱정 없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아직껏 상대원 불박이로 살고 있는 것이 궁씨 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이다. 교통 좋고 문화 시설이 많은 분당이나 서울 강남의 좋은 동네로 옮겨가는 것이 좋지 않냐고 의견을 내보인 것이 여러 번이다.

사실 궁씨 자신도 옛날과 많이 달라진 지금의 상대원을 자신의 고향이라 할 수 있을지 가끔씩은 의문스럽다고 한다. 그래서 판교 신도시나

송파 신도시 창마을 쪽에서 사진 작업을 할 때, 도리어 그런 곳이 고향 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송파 창마을은 입구부터 마음에 들었다. 미루나무 세 그루가 마을로 들어서는 사람들을 맞는다. 60년대 70년대 한국의 전통 마을, 즉 한국인의 마음 속에 갈무리되어 있는 고향이란 그런 모습이었다.

“나도 그런 우리 고향이 이렇게 없어졌는데 라는 생각은 가져요, 성남문화재 촬영하면서, 보통골 570번 중점 뒤로 보면 나무 한그루 딱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주로 거기서 많이 놀았죠. 그걸 찍으러 올라가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거기를 진짜 몇 십년만에, 내가 저걸 찍어와야겠다 해서, 거길 올라갔거든요. 보통골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그거하고 양판서라고 양판서 묘 그 뒤쪽으로, 두 군데 찍으면서 진짜 옛날 생각나더라고. 옛날 진짜 어렸을 때, 야 내가 여기서 우리 사촌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놀았는데. 보통골이 양씨·방씨, 주가 방씨 그 담이 양씨 그렇게 살았죠. 사기막골은 강씨들이 많이 살았고. 옛날 생각은 거기서 참 많이 많이 나더라고요.”

궁씨는 어릴 때 살던 보통골의 풍경과 그 풍경 속에서 뛰놀던 자신의 모습을 속속들이 기억한다. 그림고 정겨운 모습들이다. 하지만 현재 그 풍경은 온데간데 없다. 기억을 지탱해줄 풍경이 사라져버린 상대원, 그래서 그런지 궁씨의 고향의식이 살뜰한 편은 아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상대원을 떠날 수 없다고 하지만, 궁씨는 여건 되면 상대원을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간혹 한다. 더구나 상대원의 변화는 외부의 힘에 의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지 않는가. 상대원 원주민들은 그 변화에 몸을 내맡길 수 밖에 없는 처지였었고.

15.

궁씨는 성남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성남제일, 대원을 거쳐 중원초등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았다. 짧게는 6개월만에도 학교를 옮겼었다. 아버지의 직업이 이사를 많이 다녀서가 아니었다. 집은 늘 상대원에 있었다.



“우리 사는 데는 상대원동이 한정돼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성남 초등학교에서 성남제일로, 이제 다시 인구가 늘어나니까 대원초등학교를 지어서 대원초등학교로 왔다가, 또 인구가 많으니까 중원초등학교로 이렇게, 자꾸 가까운 쪽으로 근거리 쪽으로 가다보니까 네 번 왔죠. 6년 동안 4번이면 무지하게 많이 옮긴 거죠. 진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자체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건 특이하죠.”

학교를 자주 옮기다 보니까 친구들도 자주 바뀌었다. 그래서 얼굴이라도 보게 되는 공씨의 초등학교 동창은 몇 안 된다.

16.

성남 사람들은 남한산성에 자주 오른다. 공씨도 황성공원 쪽을 통해 자주 오른다. 황성공원에는 게이트볼을 하거나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이니까 등산도 하고 게이트볼도 치지만, 공씨가 젊었을 당시에는 데이트 장소도 시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에는 젊었을 때 데이트 같은 건 종합시장이 제일 좋은 장소였죠. 종합시장 다음에 상대원시장 쪽이었죠. 상대원시장 쪽도 그 당시에는 진짜 저녁때는 사람 진짜 많았었어요.”

상대원의 시장은 이곳 사람들의 삶을 도맡는 공간이었다. 상대원시장 밖으로 나가면 낯선 공간이었다.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유산으로서 성남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어 있는 남한산성이지만, 당시엔 그것이 삶의 바깥에 있었다. 누구도 시장을 벗어나 남한산성으로 발길을 옮겨가지 않았다. 그래서 시장은 밤 12시가 넘도록 불을 환하게 밝혀 사람들을 맞았다.

“결혼하고 나서 내가 처갓집에 갈려고 모란에서 버스를 끊어봤는데 못 가게 됐어. 처남한테 전화해 갖고 여기 표 있으니까 와서 이거 타고 가쇼, 그래 갖고 왔어요. 그 전날 왔더라구. 상대원시장을 갔는데 밤 12

시가 넘었어요. 근데 힘든 거야. 그 당시에 진짜 손님 많고 정말로 그랬던 거 같아요. 추석 명절 이 때는 한 일주일 정도 거의 뭐 24시간 영업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기억도 있어요. 처남 와가지고 옷이나 한번 살까 하고. 진짜 사람 많더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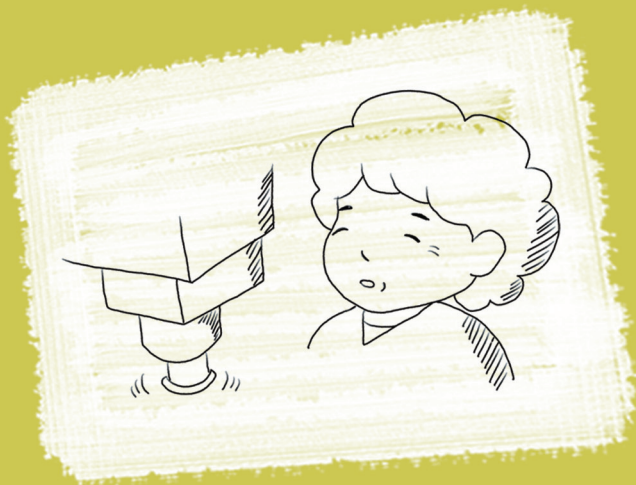
17.

상대원시장은 상대원공단과 지역적으로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궁씨는 상대원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단의 인력을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주민 자치센터 위원장이 되면서부터는 그런 생각이 보다 분명하고 확고해졌다.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이런 생각을 말해 왔다. 오늘도 궁씨는 혹시 할 말을 빠뜨리지 않았나 걱정이다.

“아 내가 한 마디 덜한 게 하나 있다. 지금 현재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원이라는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저녁에 퇴근하고는 거의 다 빠져나가는, 그야말로 돈만 벌고 나가니까. 그 사람들한테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그 동아리들이 우리 상대원시장에서 오늘 공연하는데 최소한 자기네 동료들은 같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번에 공연하는 팀이 10명이다 그러면 거기서 같이 10명이 또 온다면 20명이 오는 거예요. 상대원시장인데 거기 공연도 할 수 있고 먹거리도 괜찮데. 공연도 하고 술 한잔 먹고 내일 다시 출근하지. 그러다 보면 한팀 두팀 자꾸 그러다 보면 상대원이라는 데가 더 활성화되고.”

궁씨는 상대원공단 사람들이 벌이의 5%정도는 상대원시장에서 소비해 줘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대원 사람들도 바라지만 말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만 할 것 같다. 궁씨 자신은 비록 자신의 사진 작업에 몰두하느라 시간이 없어 못한다 하더라도, 성남 시장님 이하 시장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시장을 살려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또또기계 아줌마,  
- 상대원 노씨 이야기





# 또또기계 아줌마,

## - 상대원 노씨 이야기

### 1.

그녀는 강원도에서 출생했다. 어느날 아버지가 성남이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를 어디서 주워듣고 와서는 보따리를 싸게 했다. 성남과의 느닷없는 인연이 시작된 것이었다. 물론 그녀는 아직도 아버지의 정보의 출처를 알지 못한다. 출처조차 확실치 않는 정보에 의지해서 그녀의 가족은 1968년 무렵 성남으로 이주해 왔다. 그녀 나이 9살 무렵이었다. 아버지 대신 엄마의 손에 이끌려 처음 정착한 곳은 하대원이었다. 중학교 졸업 무렵에는 상대원으로 이사했다. 옛날 570번 버스종점 위쪽이었다.

그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추천으로 중앙전자라는 회사에 다녔다. 1년 남짓 다녔는데, 보수가 너무 작아서 삼영전자로 옮겨갔다. 2년 6개월을 다녔던 삼영전자는 당시 구종점 부근에 있었다. 그 무렵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그리고 대일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22살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27년을 지내왔다.

“우리 아저씨가 원래 사기막골 유지예요. 원주민 강씨네 집안에서. 우리 아저씨가 3남 3년째 막내로, 7살에 부모를 다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안들은 다 짹짹하고 잘 사세요. 결혼이라고 해서 가니까 막 집안의 우애도 좋고 두텁고 집안의 화목이 굉장했어요. 근데 인제 우리 애기 아빠가 막내고 좀 살기가, 뭐랄까 좀 평범하긴 한데, 집안들이 너무 뽕뽕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딱 느낀 게, 아 자식들한테는 나는 이런 걸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 강씨는 사기막골의 유력한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났다. 하지만 부모를 일찍 잃은 막내의 삶이 평범 이상이 되지는 못했다. 결혼 전 친정집의 형편도 어려웠는데, 다른 형제들과 비교되는 남편의 처지를 보게 되면서 그녀는 자식들에게는 좀 더 나은 삶을 물려주어야겠다는 삶의 목표를 세웠다.

## 2.

신혼 초에는 그냥 집안일만 했다. 하지만 삶의 목표를 생각하면 뭐라도 해야 했다. 그러다가 주위 할머니들을 도와 심심풀이 삼아 도라지 까기를 시작했다. 상대원시장 상인에게서 도라지를 받아다가 한 양푼씩 까면 그 때 돈으로 1000원을 받았다. 1986년 즈음해서 우연히 지퍼 부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389단지의 쓰러져 가는 허름한 2층 기와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그 때 당시 우리 아저씨가 한 18만원 월급생활 할 텐데, 우리 아줌마들이 사회 나가서 돈 벌면 하루 일당이 5000원씩 했을 때 무렵인데, 요 지퍼 하나를 딱 끼우면 1원씩인가 그렇게 줬었어요. 딱 끼면 1원씩 인데 좀 욕심이 생기고, 시계를 재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해 보니까 한 시간에 5~600백씩 끼니까 그게 괜찮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미를 붙여가지고, 일을 잘해주니까 연신 이어지면서.”

그녀는 생활력이 강했다. 손이 많이 가는 부업을 하기에 제격일만큼 손도 빠랐다. 수출이 잘 되던 시절이라 일거리는 넘쳐났다. 조금 지나면서 집에 작업용 기계도 들여놨다. 그리고 아줌마들 서너 명을 모아서 같이 작업을 했다.

그러나 남편 강씨는 그녀가 부업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부업을 당장 그만두라고 하였다. 당시만 해도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다. 그에 비하여 그녀의 살림 형편이 아주 나쁘지는 않았으니 남편의 성화가 순전한 억지 강요는 아니었다. 그래도 그녀는 부업을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다. 여자가 집에서 우두커니 집지키는 개냐며 남편 강씨와 싸움도 많이 했다.

아이들은 엄마의 부업보다도 상대원의 초라함을 싫어했다. 그래서 이사 가자고 졸라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그녀는 부업하기 좋은 상대원을 쉽게 떠날 수가 없었다.

“애들이 초등학교 가면서 막 인제 이사 가자고 난리를 치고, 엄마 여기 살기 싫다고 그냥. 동네가 너무 후지고 집도 작다 그러면서. 애들이 또 큰애가 욕심이 많아요. 절 닮아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아저씨가 벌고 내가 벌고 그니까, 인제 돈 어느 정도 저기하고 그러니까, 엄마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이사를 못가고 여기서만 눌러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3.

또또기계라고 했다. 하도매기계라고 했다. 그것은 배낭 같은데 구멍을 내고 조리개를 끼워 압착하는 기계였다. 잠바 같은 옷의 똑딱이 단추도 그 기계로 달았다. 그녀의 부업이 본격화된 것은 또또기계로 집에 들어온 이후였다.

“첨에 6개월 작업이 있으니까 고거 좀 해 줘사 하고 어떤 제안이 왔어요 저한테. 어떤 사장이지 말하자면 하청 사장이 그런 식으로 제의가와 가지고, 초창기는 그 기계를 사주는 바람에 인제 일이 된 거예요. 지퍼 끼는 부업에서 내 혼자 하다가, 그것도 인제 한 2년 정도는 저 혼자 했었어요, 기계 한대 딱 놓고. 뭐 분양집이니까 2층에 아래층에 다 세우고, 2층에 혼자서 마루에 쪼그맣게 하나 놓고서 하니까.”

그렇게 소문과 소개를 통해 일거리가 조금씩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중동에 살던 친구네에 놀러간 일이 있었다. 돌마초등학교와 성남여자중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였는데 결혼 이후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

하고 지내왔다. 친구 남편은 서울에서 군자실업이라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마침 가방을 재단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하여 작업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친구 남편이 다른 곳의 작업물량도 물색해 주고, 돈도 받아다 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런 저런 신경 안 쓰고 기계 작업에만 열중하면 되었다. 1차로 완성되어 오는 가방에 펀치질을 해서 구멍을 뚫고, 또또기기로 조리개를 끼워 압착하는 데까지가 그녀의 역할이었다. 그렇게 최종 완성된 가방은 라벨을 달고 포장 공정을 거쳐 수출길에 올랐다.

그렇게 7,8년이 지나자, 소문이 소문을 내고 일이 일을 물고 왔다. 그녀는 작업 보수를 현금으로 고집해서 받았다. 가격을 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 원칙만은 지켰다. 업계를 잘 모르는 아줌마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일이 찾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기한만큼은 확실하게 지켜주었기 때문에 신용이 쌓였다. 특히 수출 건은 시간엄수가 생명이었다.

“수출 건은 그렇잖아요, 수출 건은 날짜 시간 맞춰야 되니까 진짜 밤낮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돈도 좀 모아지면서 그러니까, 이사를 가자고 그러는데, 거기서 자꾸 인제 기계가 늘어나면서 아래를 세를 주던 거를 빼고 내가 인제 거기다가 기계를 몇 대 놓고 일이 점점 커지면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대원동에서 주로 그런 식으로 내 생활을 가꾸면서 살았는데.”

그녀에게 상대원은 삶의 터전이며 생활 전선이었다.

#### 4.

그녀는 아이들 교육에도 열성이었다.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학부모회는 가능한 전부 쫓아다녔다. 녹색어머니회 같은 교통봉사 활동도 열심히 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그녀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켰다. 학기 초 임원 선출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 활동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그것이 나름대로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는 방식이라고 굳게 믿었다. 치맛바람 날리는 여느 학부모와 자신을 구별하는 방식이었다. 아무튼 자식만큼은 잘 키우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살았고, 그런 덕분인지 큰놈 범구는 반장도 여러 차례 했다.

그녀가 살면서 마음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큰 아들이 아팠을 때였다. 늘 개근을 하던 범구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였다. 이곳 저곳 병원을 쫓아다녔는데, 병원마다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아무래도 이제 내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햄이니 뭐니 그런 걸 지네들이 좋아하는 거를 주로 많이 맥였지요. 인제 김치는 기본이지만은 간단하고 인스턴트 식품, 지네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걸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제 생각인데, 그런 거 때문에 그랬나 싶은가. 하여튼 이유없이 많이 아파서 또 마음적으로 많이 제가 안 좋았어요. 부모로서 제대로 못해주고 그런 것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 번 갈 때마다 16만 얼마씩 나오는 진찰비도 마다 않고 성남의 웬만한 병원은 다 가봤다. 병은 오래 갔다. 그녀가 바빠서, 시간 맞춰 작업을 끝내야 하니까, 남편 강씨가 병원을 쫓아다닌 적도 많았다. 상태가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미혼이었던 여동생이 병실을 지키기도 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도 허여멀건해서 그녀는 백혈병이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다행히 큰 아들의 병은 혈관 질환으로, 혈관에 구멍이 나서 피가 흘러나오는 상태였고 약물 치료가 가능한 정도였다. 그후 일년 정도 약을 먹고 완치되었다.

큰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장파열로 다시 큰 수술을 받았다. 그런 와중에도 아들은 잘 자랐고 공부 욕심도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여느 어머니들처럼 아들에게 과외를 붙여주기도 했다. 서중학교를 마치고 성일고등학교에 진학한 아들은 중학교에서처럼 반장이 되어 그녀를 기쁘

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고생이라면 고생이지만 보람이라면 보람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인생들처럼.

5.

그녀는 2007년 10월에 상대원을 떠나 현재의 성남동으로 이사했다. 이사 전까지는 부업을 계속했다. 그녀는 스스로 생각해도 일복이 참 많았다.

“진짜 수없이 밤낮없이 했어요. 어느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밥 간단하게 해주면서 애들 가기 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냥 뭐 몸빼 바지 하나 주서 입고 허구헌 날, 그 시간대를 맞춰줘야 되니까 날짜를 맞춰줘야 되기 땀에. 제가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고 오면 보통 10시도 넘어서 오고, 또 학원 들러서 오면 12시까지, 그냥 기계 소리가 푹 푹 딱 좀 요란해요.”

그러나 시대가 늘 그렇지는 않았다. 좋은 시절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이다. 일을 통해 알던 사람들이 한둘씩 폐업을 하거나 전직을 하면서 차츰 일거리는 줄어들었다.

“차츰 중국으로 일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저 소개해 준 그 친구 네도 중간에 일을 그만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때 당시는 본사 본사 거를 전적으로 해줬는데 이제 하청으로 일이 들어오게 됐어요.”

6.

그녀는 요즘 들어 문득 문득 포포기계 소리가 그림다. 포포기계는 소리가 여간 시끄럽지 않은 기계였다. 겨울에는 문을 닫고 기계를 돌리니까 좀 덜 하지만, 여름이면 문을 열어야 했다. 그러면 다닥다닥 붙은 이웃집들은 분명 큰 피해를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웃들은 불평을 하기도, 외려 열심히 사는 게 좋다고 하였다.

주위에 살던 동갑나기 친구들은 함께 작업을 했다. 아줌마들은 갈 때도 별로 없고 공장도 안 다니고 애들도 어리고 하니까 집에서 하는 그런 일이 제격이었다. 일이 없거나 날씨가 궂은 날이면 빈대떡도 부쳐 먹고, 이불 속에 발 집어넣고 정담도 나눴다. 동네 할머니들도 간단한 작업을 도와주고 용돈을 만들어 썼다.

“할머니들 그날 그날 일을 하면은 그날 그날 내가 줘요. 그러면 할머니들 옛날 천원 벌이 이천원 벌이 해면은 좋다고. 다들 오셔가지고 그 골목이 자리를 까라 옛날 신월 동네 모냥 그냥 깔어 놓고 저기다가 우리가 일을 하면 가방을 많이 던져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서로 해요. 하는 대로 먹기 내기니까. 이렇게 내주면은 자기네가 옆에다 쌓아두고 서로 할려고 씹을 하고 엉덩이에다 감추고 그러면서 하고. 좀 여유로우면 빈대떡이라도 부쳐가지고 술이라도 한잔씩 해다 주면 좋아하시고 그냥 뭐 시골 같은 풍습이랄까 그냥 집 자체가 다닥다닥 붙어있으니깐요.”

## 7.

그녀는 부업하는 사람들이 손 못 놓는 이유를 잘 안다. 또 텔레비전 프로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부업하는 달인 아줌마들이 왜 그렇게 손이 빠르고 정확해졌는지 잘 안다. 노력한만큼 정확하게 들어오는 돈 맛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20일 정도 한다면 될 거예요, 없을 땐 없고 있을 땐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보통 평균적으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우리 아저씨가 20만원 벌을 직에는 한 60만원씩 됐어요. 아줌마들이 하루 나가서 8시간 기준으로 5천원 벌을 직에, 저는요 한 2만 원 정도, 2만 5천 원 정도 벌었어요. 집에서 그냥 뭐 밤낮 없었어요. 그냥 저녁 잠자는 시간 외에는 그 정도로 일을 했어요.”

90년대 초반에는 경기가 참 좋았다. 수입이 남편보다 한참 많았으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남편 강씨가 해야 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90년 중반 어느 시점부터가는 상황이 바뀌었다. 남편이 170만 원, 그녀가 130여만 원 정도로 역전되었다. 그렇지만 그러다가도 우연찮게 단가가 꽤많은 작업물량을 만나면 의외의 목돈이 들어오기도 했다. 100만원을 벌 수 있는 기간에 250만원을 버는 의외의 재미가 있었다.

그런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부업은 오랫동안 강한 중독성을 지녔다. 성남에는 그녀 같은 아줌마들이 많았다. 성남에 노는 남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가끔씩 듣는데, 그 원인도 부업으로 가내 공업을 하는 아줌마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미싱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봉제 하청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가 억순이, 억척이었다.

## 8.

그녀는 하대원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쳤다. 지금의 대일초등학교 자리가 성남여중이었다. 그 전에는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에서 살았다. 친정은 워낙 못 살았다. 거기다 아버지는 팔방 난봉꾼으로 전국을 안 다닌 데 없이 떠돌아 다녔다. 당연히 칠남매는 어머니 혼자 책임을 지셨다. 어머니가 아무런 믿는 구석도 없이 성남으로 이주를 결정하신 것도, 시골에 땅 좀 있는 거 난봉꾼 아버지가 다 없애버리기 전에 먼저 팔아치워 살림에 보태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참으로 무심했던 분이였다. 한번 나가면 이삼년씩 소식이 없었다. 그녀가 2년을 꿰어 두 살 아래인 친구들과 동창이 된 데도 사연이 있었다. 학교로 전학증을 떼러 간다고 나가셨던 아버지가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 길로 다시 집을 나갔고, 오도가도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다 못해 오빠가 대신 어찌 어찌 전학 수속을 마쳐 주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그 모양이라서 고생은 어머니와 나머지 가족들의 몫이었다. 어머니는 노상 왕십리로 성남으로 장사를 다녔다.

“엄마가 왕십리 쪽 무슨 하양리 무슨 장으로 새벽 장사를 다니셨어요. 인제 거기 하대원에서 남의 땅을 얻어가지고, 그 뭐라고 하죠 도지 주는 거 있잖아요, (소작) 소작 인제 그걸 하셔가지고, 인제 서울 사람 땅을 부치고 그러는데, 보통 뭐 고구마 감자 호박 가지 그런 거 심으면, 학교 갔다 오면 맨 날 그런 거 따고 맨 날 밥해 먹고. 저는 중학교 다닐 적에도 밥을 아침에 다 해먹고 다녔어요. 엄마가 그렇게 장사를 새벽장사를 가시야 돼요. 거기까지 가려면 옛날 570번 자리 있는 데까지 니아카로 끌고 가야 되고 끌고 오고 그러면서. 밥을 해서 학교 다니면서 제가 밥을 해먹고 다녔어요.”

칠남매였지만, 언니는 그녀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일 때 일찌감치 시집을 가고 없었다. 그래서 딸로서는 둘째였던 그녀가 어머니가 장사 나가고 난 빈자리를 메워야 했다.

“어느 때는 이제 지금 시의원 하셨다가 그만두셨는데 이응백씨라고 옆에 살았는데 하대원에, 그 집이가 테레비가 있어서 그 집에 가 테레비 보다가시리 밥을 할 시간을 잊어 먹어가지고, 그냥 지게 작대기로 얻어터진 적도 생각이 나고 오빠한테. 또 우리 거기가 물이 없었어요 그 집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는데, 그 소죽 끓이는데 그냥 그 물을 길러와야 되는데, 못 길러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혼나기도 한 적이 있고, 그 집에는 물이 펌프질해서 하는데 참 좋으셨어요.”

그녀는 중학교를 마치도록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그곳에 재개발 바람이 불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어찌고 하는 바람에 상대원으로 이사했다.

9.

농협 옆에 돌고래 다방이 있었다. 그녀는 주로 그곳에 가서 음악을 들었다. MP3 기기가 발에 채이는 요즘에는 다방에 가서 음악 감상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튼 그때는 음악 감상을 위해서 다방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개는 박천마을에 나는 이천마을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우리집을 지나서 가야 하는데, 그 친구가 맨날 거기 와서 저는 주야를 돌았잖아요. 삼영전자가 주야를 돌아요. 그래가지고 야간에 하고, 그러면 개는 맨날 놀고 먹고 그러니까, 맨날 남 잠자는데 책 들여다 보고 있고, 옆에서 있다가 회사 갈라고 그러면, 깨워가지고 거기 가서 한 시간씩 음악도 듣고 놀고 그러다가 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DJ한테도 반하고 그랬을 거예요.”

남편 강씨는 친구 엄마의 동생이었다. 어느 날 심부름 가는 친구를 따라서 친구의 삼촌,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 집안을 간 일이 있었다.

“우리 아저씨가 나를 보더니 성격이 참 명랑하고 활발하다고. 부모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소심해요 우리 아저씨가. 그러니까 인제 물어봤나 봐요. 그 친구가 어떠냐. 그러면서 자기 누나한테도 물어보고 매형한테도 물어보니까. 아 그 아가씨 성격 참 좋고 서글서글하고 그러니까. 그러니 자기가 혼자서 반해 버린 거지 짝사랑을 하게 된 거지. 짝사랑한테 자꼬 만나게 해 달라 그러는데. 우리 아저씨는 뽕띠고 나는 쥐뎀데 한 7년 차나니까, 또 회사에서 사귀는 남자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인제 고민이 돼 가지고. 그때 당시 나이 어린 나인데도 집이 어려웠었어요. 하대원 살다 상대원으로 이사 가가지고 살기도 어려운데다, 식구들은 절망절망 많고. 그러니까 인제 애가 야 그러지 말고 골치 아픈데 시집이나 가라고. 우리 삼촌이 좀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도 걸리적거리고 귀찮게 하는 놈이 없으니까, 가라 가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녀는 중앙극장 밑에 있던 대지다방에서 남편 강씨와 처음 만났다. 왜소해서 아이같은 모습이 싫었고, 그런 사람과 맞선이라고 마주 앉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까지 느껴졌다. 그래서 한동안 피해다녔다. 출근도 일부러 빨리 하고, 퇴근도 한 시간씩 늦췄다. 그런데

도 인연은 어쩔 수가 없었다.

10.

그녀는 삼영전자에서 2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 1년쯤 되었을 때 모범상을 탈 만큼 성실하게 일했고, 회사생활은 나름대로 재미있었다. 일하다 쉬는 시간이면 잔디밭에서 음악을 들으며 놀았다. 무엇보다도, 같이 일하던 7, 8명의 또래 친구들이 있어서 더욱 좋았다. 그들은 회사 밖에서도 좋은 친구들이었다. 다들 집안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같이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우리 어디로 놀러가자 무조건 가요. 인제 밤에 기차타고 밤에 떠나면은 새벽에 도착해서 놀러 가고. 그런 식으로 놀러 다니면서 추억거리. 그때 당시 전라도 어디 갔었고 부여 쪽에도 갔다 오고 낙화암 있는데, 하여튼 좀 저기 하면 갔었어요. 그래 조장님이 니네들은 맨날 빨빨 대고 놀러만 다니지 말고 교회를 나가라. 그래도 또 회사 자체에서도 일은 또 열심히 해 줬어요.”

11.

어머니는 여러모로 그녀에게 많이 기대고 있었다. 그녀는 일찍 시집간 딸딸 대신이었다. 그녀 덕분에 어머니는 그나마 장사를 하다니며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한 마디로 살림꾼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녀를 일찍 시집보내고 싶지 않았다. 딸이 선을 보고 남자를 사귀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것이 벌써 시집갈 생각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하고 못마땅했다.

“우리 엄마가 대놓고 우리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자네 장가를 못 가면 내가 여자를 소개해주고, 우리 딸은 안 된다고, 막 그 정도였어요. 진짜 심각했을 정도였어요.”

그녀 자신도 성에 차지 않는 남자인데 어머니마저 그렇게 반대가 심했던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핑계를 대기도 하면서 남편 강씨를 피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을 좋아해 주는 남편이 좋아지기도 했다. 그래서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어기고 다시 만남을 이어갔다. 그래서 어머니와는 다시 힘들어졌고, 그러는 사이에 오빠도 그 사정을 알게 되었다.

“우리 아저씨가 우리 엄마한테 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러는데, 오빠도 그때 술 한잔 먹고 들어와 가지고, 내가 다리를 분질러 앉혀서 먹여 살리는 한이 있어도 당신네 못주겠다고, 부모도 없는데서 자랐는데 내가 줄 수 있냐 못 주겠다고 막 그랬는데. 그때 당시 우리 오빠가 술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생활이 힘든데도 돈도 좀 안 갖다 주고 그래 속이 상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고 오빠 인생은 오빠가 살아가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딱 가방을 메고 나왔는데, 나와 가지고 원다방이라고 있잖아요, 상대원시장 입구 들어가는데 원다방 거기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고 내가 그날 저녁에 오빠가 무서워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친구네 집에서 자고 언니네로 내뺐라고 그랬는데, 못 가게 하더라고요 우리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인제 좀 살다가 결혼식을 올렸어요.”

12.

그녀의 하루는 집안에서 시작해서 집안에서 마무리되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동네에 사는 평범한 아주머니, 할머니, 그리고 앞집에 마주보고 살던 장애인 아주머니 정도가 대인 관계의 대부분이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아들의 이름, 범구 엄마로 통했다. 그들은 부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였고, 삶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였다.

“할머니들이고 아줌마들이 우리집이가 사랑방 마치 그렇게 살았어요. 10원짜리 화투들도 치고, 어쩔 때는 하다못해 과일이나 순대라도 사다



놓고 간단하게 먹으면서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막 놓고 그러는데 경찰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고스톱 치는 거 얘기했더니 이렇게 하는 것도 잡아간다 해서 할머니들이랑 웃은 적도 있어요.”

“저는 손도 커요. 손도 커서 김치 같은 거도 많이 담가놓고 불쌍하고 주위에서 없는 사람들 그냥 개태기로 주다시피 하고. 시골 언니네 가면 야채니 뭐니 많이 주면은 챙겨다 주위 사람들 다 노놔 먹다시피 하고. 그냥 하다 못해 놀러 가서 조개 새끼라도 캐 오면 봉지 봉지 다 퍼 돌려 주고. 완전 시골 동네 같이 재밌게 살다가.”

그들은 때로는 언니 같고, 엄마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소연도 자주 했다. 그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평범하고 하찮은 것이었지만, 삶의 고비를 넘고 걷는데 커다란 힘이 되었다. 그것이 위안이 되어 많은 힘든 시간을 버텨온 것 같기도 하다. 그녀는 요즘 상대원 옛 동네에 가끔씩 놀러 간다. 그럴 때면 상대원의 삶과 사람들이 더욱 그리워진다. 아이들을 출가시키면 상대원으로 돌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 13.

그녀는 현재의 성남동으로 이사한 후 집에서 하던 또또기계 부업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집 밖에서 하는 부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상대원동이 더욱 그리웠다.

“직장이라고 나가보니까 진짜 아침부터 늦게까지 가서 돈 백만원. 여자들 뭐 기술 없고, 그리고 또 나이를 먹다보니까 써주는 데도 없어요. 진짜 힘든 데 밖에 없고, 알바 식이에요. 일도 안 써줘요. 그래도 내가 말하자면, 하청에 사장이나 마찬가지로 사람을 다루고 일을 하고, 부업 이래도 조그맣게 가내공업이라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해다가 진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잔업하고 야간 해야, 돈백만원 조금 넘을까 말까. 진짜 돈이 그렇게 소중한 거도 느꼈고 우리 아저씨

맨날 돈 적다고, 아이구 저것도 돈 벌어왔다고 벌어왔냐 맨날 이런 식이었는데. 진짜 내가 우리 애덜한테 그랬어요. 야 밑바닥 인생을 엄마 인제 다시 느끼고 있다, 밑바닥 인생을 다시 산다 그랬어요.”

그녀는 요즘 들어 부쩍 예전 상대원에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가게 되었다. 돈도 벌면서 주위 분들과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면서 사람답게 살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다.

그녀는 예전부터 마음속으로만 간직해 오던 꿈이 있었다. 그것은 신살 이후에 대한 삶의 계획이었다. 그 꿈 속에서, 그녀는 장구를 배운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을 찾아다니며 장애인들과 더불어 즐긴다. 그런 삶이 상대원에서의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14.

남편 강씨는 부모를 일찍 여의었다. 꼼꼼하고 가정적이긴 했지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그녀는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꿈도 많고 성격이 화통한 편이었다. 옆에서 밀어줄 테니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번 밀어붙여 보라고 부추겨도 남편은 이리 재고 저리 재고하면서 평생을 직장 매어 직장 생활을 했다. 부업을 해서 현금이 들어와도 그녀는 기분 좋게 한 톱씩 내는 것을 좋아한 반면에, 남편은 다 가져다 은행에 집어넣는 성격이었다.

그래서 젊어서는 남편과 갈등이 잦았다. 요즘에도 남편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다.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실패작이라면 당신을 만난 일. 남편 강씨는 자신이 어때서 그러냐고 되받는다. 하지만 솔직히 예전에 생각하기에는 그녀가 원하는 그런 남편감이 아니었다.

“우리 아저씨가 그런 애길 하더라고 여기 이사 와서. 그니까 한 마디로 그릇도 적고 소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나도 이런 테 와서 살 생각

을 못했다는 거야. 상상도 해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니까 조그만 분양 집(전에 살던 상대원동 집)에서 맨날 그렇게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냥 거기서 만족을 한 거죠. 말하자면 마누라한테 기대면서 만족을 하고 살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 안 벌어도 회사에서도, 그냥 뭐 중소기업 조그만 데 다니지만도, 누들 부럽지 않다, 사장이라고 하고 있어도 니보다 내가 낫다 자부심에. 우리 신랑이 좀 그런 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어쩔 땐 그렇게 살아온 남편이 불쌍하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그녀는 아이들은 좀 다르게 키우길 원했다. 아니 다르게 키우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가 역순이 인생을 선택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15.

범구는 그녀의 큰 아들이다. 남편 강씨는 성남 상대원동 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살지만, 범구만은 넓은 세상에 나가 살길 바랐다. 다행히 범구는 깡깡하면서도 화통하고 남자다웠다. 자기를 더 많이 닮은 큰 아들을 보면 그녀는 뿌듯했다.

아들 범구는 공군사관학교를 가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수술 자국이 있어서 불가능했다. 한동안 방황하는 범구를 그녀는 지켜보기만 했다. 기대했던 대로 아들은 그 방향은 잘 끝냈다.

아들 범구는 상대원동의 집을 싫어했다. 좁고 답답하다고 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졸라댔다.

“애는 집도 좁고,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그러면, 여름에는 문들 다 열어놓고 살잖아요, 그러면 서로 마주보다시피 하고 옷도 갈아입기 그렇고. 그러니까 막 이사 가자고 노래 불렀는데. 신랑은 돈이 작으니까, 그거 가지고 애들 깔키며 살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별어야 된다는 신념으로 그냥 미직미직.”

방위산업체에 다닐 때 범구는 스크린 경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참여해서 신문에 나기도 했고, 또 그 일로 외국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다. 그 이후로 범구는 상대원 집을 더욱 좁고 답답해 했다. 그녀로서도 이제는 아들의 바람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조금 대출을 받고 해서 현재의 성남동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다.

16.

성남은 첫 발을 딛던 40년 전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변했다. 철거민이 막 들어와 하꼬방 슬라브집에서 살기 시작했던 것이 어제 같다.

“제가 학교 다닐 무렵만 해도 시장 고쪽으로 개울 또 완전 산꼭대기고, 막 집이 들판 들판 있고, 돌산이라고 그럴까 돌 있고, 덜렁 학교가 하나 지어 있었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물 사정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막 굉장했었어요, 청소 같은 거도 할라면.”

그녀는 389단지에 집을 샀다. 남편 강씨의 직장은 상대원1동 공단지대에 있었다. 그래서 근처에 집을 구했다. 갓 돌 지난 아이를 데리고 이 시간 동네는 뭐 이런 곳이 있나 싶었다.

“그래가지고 맨날 엄마네 집에 가서 살다시피 했었어요. 정이 안 들고, 침에 부엌 같은 거 안 앉힐 때는 맨날 애 하나 들고 엄마네 집에 가서, 엄마도 돈 벌러 가고 그러시니까, 빨래 같은 거 해주고 저녁 준비씩 해놓고 올라오고, 신랑은 출근하면 저녁 저기하고 그러니까 주로 인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니까. 주위 사람들이 텃새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예요. 그때 당시 다들 집이 화장실도 이렇게 사각으로 돼 가지고 그냥 막 냄새도 많이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수세식이라는 화장실이 우리 집이 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물이 안 나

와 가지고 막 대변을 봐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상대원동은 기와집에서 2층 3층 집으로 대부분 바뀌었다. 다닥다닥 붙은 집들은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나마 최근 재개발 이야기 나오면서부터는 집들이 서울 사람들 소유로 많이 넘어갔다. 그녀가 상대원을 떠났던 것처럼, 상대원 원주민들은 집을 팔고 상대원을 떠났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조금 썩 광주 쪽에 자리를 잡았고, 지금 상대원은 세입자가 많이 살게 되었다.

17.

아들 범구가 초등학교 3학년 되었나, 그 무렵에 분당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그때 28평 아파트가 육칠천 값이었다. 그때 그녀는 부업으로 벌어들인 꽤 큰 목돈을 쥐고 있어서 분당으로 이사갈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남편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깝고 후회스럽다. 그때 그 일을 실행에 옮겼다면, 하는 말로 그때 그거 잡았다면, 그녀의 인생길이 많이 달라졌을 것도 같았다. 하지만 커다란 회한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지난해 성남동으로 이사할 때까지 상대원에서 농치고 살아왔다. 상대원은 그녀에게 그런 곳이었다. 요란한 토포기계 소리도 꼭 참아주는 마음 넉넉한 이웃들이 살던 동네였다.



못가춘 마디,  
- 상대원 키드 이야기







# 못갓춘 마디,

## - 상대원 키드 이야기

### 1.

나는 스물일곱 살의 성남 토박이이다. 잠깐 타지 생활을 했을 뿐, 태어나서 줄곧 성남에서 살아왔다. 스스로 봐도 자신이 성남이란 도시의 색채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런 나의 20대의 삶은 여전히 흔들리는 중이다.

한때 청바지와 통기타로 청년문화를 주도했던 가수가 있었다. 지금은 어느덧 50대 후반의 중견가수가 되어 있다. 라디오 DJ이기도 한 그녀는 청춘의 봄날보다 안정된 지금 50대가 훨씬 좋다고 말했다. 세월을 돌려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그녀는 주저없이 절대로 20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20대의 불안정과 고민이 싫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그녀가 부럽기도 했다.

그녀에 비하면 나의 삶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 가녀린 나뭇가지처럼 안타깝게 흔들린다. 나는 흔들리는 나의 삶이 안타깝다. 나는 나를 굳건히 버텨줄 버팀목이 필요하며 아직도 그것을 찾아 떠돌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나는 집이 있는 금광동에서 멀리 떨어진, 분당구 정자동으로 교회를 다닌다. 그곳은 작은 지하 교회이다. 인간적인 친밀감과 다소간은 편안한 느낌에 안도할 수 있는 작은 쉼터이다.

### 2.

나는 금광1동의 할머니 집에서 태어났다. 산부인과 병원이 아니라, 가

정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뭔가 특별한 이력으로 생각될 때도 있었다. 그 후로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톨망톨망하고 고집 센 아이로 자랐다.

“쫄그만 한테 고집 세고 노래 잘 부르고 뭐 그런 아이였던 거 같아요. 말도 잘 하고, 어렸을 때 또 욕심이 무지 많았어요. 애들을 막 휘어잡으려 하고, 그리고 그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연속선상이었던 거 같아요. 그니까 뭐가 배우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다거나 이러면 그거를 꼭 했었어야 됐어요.”

집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거나, 적어도 부유하지는 못했다. 그런데도 엄마는 보통의 한국 아줌마들처럼 아이를 위해서라면 지극정성으로 원하는 것을 다 해주려 했다. 그래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대개 배울 수 있었다. 다섯 살 터울진 동생이 있었는데, 그런 언니에게 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였다. 미술에 관심이 많았는데도 동생은 미술 학원 한 번 제대로 못 다녔다.

나는 만팔로서 그리고 장녀로서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즐겼고, 또 그런 만큼 자신 만만했다. 친구들과 놀 때도 적극적이고 활발했다. 여자애들끼리 수다를 떨거나 운동장에서 고무줄하고 뛰놀 때마저 지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놀이판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했고, 리더가 되지 못하면 참지 못했다.

### 3.

나는 상대원 1동의 중원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어렵게 사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던 학교였다. 나이 들어 생각해 보면, 그 지역 아이들은 부모의 양육이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많은 경우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리고 놀았다. 그러다 보니 불량 끼가 있는 애들도 생겨났다. 그런 아이들 사이에서 나는 발언을 잘 하지 못했고, 주눅도 잘 들었다. 편애가 심하던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때문에 다소 의기소침해

지기까지 했다.

졸업 후, 승신여중으로 진학을 했다. 나는 1학년 학급반장이 되었지만, 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끌려다니는 편이었다.

“그니까 아이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 제가 어떤 올곧은 그런 게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융화시키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선생님 관계를 맺는 역할을 해야야 되는데, 그러기 보다는 그냥 책임감 갖고 해야 될 일 있으면 편하게 편하게 그냥 넘어가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계기로 아이들 사이에서 점점 저의 발언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작아지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스스로가 만든 탓인데도 그건 모르고 아이들과 갭이 점점 생겼던 거 같아요. 고등학교 때가 피크인 했는데 아이들과 어울려서 인제 좀 편한 교우 관계를 두루두루 넓은 교우관계를 갖지 못했던 거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공부 욕심이 많았던 내 성적은 전교 순위에 들 정도로 우수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비평준화 지역인 B고등학교로 진학하였다. 좀 더 넓은 물로 가서 공부도 하고 꿈도 이루겠다는 포부가 있었고, B고는 분당지역에서 꽤나 잘 나가는 학교 축에 들었다.

무난하게 입학은 했지만 꿈과 포부는 쉽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고등학교 시절은 심적 갈등이 증폭되는 시기였다. 심적 갈등이 시작되었던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잘 생각나지는 않았다. 어쩌면 중학교 때 엄마가 아프면서부터였을 수도 있다.

“어머니가 지금도 편찮으시긴 한데, 제가 중학교 땀가 이때부터 많이 편찮으셨어요. 만성 신부전증이세요. 신장 콩팥에 무리가 있으신데, 집 안에 그런 우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참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겪잖아요. 인제 부모님들의 삶이 중산층이거나 더 넉넉하거나 이러면은, 정신적인 거라든가 심리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에 관

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도 그런 부분은 여유가 없으셨던 거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쪽에 좀 센서티브하고 예민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겪었어야 될 나이에, 그런 걸 또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해를 해주시지 않으니까, 되게 눌러왔었던 게 있었는데.”

더구나 나는 잘 사는 분당 아이들 틈바구니에 있었다. 그래서 맘껏 과외하고, 거리낄 것 없어 보이는 분당 아이들이 늘 부러웠다. 뿐만 아니라 나는 체력이 좀 약했다. 공부 욕심은 많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맘껏 공부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은 차츰 증폭되어 가는 심리적 갈등에 시달렸다. 그러니 내 꿈과 포부가 활짝 피지 못하고 외려 시들어 갔을 수도 있었다.

#### 4.

내 아버지는 무섭고 엄했다. 딸을 아들처럼 키우고 싶어했다. 그래서 꿈도 이루고 인정도 받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했다. 그래서 었을까, 내 기억의 창고에는 아빠에게 혼나던 내가 참 많기도 하다.

“강한 사람으로 키우겠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혼났던 기억이 무지 많아요. 지금은 물론 아빠를 존경하기도 하고 감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렸을 때 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애정이나 그런 사랑을 공급받기 보다는 이제 맨날 혼나거나 잘못했던 거에 대한 꾸중을 듣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인제 많이 영향을 받는 거 같아요, 삶에 있어서.”

물론 아버지의 엄한 교육이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겠지 하는 생각을 가져 보기도 한다. 그랬으면 좋겠다.

아빠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될지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될지, 아직 그녀는 성장 중에 있고, 평

가는 보류된 상태이다.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나이에 이르면, 원하지 않아도 분명한 답이 내려질 것이다. 아빠에 대한 평가는 그녀에게 달려 있다.

## 5.

대학 입학을 위한 수학능력 시험은 한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있어서 삶의 전환점과 같은 역할을 해 왔다. 그것은 성인의 길목에서 맞이하는 커다란 시련이며 도전이며 희망이 되는 셈이다. 나에게도 수능 직후에 삶의 변화 찾아왔다.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소망이라는 게 삶에서 생겨나는 것 같았다. 고교 시절을 보내면서 줄곧 증폭되어 가기만 하던 심적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는 듯한 느낌도 받았다.

“제가 아까 고등학교 때까지 내적 갈등을 많이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적 갈등의 많은 부분들이 대개 해결이 되고, 또 그 전에는 비관적이고 아니면 성격이 많이 우울하고 소극적이었다면, 신앙을 갖고 나서는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되고 낙관적이 되고 낙천적이 되고 밝아지고, 그리고 맨날 눌러서 해결할 수 없었던 거 같았던 문제들이 이렇게 풀려지고, 그리고 소망이라는 게 삶에서 생기고, 어떤 막연한 그런 꿈 이상의 삶의 목적이 생겨서 지금까지 되게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 환경 때문에 가졌던 열등감, 교우 관계가 좁은 데서 오는 외로움, 그리고 학창시절을 불우하게 했던 여러 심적 갈등과 불안감 등이 상호 연쇄고리처럼 연결되어 단단했었다. 질긴 동아줄처럼 풀리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다행히 지금은 질긴 동아줄 몇 가닥을 걷어낸 듯 조금은 홀가분해졌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동아리 활동이 활발했다. 나는 한늘품이라는 독서토론부에서 가입했다. 남녀공학에서 몇 안 되는 여학생 전용 동아리였다. 여학생 끼리 모여 세계 명작, 한국 명작을 선정해서 읽고 토론하고, 가끔은 다른 학교를 섭외하여 같이 대외토론을 하기도 했다.

대부분 고등학생 수준으로는 쉽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었다. 보통 네댓 개의 주제를 두고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오후 시간을 이용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찬성과 반대로 마주앉아 긴장 속에 토론에 임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억지스런 의견을 터무니없이 강하고 집요하게 내세우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긴장감 있는 시간이었다. 토론 준비도 쉽지 않았고, 때로 스트레스였다.

그렇지만, 나는 교우관계에서 결핍을 느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창시절 내내 어떤 심리적 피폐함에 시달리던 터라, 책 속에 쉽게 빠져들 수 있었다.

“책을 보면은 하나를 보면은 그걸 보면서 되게 나름의 상상의 날개를 편다거나 아니면 그게 꼭 나의 세계인 거 마냥, 예 그런 정도로 독서를 했던 거 같아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밀란 쿤데라, 한 사람 작가를 선정하면 그 사람 작품이 좋으면, 쪽 여러 권을 막 봤던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마 독서토론부의 영향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학교 축제 기간 시화전에 내놓았던 자작시 제목이 ‘증애’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아빠에 대한 미움과 사랑의 감정을 엮었는데, 나름대로 시가 괜찮았는지 상을 받기도 했다. 아빠에 대한 애증의 감정이 아닌 다른 주제로 상을 받았다면 나는 좀더 즐겁고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었다.

7.

초등학교 때였다. 근데, 이래도 되나? 내 이야기가 이렇게 이렇게 두서없어도 되나? 괜찮겠지. 어차피 이것은 나의 구술일 뿐이니까. 혹시 내 구술이 책으로 나온들 누가 그것을 읽겠어. 그냥 이 구술은 심심풀이 뿐야. 편하게 편하게...

초등학교 때는 음악을 되게 좋아했다.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방과 후에 학교에서 플루트를 배우기도 했다. 연말쯤에 있는 학교 학예회에서 플루트 독주를 했다. 학교 안의 작은 밴드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남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재능을 보여주는 걸 참 좋아했고, 그래서 열심히 했었다. 한번은 동시 암송 경연 대회 그런 것이 있었는데,

“5학년 땡가 또 동시 암송 경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그 전 학년 때 그걸 해서 전교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내가 그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해서 목이 다 쉬어버린 거예요. 목이 다 쉬어버려 갖고 정작 정작 대회 나갔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 가지고.”

학교 방송반 아나운서도 하고 싶었고, 애국조회 때 애국가 지휘도 하고 싶었다. 다 하고 싶었지만, 모든 것이 내 차지가 되지는 않았다.

8.

경험이 많아지면서 삶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기를 겪고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나는, 남들에게 뒤지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되는, 좁혀지지 않는 격차도 경험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애도 아니고, 어렸을 때는 우물 안에서 최고로 잘 났다고 그러고 살았었던 건데, 그게 아니었던 걸 알아가게 되는 삶이었던 거 같아요. 특히 뭐 대학 진학할 때도, 워낙 잘 하는 학교로 평판이 있는 학교여서 웬만해선 다 서울에 있는 4년제를 가게 되는데, 저도 인제 평소 모의고사 실력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성적으로는 서울 4년제 합격을 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지방 국립대를 가게 됐던 거거든요.”

나는 항상 뭔가를 열심히 했다. 뭔가 꿈이 있다고 하면서 열심히 했다. 대학을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했다. 혹시 필요할지 몰라 교직 자격증도 땀고, 복수전공도 했다.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찾아서 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대학교 가서도 항상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려고 하고, 정말 내가 공부하길 원하는 것으로만 찾아서 공부했었는데, 정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든가 아니면은 이 세상 지금 어떤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제 주변에 없었어요. 사실 전공은 심리학을 간다고 원래 이과였었는데 교차 지원으로 없는 거 골라서 억지억지로 해서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었고 향후 어떤 비전이라든가 모르는 상태에서 고집으로 갔었고.”

그러고 보니 나에게는 멘토가 없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역할을 하기에는 생활이 바빴다. 사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 사람의 일생에 비전과 꿈을 제시해 줄 만한 지혜가 부족했다. 그렇다면, 학교 선생님들, 나는 왜 그들 중에서도 멘토를 찾지 못한 것일까. 역시 그 또한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인가? 아직은 이것 역시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다.



대학 때 중국어를 복수전공 하면서, 학교에서 보내주는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중국을 다녀왔다. 또 심리학 전공과 중국어 전공으로 교직 이수를 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그때는 미래가 잘 준비되어 간다고 생각했다.

그후 중학교 중국어 교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임용고사 준비를 시작할 때만 해도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다. 그런데 2년간 계속 낙방하고 말았다. 거듭 실패의 고배를 마시면서 꿈도 희망도 많이 꺾였다.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시절 갖고 있던 뽕망뽕망하고 당돌한 아이는 더 이상 없었다.

“지금 저는 제가 전공한 분야가 아닌데도 아이들 수학을 가르친다거나 영어를 가르친다거나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최종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루트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밟았던 거 같아요.”

10.

여덟 살 때 다시 성남으로 돌아오기 전, 우리 가족은 이천 쪽에서 살았다. 아빠는 제조업 분야에서 일했다. 라켓을 만들던 한일라켓, 구두를 만들던 에스콰이어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이천은 아빠의 일터가 있던 곳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친구들과 들로 물로 돌아다니던 이천이 그립기도 하다.

그후 성남으로 다시 돌아온 우리 가족은 금광2동에 자리를 잡았다. 경사가 심한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 옛날 흑백사진 속에나 나오는 그런 풍경 속에 내가 있었다.

“성남이 지리적으로 산처럼 깎아지른 듯한 곳이 많잖아요. 그니까 지금 기억이 나는 장면 장면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을 뛰어다니면서, 친구네 집을 놀러가더라도 거길 지나서 친구네 집에 가고, 피아노 학원

에 가더라도 그런 델 지나서 피아노 학원에 가고. 그래서 보통 놀이도, 지금은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를 주로 하지만, 그때 애들하고 여자애들이니까 고무줄을 한다든가 땅따먹기를 한다든가 뭐 그런 인형놀이를 한다든가, 그런 놀이였던 거 같아요.”

중원초등학교는 상대원1동에 있었고, 우리 가족은 91년 말에 상대원 쪽으로 이사를 했다. 10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상대원공단이 펼쳐지는, 첫 느낌이 삭막한 곳이었다. 공단의 풍경은 서부영화 속의 황량함을 옮겨놓은 듯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굴뚝이라든가, 아니면 서부 영화를 보면 보이는 그런 황량한 그런 거, 먼지가 날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내려다 보면은 별로 안 좋았어요. 저희집 있는 데가 지대가 높고, 공단 쪽이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멀리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바로 저희 집 앞 공원 말고는, 다 공장이었었어요. 아니면 산 하늘이었으니까.”

멀리 보는 공단의 풍경만큼이나 공단의 가까운 풍경도 좋지 않았다. 집 근처 약수터를 가기 위해선 공단 골목길을 지나야 했다. 공장 근처는 지저분했고, 물이 고인 곳에는 어김없이 장구벌레들이 살았다.

“약숫물을 길으러 갔을 때도, 옆에 공장 건물의 벽들 사이를 비집고 가는데, 그게 거기를 지나고 나서 막 약숫터에 입구에 산에 갔을 때의 해방감. 그게 해방감이 느껴졌다는 느낌이 나는 거 보니까, 그때 공장 사이를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걸 별로 안좋아 했던 거 같아요. 음 뭐랄까 왜 색깔이 공장 색깔들은 어렸을 때 보면 회색이고, 그리고 막 시끌시끌하고 사람들도 없고, 왜 이렇게 삭막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싫었던 거 같아요.”

집에서 학교까지는 고작 5분 거리, 옆어지면 코 닿을 데였다. 그런데도 나는 부산스럽게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서서 학교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혹시 지각할까 늘 걱정스러웠다. 그런데도 간혹 지각을 했다. 그때마다 심한 벌을 받았는데, 옆드려뻗쳐서 2-30분씩 버터내는 벌이 많았다.

누구나처럼 나는 학교에서 칭찬도 있고 벌도 받았다. 변호사를 꿈꾸기도 하고, 기자를 꿈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생님이 되고도 싶었다. 장래 희망으로 누구나 한번쯤 가져보는 평범한 꿈이었다. 여자 아이들 사이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로망이, 남자 아이들 사이에서는 과학자에 대한 꿈이 가장 평균적인 꿈이었다. 그런데 그곳 아이들은 그런 꿈을 꾸는 아이들도 많지 않았다. 나의 착각일 수도 있다. 어쨌든 지금의 내 기억은 꿈 많던 친구들을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

친구에 대한 기억 하나가 갑자기 생각났다. 어느 학교에나 문제 학생은 있을 것이다. 5학년 때 우리 반에도 유독 문제를 일으켰던 한 학생이 있었다. 어느 날은 그 학생이 창밖으로 뛰어내려 자살을 하겠다고 했다.

“그냥 무턱대고 어떤 앞뒤 전후에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성격 자기 성질에 못 이기겠거나 아니면 뭔가 주목을 받고 싶다거나. 이러면 애가 무턱대고 창으로 가서 나 뛰어내릴 거야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한테도 막 협박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친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데도 전후 맥락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성장하면서 나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 친구와 같은 충동을 문득 문득 느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친구들 중에는 이미 초등학교 때 사춘기에 겪고 어른의 세계에 눈을 뜨는 친구들도 있었다. 좀 노는 부류의 아이들었다. 그들은 최신유행을

흥내내고, 이성 친구에 밝아지고, 또 막 물려다니기를 잘 하는 친구들이었다.

“지금도 아마 성남에서는 종합시장 그쪽이 이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공간 아니면 쇼핑공간이 될 텐데, 저희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바운더리가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주변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그 아이들은 그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쇼핑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끼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항상 그룹으로 거기서 항상 춤 연습을 한다든가, 좀 담배를 핀다든가. 그 때 짤은 몰랐는데 당시 그 런다는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세력다툼 같은 것도 있었고.”

12.

상대원에는 중학교가 없었다. 그래서 중원초등학교 졸업생은 송신여중이나 금광중학교, 아니면 대원여중으로 진학했다. 내가 간 송신여중은 공부를 많이 시키기로 유명했고, 두발이나 복장 규정이 까다로웠다. 많은 아이들이 그것을 싫어해서 금광중이나 대원여중으로 진학했다.

학교까지는 걷기에는 좀 먼 거리였다. 가끔씩은 누군가의 차를 얻어 타기도 했지만(그게 누군지 기억에 없다), 대부분은 버스를 이용했다. 아침마다 인근 학교 학생들로 버스는 초만원이었다. 10분 안팎의 등갓길은 초죽음에 가까웠다. 90년대 중반 등갓길의 여학생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상대원의 겨울 비탈길에는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었다. 역시나 중학교 2학년 때 작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적이 있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많이 얼었었어요. 가는 통로 중에 하원초등학교 뒷골목에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가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가 음

지어서 눈이랑 얼음이랑 안 녹았었는데 그 근방에서 접촉사고가 났었어요. 접촉사고가 나서 그 운전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사고 난 차량을 누가 뒤에서 박았어요. 그래서 2차 사고가 나서, 저가 친구랑 가고 있었는데, 미끄러우니까 조심조심 가고 있다가, 그 앞차가 튕겨져 나오는 바람에 그 때 차사고가 났었어요. 그 때 2학년 때 겨울이었고 시험 기간이었고 기말고사였었거든요. 그 때 좀 다치고 한 두 달 정도를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들은 좀 더 멀리 상대원을 벗어났다. 먼저 전기로 정보산업고등학교를 지원한 친구들이 떠나면, 나머지는 송신여중과 같은 재단인 송신여고나, 멀리 수진역 쪽에 있는 성남여고 혹은 성일여고로 진학하였다. 그리고 나처럼 극소수 학생들이 분당이나 다른 곳으로 흩어져 갔다.

### 13.

헨젤과 그레텔처럼, 나는 잠자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를 엿들은 적이 있었다. 갓난아이도 자기를 귀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본다. 나는 어려서 아빠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다. 아빠와의 사이에는 많은 일이 있기 했지만, 잠자리에서 엿들은 대화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그때 아빠는 분명 제가 너무 밍다고 말했었다. 듣지 말았어야 할 말을 듣고 나는 너무 불행해졌다. 내가 잘못 들은 말이거나 앞뒤 문맥을 잘라버린 때문에 내가 오해한 것이기를 빌기도 했다.

부모의 말 한 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될까? 후에 읽었던, <바다아이>라는 소설의 어린 일곱 형제도 잠자리에서 엿들은 부모의 말 한 마디 때문에 가출한다. 비가 쏟아지는 칠월같은 한밤 중에 그들을 가출하게 만들었던 말 한 마디. 나는 그 주인공들처럼 가출하지 못했고, 대신 아빠에 대한 애증을 마음 속으로만 키웠다.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기준에 미달했을 때 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거든요. 어떤 칭찬이나 이런 건 소소하게 해주셨을지 몰라도 딸로서 받고 싶었던 어떤 사랑이라든가 따뜻함이라든가 보살핌이라든가 그런 걸 아빠로부터 못 느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많이 그니깐 어떤 사랑을 하면서도 미워했었던 감정이 있었고.”

사람은 누구나 어떤 대상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상대방보다는 본인에게 더 굴레가 되기 일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용서를 하고 싶었다. 물론 아버지는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많이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부분은 그냥 안고 가야 할 부분이다. 그냥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 속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란다.

14.

아버지에 대한 애증에서 벗어났던 대학시절은 즐거웠다. 고교 시절 학교에서 받았던 여러 심적 갈등도 떨쳐버릴 수 있었다. 나는 대학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맘껏 해방감을 누렸고 그것이 너무 좋았다. 외로움을 타지도 않았고, 새로운 환경이 낯설거나 힘들지도 않았다. 적응하는데 문제도 없었다.

“사실 대학교 기숙사는 특별히 4인 1실이 많거든요. 4인 1실에서 3년을 생활했었는데, 물론 사람들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아이들끼리 또 뭉쳐서 생활을 하는 건데, 갈등은 있을 수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큰 갈등 없이 그냥 아이들하고 재밌게 잘 지냈던 거 같아요. 좀 독립적으로 그런 나만의 공간에서 하고 싶은대로 생활하며 지냈던 거 같아요.

졸업 후, 나는 다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자유로움에 대한 경험이 지금의 생활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시간이 지나서 내가 변한 부분도 있고, 또 가족들 안에서 오고가

는 조그만 사랑들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혼자 사는 독립 생활이 가져올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도 없다.

15.

나는 솔직히 독립생활 혹은 결혼생활을 상대원 같은 곳에서 시작하고 싶지는 않다. 상대원은 사람이 많이 산다. 그들 대부분은 어려운,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다.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은데, 상대원에서 그것은 좀 어려운 요구였다. 오히려 편부모 밑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또 술 때문에 불화를 겪는 가정이 많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상대원에 대한 추억이 없다.

“요즘에는 사실은 이사를 가고 거의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갈 일도 없고 추억될만한 그런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어렸을 때 ‘어후 왜 이렇게 지저분해!’ 거리! 거리! 골목 거리가 쓰레기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포함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상대원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슬퍼지기도 했다.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만 오가고, 고등학교 이후에는 상대원을 멀리 나가 살았기 때문에 그럴 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

“고등학교 땐 또 야자라는 걸 하잖아요. 새벽 꼭두새벽에 나가서 밤 11시 12시에 와서 잠자기만 바빴으니깐. 지역에서 만들만한 추억이 없었던 거 같아요. 중학교 때도 물론 그랬고, 또 대학교 이후에도 계속 외부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대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상대원은 내 삶의 중심 무대가 아니었다.

나는 아직 흔들리는 중이다. 그렇지만 나에겐 꿈이 남아 있다.

“청소년들을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대화 나누는 게 되게 기뻐요. 기쁘고 편하고 말이 너무 잘 통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삶에 좋은 발전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고 그게 기쁘고 삶의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직을 도전을 해서, 교직 임용고시를 봐서, 공립학교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던지 아니면 학원사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상대원 키드로 자라오면서 늘 아쉽고 부족했다. 나는 못갓춘마디였다. 교사가 되어 상대원 키드들과 같은 못갓춘마디 아이들에게 작은 사랑과 정성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어찌면 나의 삶은 다시 상대원으로 회귀할 지도 모른다.



석유가게 앞 포장마차,  
— 상대원 주부 백씨





# 석유가게 앞 포장마차,

## - 상대원 주부 백씨

### 1.

집에 큰 불이 났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고, 영등포 살던 때의 일이라고, 어른들이 알려주어서 알고 있을 뿐이다. 그 화재 때문에 그녀의 가족은 성남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 또한 전해들은 이야기일 뿐이다.

“그때 당시 월세방도 얻기 힘들었대요 영등포에. 근데 성남에 오니까 집 한 채 값이 되더라고요. 월세 값도 안됐는데 그 돈이 성남에 오니까 집 한 채 값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녀의 가족은 1978년 서울을 떠나 성남 태평동에 자리를 잡았다. 태평동은 성남 개척 시 가장 먼저 개발된 지역 중 하나인데, 지대가 높고 지형의 기복이 심하다. 버스를 타려면 시청 앞까지 걸어야 했고, 택시도 잘 오지 않는 지역이었다.

화마로 재산을 잃고 옮겨온 터라 집안 형편이 좋을 리 없었다. 그런데도 집에는 텔레비전과 전축이 있었다. 이사할 때 같이 옮겨온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장만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다만 그녀의 유년의 기억 속에는, 다리 달린 텔레비전과 레코드 판이 돌아갈 때 빨간 불이 켜지는 전축이 들어 있다. 주변의 다른 집에는 없는 특별한 것이었다.

2.

그녀는 승신여중을 거쳐 승신여고를 다녔다. 집이 있는 태평동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은 산길이었다. 초가을이면 코스모스가 하늘거리던 길이었지만, 가끔씩은 무서운 곳이기도 했다.

“그 길이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뒷길이 다 산길이었어요. 사고도 많이 보고 사람도 죽고, (거기서요) 예. (어쩌다가 사람이 죽어요) 그때 당시 어렸을 때 충격 먹은 게, 무슨 쫓아갔는데 살인 사건이래요. 뭘로 뒤집어 썼드라고. 그런 사건이 참 많았어요 성남에. 상대원에도 일이 많았어요. 산이다 보니까 외지고 하니까 좀 험하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의 추천으로 관광 가이드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이드 일이 몸에 맞지 않았다. 주로 수학여행 가이드를 하다가 3년 만에 일을 그만두었다. 그나마 체력도 많이 딸렸다. 그 후에는 피부관리, 특수화장 등을 배웠고, 신사동의 한 제트슬림(일종의 비만관리 방법) 업소에서 일했다.

그녀는 결혼을 계기로 다시 성남으로 돌아왔다. 친구 소개로 만난 남편과 함께 상대원에서 석유가게를 시작했다. 결혼 초만 해도 그녀는 참 순진했고, 스스로 생각해도 어리버리했다.

3.

그녀의 남편은 상대원에서 석유가게를 운영했다. 남편은 착하고 성실했으며, 석유가게는 굉장히 잘 되었다. 그야말로 눈코 뜰새 없이 석유 배달을 했고, 그런 덕분에 돈을 꽤 모았다.

그러다가 남편은 다른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고, 어느날 갑자기 새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석유장사 해서 모았던 1억 6천만을 불과 6개월 만에 송두리째 날려버렸다.

“대학가 앞에서 당구장을 하는데 애네 아빠가 계약을 하고 온 거예요 천만 원을. 어떻게 해요 계약을 천만 원씩이나 걸었는데. 몇 백만 원이야 포기하라고 하는데. 통장을 하나씩 하나씩 까먹는 데 무섭더라고요. 한 6개월 만에 1억 5천을 까먹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안되겠다 싶구. 애기 아빠는 폐인이 되는 거 같아요. 막 자기도 그렇게 안살다가 자꾸 마음에 안 되니까 술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안되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나서지 않으면은 정말 사람도 이상하게 되고 집이 저기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녀는 그길로 건물주를 찾아가 단판을 하고 당구장 사업을 청산했다. 다행히 그녀의 남편은 다시 상대원에서 석유가게를 시작했다. 그러나 석유장사는 예전과 같은 호황기가 이미 지나가버린 상태였다. 손님이 뜸했고, 공치는 날도 있었다. 당구장에서 실패하고 다시 시작한 석유가게마저 실통치 않자, 그녀의 남편은 마음을 잡지 못하고 계속 었나갔다. 놀음에 손을 대고 카드빚을 얻어 쓰기도 했다.

#### 4.

그녀는 곳곳이 강사를 하고 있었다. 몇 군데 강의를 나가면 적지 않은 강의료가 들어왔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강의료는 고스란히 남편의 카드빚을 갚는 데 들어갔다. 그런데도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은 집에 차압(압류)이 들어오기에 이르렀다.

“그래갖고 집에 차압까지. 처음 봤어요, 진짜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때 당시 차압이 들어올려 하는데 딱 들고 나갔죠. 애기 아빠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 남편이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근데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못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해 줄 테니까 애기 아빠한테 손대지 말고 차압 붙이는 것도 몇 일만 미뤄봐라.”

그녀는 남편의 사채빚을 갚기 위해, 강의료를 선불로 땡겨받기까지 했다. 한군데 80만원씩 다섯 군데 강의료를 선불로 받아 사채빚을 메

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그런 정성을 돌아보지 못했다. 자기 세계에 빠져 점점 폐인이 되어가기가 싫었다.

그녀는 고민에 빠졌다.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처럼 답을 얻을 수 없는 고민에 하루하루가 힘들었다. 그녀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앞에 먹먹해진다.

5.

그녀는 포장마차를 시작했다. 남편의 식유가게 앞에서 튀김 같은 간식거리를 파는 장사였다. 사실 수익도 수익이지만, 포장마차를 차린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을 가까이서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가게에 드나드는 놀음꾼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지 않으면 남편의 놀음습관을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물론 빚도 갚아야 했다.

그래서 소중하게 키워오던, 꽃꽂이에 대한 꿈을 접어 버렸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꽃꽂이에서 대가가 되어 보겠하던 꿈보다 절박한 현실이었다. 한편으로는 조금씩 폐인이 되어가는 남편이 불쌍하고 애처롭기도 했다. 그런 남편을 살리는 것이 자신의 꿈보다 더 절실하였다.

“그 장사를 정말 맨정신으로 못하겠더라구요. 그래갖고 남들 앞에서는 웃고 있어도 매일 소주 한 병씩 먹어가면서 장사하게 되더라구요. 남들은 아무도 모른 거예요. 근데 애기 아빠가 언젠가 쓰레기 봉투 맨 밑에, 저 판에는 숨긴다 숨겨가면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거 소주병이 쌓인 걸 보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더라구요. 너한테 그렇게 상처를 준 게 정말 잘못 했다면서. 아 그러면서 그때까지 믿기지가 않았는데 사람이 돌아오더라구요, 옛날 그 사람으로. 그래도 제 꿈은 버렸지만은 하나를 잃으니까 정말 얻은 게 있다고 가정이 돌아오더라구요.”

6.

몰락해 가는 가정과 남편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 그녀는 최선을 다했다. 친구를 만나는 일도 삼갔다. 아니 차비를 걱정할 만큼 사정이 안 좋아 친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그녀는 함주부(함께하는 주부모임)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함주부를 통해 봉사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자신에게 닥친 최악의 상황이 자기만큼이나 힘겨운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도록 해 주었다.

“봉사활동이라는 게 딱 보이더라구요. 구석구석에 할머니들, 여기 밑에 내려가시다 보면 할머니들 빈민촌이 있어요. 혼자 독거노인들 사시는 골목 많아요. 몇 군데 돼요. 그 분들을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반찬 갖다 주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인제 눈에 보이니까 다음날에도 가게 되고 부족한 게 있으면은 여기서 그냥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 저녁에도 가게 되더라구요.”

그녀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 마음을 다스렸다. 할머니들 사는 걸 보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았다. 자신이 사는 것은 정말 아무 것도 아니구나, 힘든 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마저 생겨났다.

## 7.

어떤 할머니들은 전혀 거동을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할머니들 대소변 수발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 아무리 봉사가 좋다고 한들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너무 역겹기까지 했다. 그래도 할머니들의 삶의 자리를 휘 둘러보면 생겨나는 짝한 마음이 그녀를 그냥 돌아서지 못하게 했다.

귀가 안들리는 할머니하고 장애를 갖고 있는 딸이 같이 사는 집도 있었다. 할머니가 딸을 돌보아야 하는 건지, 딸이 할머니를 보살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딱했다. 할머니와 딸은 실낱 같은 희망도 없는 곤궁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마저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오래 가지 못하게 되었다. 할머니를 관련 복지시설에 입소를 시켜드려야 했다. 딸은 출입이 곤란한 만큼 장애가 심했지만 집에 혼자 남겨졌다.

어느 날 그녀가 반찬을 갖다 주러 남겨진 딸에게 들렀을 때, 딸은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다. 영문을 알고 봤더니 달랠 수 없는 외로움 때문이었다. 말벗 하나 남지 않은 자신의 신세가 한스러웠다.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소외된 사람들, 하나하나의 사연마다 배여있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슬픔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녀는 그런 사연에서 자신을 지탱하는 힘을 찾아냈다.

“주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니네 집 넘어갈 정도고 신랑이 그렇게 힘든데, 무슨 나보고 사치스럽게 봉사를 하고 다닌다고 엄청 괘시를. 그 게 굉장히 심했어요. 나보고 남편조차도 그랬으니깐요. 그거는 나중에 편할 때나 봉사를 하는 거지. 나보고 배가 덜 고팠다느니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8.

석유가게 앞 포차에 오는 손님 중에는 어린 아이도 많았다. 그중에는 포차에서 파는 튀김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도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아이의 아빠는 허리 디스크를 심하게 앓고 있었다. 어느 날 그 아빠가 그녀의 포장마차를 찾아왔다.

“처음에 저한테 왔드라고. 한달치를 드릴 테니까 아이들의 간식을 이걸로 줄 수 없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엄마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혼자서 다닌데요. 저는 제 마음... 너무 아이들이 안쓰...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아 그냥 드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도 없이 아이들만 데리면서 놀이터에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지금 세상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싶었다. 아이를 성당 수녀님을 통해 아동 보호 시설에 입소시키자고 권했다. 그녀 생각에, 어쨌든 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아이들은 학교를 보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아빠는 거절했다. 그래도 품에 끼고 있고 싶다고 했다.

어떤 선택이 잘한 것이고, 또 어떤 선택이 잘못된 것인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었다. 후에 올 결과가 좋다고 잘된 선택이라고도, 또 결과가 나쁘다고 잘못된 선택이라고도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 아빠와 아이들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많이 아리게 했다는 사실이었다.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하는 아빠의 모습도, 아빠의 품에 있긴 하지만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야 하는 아이들의 힘든 처지가 한없이 가여웠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저절로 생각났다.

## 9.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했다. 자신을 낳아준 엄마의 얼굴도 모른 채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니 생모가 따로 있다는 사실조차 까마득히 몰랐다. 그러다가 사춘기에 들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끝내 몰랐더라면 어땠을까?

“사춘기 때 동네 사람들이, 인제 니네 엄마 새엄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아니다 우리 엄마다. 어머님이 좀 췌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이 그런가 보다 그런 줄 알았지, 정말로 그런 줄 몰랐거든요. 나중에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는데, 저를 얹혀놓고 이야기하시더라구요. 실은 날 난 엄마가 나를 거기 주셨데요. 그니까 날 난 엄마가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학 시험을 볼 무렵이었다. 아빠는 생부가 맞는데 엄마는 생모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한 순간의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심적 갈등에 시달리게 되었다. 대학 등록금을 달라는 것조차 망설여졌다. 결국 그녀는 가출을 해 버렸다. 그 후로 그녀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없이 혼자서 살았다. 시간의 여유를 허락하지 않고, 새벽 운동, 낮 회사, 저녁 학원으로 이루어진 일과를 감내하며 스스로를 혹독하게 몰아쳤다.

10.

그녀는 남편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호적을 정리하면서 생모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되었다. 생모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나 이후에도 줄곧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어 왔기 때문에, 생모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또 한번의 충격이었다. 집에서는 생모의 행방을 끝내 알려주지 않았다. 경찰서에 생모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해 보았지만, 서민의 아픔을 하나 하나 어루만지기에 경찰은 너무 바빴다. 그리고 시니컬하기까지 했다. 자기가 처리해야 하는 고귀한 업무 시간을 빼앗는, 엄마 찾기 같은 시시껄렁한 일이 못마땅하다는 투였다. 가슴에 깊은 대못을 박은 듯한 아픔이 되돌아왔다.

딸아이가 하는 말도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엄마 나는 엄마 있는데, 엄마는 엄마가 있어?’ 그 말이 머리 속을 떠나지 않고 늘 맴돌았다.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사람을 찾아주는 TV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인터넷으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로 PD한테 전화가 오더라구요, 출연해 달라고. 그래 어떻게 하다가 출연을 했어요. 찾았더라구요. 부산에 계시고 이모들도 다섯 분이나 계시고. 상대원에서 경사났다고 덩달아 주변사람들이 막 저기하게 해주시더라고.”

11.

그녀는 상대원에서 18년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생모를 찾았고 아이를 출산했다. 신장이 좋지 않았던 그녀는 요관수술을 크게 받았다. 그

런데 수술이 있는 지 일년 만에 뱃속에 아이가 들어섰다. 결혼한 지 7년 만의 일이었다.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들어선 아이는 너무 소중한 존재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건강한 사람도 아이를 가지면 심장이 눌리니까 힘든데, 저는 잘못하면 수술자국이 터진 경우가 있는데요. 다 아이를 지우라는 소리 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병원 교수님들도 안된다 진짜 안 된다 산모가 위험하고, 시어머니가 손을 잡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니가 없으면은 아이가 필요 없다. 니가 건강해야지, 아이가 태어나면 뭐하냐.”

그렇지만 그녀는 너무도 어렵게 들어선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원했다. 아이가 태내에 있을 때 쓴 유아일기에는 그런 간절함이 고스란히 적혀있다. 그녀는 누워서 성서 말씀을 듣고 묵주기도를 하면서 태교에 정성을 다했다. 그리고 그런 게 힘이 됐는지 아이는 3.08로 건강하게 태어났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엄마는 어딴냐고 물었던 그 아이였다.

12.

그녀의 남편은 상대원 1동에 자신의 석유가게를 내고 7년 간 운영했다. 그리고 잠깐의 외도(당구장 사업) 후에 3동으로 옮겼다. 그후로 지금까지 장장 9년의 세월이 흘렀다. 1994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 직후만 해도 석유가게의 석유는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갔다. 남편과 두 명의 기사들이 배달을 나가면, 그녀는 가게로 석유를 사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했다. 손님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기 일쑤였고, 그녀는 주유기를 들고 통마다 석유를 짜주기에 바빴다. 처녀 때 맞사지를 하던 부드럽던 손에 금새 굳은 살이 생겼다.

지금은 석유를 하는 사람들이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해진 구역이 있었다. 협회에서 구역을 엄격히 관리했고, 또 워낙 장사가 잘 되던 때라 다른 구역을 넘볼 이유도 별로 없었

다. 남편의 석유가게는 급경사가 많은 상대원을 구역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힘든 일도 자연히 많았다.

“상대원에 고바위가 많다보면 석유란 게 조금만 떨어져도 왕창 되는 거예요. 석유통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은, 석유통이 쓰러지면은, 그 추운 겨울에 신문 다 모아가지고 가갖고 거기다 닦아주고 해놔야 돼요. 아니면, 석유는 미끄럽잖아요, 다른 차가 사고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게 아주 쥔 곤욕이었어요. 막 5층 꼭대기까지 밧줄 잡아주고 그렇게 고생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하루 4끼의 밥을 해대야 했다. 저마다 식성이 다른, 남편과 직원 둘, 장정 사람의 식사를 하루 4끼씩 준비하는 일도 만만치는 않았다.

하루 배달이 끝나면, 남편은 난로 위에 호일을 깔고 차돌배기를 구웠다. 직원들하고 한 잔 하기 위해서였다. 그럴 때마다 그녀도 술자리에 끼여 한잔씩 들이켰다. 소주와 함께 행복이 목구멍을 타고 넘었다. 그러나 그때가 정말로 행복했던 시기라는 것을 그녀는 나중에 실감하게 되었다.

13.

착실하게 석유가게를 운영하던 남편은, 군에서 제대한 조카의 꿈에 넘어가 대학가 앞에 당구장을 열었다. 처음에 당구장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녀는 극구 반대했다. 그냥 몸으로 벌어먹던 사람이 젊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당구장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생들을 상대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뭐랄까, 대학생들 저는 좀 실망을 했던 게, 저희가 당구장이 백 평이니까 다이가 열 대였어요. 글고 가운데 휴게실이 있었어요. 근테 24시간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집에도 안가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요. 남자 여자 가운데 끼고. 그니까 저희 생각에서는 용납이 안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봐주고 다 도닥거리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고지식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휴게실을 딱 없애버렸어요. 그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애네 아빠 좀 융통성이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또 과대표가 와 가지고 무슨 축제 때 보면은, 술값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갖고 안해 주면 과전체가 다른 당구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이들이 망랑한 거예요.”

당구장을 운영하는 경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 심지어는 학생들을 당구장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당구장으로 실어나르는 봉고차까지 운행해야 했다. 주변 당구장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영업을 했다. 그런저런 이유로 당구장은 6개월을 버텨낼 수 없었다. 지금도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학원버스를 볼 때마다 그녀는 당구장의 악몽이 떠오른다.

14.

석유가게를 접은 지 그럭저럭 1년이 지났을 때, 그녀의 남편은 상대원으로 돌아와서 다시 석유가게를 냈다. 원래 남편은 서울 마포 사람이었다. 총각 때 누나(지금의 시누이)를 쫓아 성남으로 왔다. 그리고 상대원 최초의 석유가게였던 대원석유에서 직원으로, 소장으로 일했었다. 총각 때부터 해오던 일이라 우선 시작하기는 쉬웠다.

석유는 전화 장사였기 때문에 고정 고객 확보가 중요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은 주변 다섯 곳의 석유가게를 모두 인수해 버렸다. 거래처를 모두 사 들인 것이었다. 의욕과 기대를 갖고 다시 시작은 했지만, 장사는 예전같지 않았다. 이미 시절이 많이 변해버린 것이었다. 상대원동에는 그 1년 사이에 도시가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있었다. 편리한 도시가스를 두고 매번 배달을 시켜야 하는 불편한 석유를 고집할 이유가 없었다. 상대원공단에서조차 석유를 대규모로 배달시켜 쓰던 호황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다. 석유가게가 공치는 날이 많아질수록 그녀의 남편은 견잡을 수 없이 었나갔다. 그래도 이제는 남편이 마음을 잡고

열심히 살아주는 것이 그녀는 무엇보다 고맙다.

“그래 애기 아빠가 지금은 석유가게를 하면서 택시까진 해요. 그니까 아내 아빠가 지금 47이거든요, 27년 됐을 거예요. 이십 몇 년 됐을 거예요. 여름에는 야간만 뛰었어요 심야 (택시를). 글고 낮에는 석유가게 가서 자면서 배달 들어오면 나가고. 지금은 새벽에 나가요 새벽에 나가 갖고, 오늘도 새벽에 4시에 나갔거든요, 저녁 4시까지 하거든요. 그니까 택시 운행 하다가 배달 들어오면 가게 와 갖고 배달 가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죠.

택시를 겸업하기 시작한 것은 한 이삼년 전부터였다. 소위 말하는 투잡이었다. 두 가지 일에 시달리는 남편이 안쓰러워질 때면, 90년대 석유업이 절정이던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한다. 그때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지금은 좀 더 편안할 텐데 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그녀는 이래저래 마음이 씁쓸해질 때도 있다.

15.

그녀는 90년인가 어느날 평화방송에서 꽃꽂이 강좌를 보다가 그것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처녀 시절에 아트 플라워와 분재를 배우던 취미가 꽃꽂이로 이어졌다. 좋은 선생을 찾아 월수강료 70만원을 투자하였다. 전사회도 열심히 쫓아다녔다. 그리고 사범자격증도 땀고, 강의를 하기도 했다.

그녀는 다른 지역에서 꽃꽂이 강의를 하면서 상대원에도 꽃꽂이를 보급시키고 싶었다. 그런데 따로 세를 내서 사무실을 운영하기는 힘든 형편이었다. 대신 상대원성당을 빌려 꽃꽂이 강의를 시작했다. 그녀가 성당에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성당의 전례꽃꽂이였다. 전례꽃꽂이는 일반 꽃꽂이와 많이 다르다.

“성당에서 보면은 무슨 대림주기 부활주기 하는 전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림주기라고 있거든요. 대림주기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기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다림을 그 기다림을 꽃꽂이에다가 다 담는 거예요. 교회 꽃꽂이 같은 경우는 그냥 작품만 하면 되는데 이 성당 쪽에는 좀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상대원에는 전례꽃꽂이를 배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가 강의하는 오포나 광주 그리고 송파 쪽에서는 이미 그녀에게서 전례꽃꽂이를 배워 전시회에 출품할 수준의 회원들이 생겨났지만, 유독 상대원에서는 그런 회원이 생겨나지 않았다. 그녀로서는 그것이 무척이나 아쉬웠다. 상대원 사람들은 꽃꽂이를 사치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 때문에 상대원에서는 꽃꽂이 수강 회원이 제대로 생기지 않을까. 그녀는 여전히 그런 의문을 해결하지 못했다.

16.

삶을 살아가면서 아쉬움을 느낀다는 것은, 사실 현재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겁도 없이 일수를 얻어 포장마차를 차렸던 때를 생각하면 아쉬움보다는 무서운 감정이 몰려든다. 남편의 사채빚이 점차 늘어갔고, 가깝던 친척들이 다들 멀어져갔을 때, 그녀는 이를 악물어야 했다.

“포장마차 맞추고 그릇 사고 하는데 130이 들더라고요. 그걸 시작을 하면서 일단은 빚은 갚아야 할 것 아니예요. 그때 당시 겁이 없었던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엄청난 일인데. 사람들에게 이걸 막 뿌리더라고요. ‘아 저기 대출을 해준다는데 어떡하지 저걸 대출을 해갖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운이 좋게 좋은 사람들만 만났던 거 같아요. 지금 텔레비 보니까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일수를 얻어서 빚을 갚은 거예요.”

빚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갈 무렵, 결정타가 날아왔다. 남편이 어떤 사람들을 동반하고 나타났는데, 모모캐피탈이라는 데서 온 사람들이었

다.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새삼 일깨워준 곳이었다.

“애네 아빠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데려왔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다’고 하면서 빚을 있다는 것을 딱 보이면서, 그 남자가 나한테 보증을 서라고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정말 이걸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까지 오더라고. 이 남자가 나한테 수렁으로 이렇게까지 몰아야 되는지. 분당에 어떤 사무실로 데려가더라고요. 일단 거기서 마음을 굳혔어요. 여기서 일단 내가 흠트러지면 안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몇이 있더라고요. 좀 꺾들꺾들 한 남자들이더라고요. 나보고 이런 서류를 몇 개 주면서 보증을 서라는 거예요. 장난치더라고요, 저기 아줌마가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일단은 써 줬어요. 오백을 했는데, 거기는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달에 오백을 했는데 25만원 이에요 이자가. 근데 3개월에 오백을 안 갚으면 40%가 또 늘어 올라가요. 근데 그걸, 와 그걸 다 갚았어요 이자만.”

그리고 그녀는 신협에서 오백을 빌려 사채 원금 오백만원도 갚아 버렸다. 포장마차로 벌어서 이자 주느라고 남 좋은 일 많이 시켰지만, 그래도 지금은 다 끝나고 할가분하다.

17.

그녀는 요즘 함주부(함께하는 주부 모임)가 운영하는 ‘책이랑도서관’에 상근한다. 상대원 소외지역 청소년들이 찾는 작은 문화공간을 소중하게 돌보고 가꾸는 일이 그녀는 마음에 든다. 그리고 함주부 일을 하면서 상대원에서 벌어지는 문화 프로젝트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2008년 들어 성남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상대원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한 문화 프로젝트 중에는, 상대원시장 입구에 있던 원다방을 상대원의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자 참여의 장으로 만드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원다방에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장비를 갖추어졌고, 주민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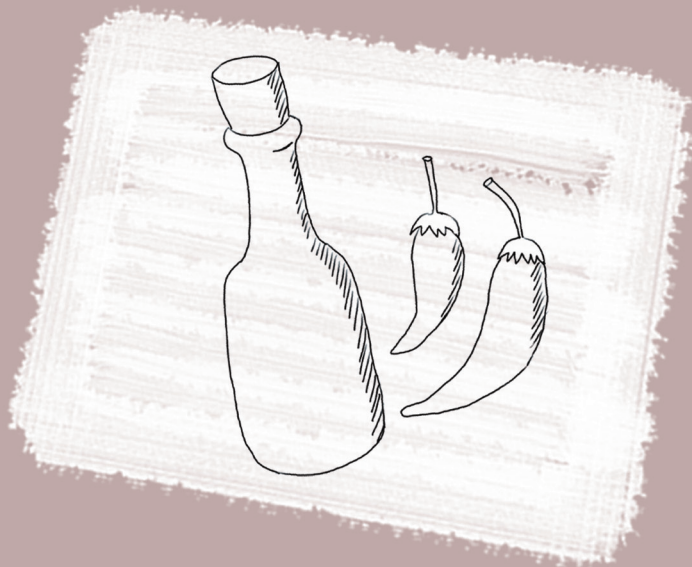
“주민들이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불륵 끄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상인들이 더 좋아해요. 적극적으로 하고 뭐 호떡집에서는 호떡도 주고. 그러면서 더 정겹게 오늘은 어떻게 했냐 그러고 더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반발하시는 분도 계시죠. 상대원이 너무 삭막했거든요. 솔직히 상대원시장이 별로 그렇게 들썩이지가, 저기 뭐냐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협소했었잖아요. 협소했는데 요번 원다방(프로젝트)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들썩 들썩 해진 거 시장다워지는 과정인 거 같아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영글어 가면서 상대원시장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상대원 전지역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가기를 바란다. 그녀의 삶과 도전은 아직도 상대원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



기름고추집,

- 상대원 봉씨 이야기





# 기름고추집,

## - 상대원 봉씨 이야기

### 1.

봉씨가 1971년에 상대원으로 들어온 것은 정말 우연이었다. 눈이 하얗게 내린 날 상대원 고개마루에서 버스를 내린 후로,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처음에 봉씨의 집은 미아리 천지극장 앞에 있었다. 봉병용이라는 사람의 소유였는데, 그는 일본에서 크게 성공한 자기형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면서 이런저런 사업에 손을 대던 사람이었다. 그가 일자리도 주었고, 가게가 팔린 방도 공짜로 내주었다. 먼 일족이라는 연고가 있긴 하지만 아무나 그렇게 하지는 못할 일이었다.

그때는 신접살림을 막 시작하던 터라 금새 아내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섰는데, 방을 내준 봉병용 씨에게도 애가 생기자 방을 비워줘야 했다. 그래서 답십리 뚝방으로 옮겼다. 가진 돈이 없어서 만월에 2천원 하는 월세방에 들었다.

“이삿날 돼 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보니 천장에 비가 새는기 비가 툭 툭 떨어져요. 그 다음에 바닥도 엉망이고. 그러니 이불 해 오고 결혼 때 뭐 해 오고 한 집은 갖다 놔놓고, 현장에 비는 새고 우산을 들고 그날 저녁에 밤을 새웠는데, 이사 와가지고 이게 지금 비는 오고, 사람 임신을 해가지고 있는데, 우산을 잡고 밤을 새웠어요. 내가 이 사람 참 보기 미안했지.”

봉씨는 살길이 막연하였다. 하는 수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했더니 막노동 일자리를 알려주었다. 이곳 저곳 걸리는대로 다녔다.

“한번은 국립묘지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 산소 무너졌다고 거기서도 일하고, 기억에 남는 게. 그 다음에 남산 앞에 가면은 하천 있어요. 하천 거기 가서도 물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그때 내가 뉴스를 들었어요. 어떤 뉴스를 들었냐 하면은 성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5만원만 주면은 집을 산단다 하더라고요. 5만원에서 3만원 주면 산단다 하더라고요. 5만원 주면 사는갑다 인자 인식이 딱 박혔죠.”

## 2.

봉씨는 막노동 판을 전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열흘 일하고 나면 돈 받으러 다니는데 보름이 걸릴 정도였다.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생겼다. 그래서 한때는 화장품 장사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해 보기도 했다. 400원에 가져다 450원에 팔고 다녔는데 그것도 잘 팔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임신중독증에 걸렸다. 봉씨는 사정이 급해 고향 어른들한테 거금 1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는 아내와 뱃속의 쌍둥이 중에서 누군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절망하고 있을 때, 똑방 교회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부산 출신의 여의사를 만났다. 그녀의 처방에 따라 식이요법을 하고 몸조리를 잘한 후 아내는 쌍둥이를 낳았다.

그런 시련을 겪고 나서, 봉씨는 똑방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때 문득 언젠가 뉴스에서 들었던 성남이라는 곳이 생각났다. 그래서 출산 후유증이 심한 아내를 데리고 성남행 버스에 올랐다. 성남 가는 도로가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다.

“520번 탭겼잖아요. 그때는 을지로 5가에서 520번 출발하면은 한양

대학 서고, 그 다음 그 넘어 서고, 저 화양리 서고, 그 다음에는 잠실 거기는 전부 자갈밭이에요, 석촌호수도 전부 자갈밭이고, 평화촌이라고 거기 한 번 서고, 수진 고개 섰어요. 수진고개 경로당 앞에 그쪽에 한 번 서고, 45분 50분밖에 안 걸렸거든. 그래가 그 늪을 타고 상대원 고개 마루 낮선데 왔는데, 눈이 하얗게 왔어요. 여보 우리 개척자 정신으로 기분 좋게 집사러 한번 가보자. 이래가 둘이 내려가지고 훑어가지고 산 것이 루핑집인데 5만원 주고 샀어요.”

대지 20평에 벽체는 블록으로 쌓고 지붕은 시커먼 루핑으로 덮은 집이었다. 루핑은 슬레이트가 나오기 전에 사용되던 지붕재료인데, 보통 아스팔트 가공을 한 물막이 천이었다. 한 옆에 구덩이를 파고 대충 얹어 놓았고, 뒷간도 있었다.

### 3.

살길을 찾아 들어왔지만, 상대원에서도 먹고 살길이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하릴없이 하다가, 얼마 전 지나가던 화장품 장사에게 물었던 것처럼, 지나가는 굴비장사를 보고 물었다. 굴비 장사하면 밥 먹고 사나요?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것은, 옛날 이야기 책에나 나올 만한 그 황당한 우연성이다. 그때 화장품 장사가 지나가지 않았고, 굴비 장사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봉씨는 무엇을 하게 되었을까. 그러나 누구나 어려웠던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봉씨처럼 우연성에 기초하여 삶을 꾸려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 그 또한 삶의 진정성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할 수 만은 없다.

어쨌든 우연히 굴비장사에게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을지로 옆 중부시장으로 굴비를 하러 갔다. 520번을 버스를 탄 봉씨의 주머니에는 결혼반지를 팔아 쥘가두었던 몇 푼의 돈이 들어 있었다.

“그래 가지고 뭐가 굴비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가만히 옆에 보니까 굴비 떠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가 옆에 좀 많이 산다 싶은 사람 옆에 붙어서, 아저씨 내하고 같이 합동으로 사가지고 돈대로 나눅시다. 많이 떠면 많이 싸짱아요.”

봉씨는 굴비를 끓여지고 수진동 고개에 내려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굴비 사이소’ 소리를 해야 하는데 그 소리가 안 나왔다. 점심 대신 막걸리 반 되를 걸쳤다. 그날 오후 내내 봉씨에게 굴비를 사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개시도 못하고 다시 김장사에 나섰지만 그것도 신통치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하루 한두 톨이 팔리는 정도였다.

봉씨는 또 한 번은 옆사람 말을 듣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골동품을 걷어다 파는 장사를 했다. 반다지며 감나무 뿌리로 만든 장이며 정교하게 만들어진 옛 물건들을 쉽게 내다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귀신 붙은 물건이라고 물건을 갖다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돈이 되겠다 싶은 좋은 물건을 만나도 서울로 옮기는 비용 때문에 혼자서 맡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두세 사람씩 함께 짝을 지어 일을 해야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골동품을 구별하는 안목이 없었던 터라 그 일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봉씨의 삶은 상대원으로 옮긴 이후에도 여전히 궁핍했다. 산후조리하는 부인에게 보리밥조차 제대로 챙겨줄 수 없었고, 아이 기저귀는 처가에서 해 보낸 것이었다. 한번은 고등학교 교사인 동갑내기 처남이 다녀가면서 5만원을 두고 갔지만 돌려보냈다.

#### 4.

봉씨의 고향에서 땅 한 평에 4천원 하던 시절, 상대원에서는 20평에 2만원이었다. 한 평에 천원 꼴이었다. 그러니 300평 정도만 사서 팔면 남의 일 안하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고향 어른들에게 도리가 아닌 듯하여 많이 망설였다.

하지만 봉씨는 더 이상 떠돌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집이라도 팔아 자



리잡고 장사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미리 봐둔 가게 자리가 몇 군데 있어서, 장사 좀 한다는 사람에게 자리가 어떠냐고 보여 봤지만 신통치 않다는 반응이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들른 곳이 상대원시장이었다.

“이거 값이 싸니까 한번 해봐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열심히 하면 안 되겠느냐. 근데 사람은 좀 많겠는데 장소도 좀 후지고 그렇지 만 값이 안 싸냐.”

그때 상대원시장에는 세 가게가 있었다. 하나는 야채집 하는 사람 거, 하나는 좀 위쪽으로 닭집이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봉씨가 얻은 가게였다. 가게를 얻었지만 물건 들일 돈이 안 되었다. 고향 형님에게 부탁해도 도와주지 않았다. 부모님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집에 다른 우환이 생겨 그도 여의치 못하게 되었다. 봉씨는 낙담하였다. 어려서 공부도 잘 하고 똑똑했던 자신이, 친구처럼 서울법대라도 갈 수 있을 것 같던 자신이, 어쩌다 굴러 굴러 상대원시장까지 오게 되었는지 깊은 회한이 느껴졌다.

## 5.

처음 가게를 시작했을 때 봉씨는 무척 힘들었다. 큰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약값이 없었다. 몇일이 지났는데 잘 걷던 아이의 다리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그때부터 아이 치료를 위해 침 맞히러 다니랴, 장사하랴, 힘든 하루 하루가 이어졌다. 방도 따로 얻을 돈이 안 돼서 가게에 다락을 매달았다.

“여기 가게가 루핑 집이었는데, 다락을 매놨어요. 다락에다가 우리가 잠을 잤어요. 서랍장도 친구 법대 나왔다는 그 놈하고 몇이 사가고 나한테 갖다 준 건데. 여기 다락에 딱 높이가 요만 하겠쥬, 그것 딱 갖다 놔놓는데 딱 키가 맞아 루핑집이니까. 겨울 되면은 입김이 사방에 화하게. 근데 막을 줄도 몰랐어요. 신문지도 없고 하니까 그것도 못 막

고, 거기서 애를 키웠습니다. 연탄에 밥해 먹고.”

봉씨는 상대원 2동 시장에서 그렇게 힘들게 가게를 시작했다. 2동 쪽 시장을 사람들은 옷시장이라고 불렀다. 옷시장 내에 있던 봉씨의 가게 맞은편에는 감리교회가 있었고, 밑쪽으로는 펌프가 있었다. 수도시설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펌프물을 먹었는데, 펌프를 관리했던 영감님은 보통 깡깡한 게 아니었다. 그래도 참 열심히 했다.

얼마 후에 상대원 3동의 아랫시장으로 가게를 옮겼다. 3동 쪽은 원래 시장이 아니고 일반주택지였다. 그래서 가게가 몇 개 생겼지만 처음에는 장사가 별로였다. 더구나 앞으로 하천이 흘렀다. 하천을 복개하면서 부터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복개도로는 소방도로였지만 차 한 대 지나다니지 않았고, 상인들과 손님들이 그곳을 점령하다시피 했다.

## 6.

상대원시장에는 이평원 씨라고 야채 장사가 있었다. 이평원 씨는 원래 옷시장에서 장사 잘하고 있었다. 70년대 초만 해도 재래시장에서 야채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 품목이었다. 야채는 어려운 사람들이 매일 먹어야 하는 찬거리였다. 생선은 일주일에 한번, 고기는 형편대로 먹고 없으면 안 먹던 시절이었다. 그러다 보니 아랫시장이 살아나려면 야채 가게가 반드시 필요했다.

“야채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인자 여기서 조건을 걸은 거예요. 당신 말이야 밑으로 내려오니라. 가게는 공짜로 줄게. 야채 장사만 잘하면 다른 사람은 사니까. 야채 때문에 오니까. 당신 공짜로 가게 줄 테니까 내려와서 해라. 이래 된 거야. 그래가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전망도 있고 하니깐 이 사람이 내려 왔어요. 규모는 더 크거든요. 거긴 좀 적거든요. 그래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인자 용산서 물건 가지고 올 때인데, 장사를 엄청 잘했습니다. 원래 스타일이 야채 카면은 원래 콩나물하고 나물 같은 거 취급하잖습니까. 취급 안합니다. 딱 무,

배추, 양파, 굵은 것만 딱 하고 마는데.”

이평원 씨는 상대원에서 소비되는 야채의 삼분의 이를 감당할 만큼 장사 수완이 좋았다. 그 덕분에 상대원의 아랫시장이 완전히 살아났다. 야채가 잘 되니, 과일도 잘 되었다. 과일 장수가 세 사람이 있었는데, 여름 되면 수박을 산더미같이 쌓아 놓고 팔았다. 생선도 세 집인데 다 잘 되었다.

아랫시장이 활성화되자 웃시장은 차츰 죽어갔다. 그러자 시장터에 집들이 들어섰고, 골목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웃시장은 차츰 주택가로 변해갔다.

## 7.

상대원 아랫시장은 제대로 된 호황기를 맞았다. 장사가 잘 되니까 점포에는 권리금이 오고갔다. 가게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건물 이 없는 형편이었다. 집들을 층을 올리고, 작은 지하실도 파서 활용하기도 했다. 한번은 지하에 다방을 내려고 터를 파다가 계속 물이 나는 바람에 무척 애를 먹은 적도 있었다. 상대원시장터가 원래는 늪지대였던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대형상가를 짓고자 했다. 상대원시장이 크게 호황이니 이곳에 상가를 지으면 크게 돈을 벌게 되리라 기대했다. 그래서 대형상가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역시 지반 공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참 잘됐어요. 잘 되니까 또 지은 거야. 인자 코오롱서 말아지는 거지. 코오롱서 집은 잘 지었지요. 그런데 코오롱서 이걸 말아 지었는데, 지하 3층을 파니까 옛날에 있던 소나무가 나와요. 소나무가 제일 마지막에 지하주차장 파니까 소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구경 안한 사람은 모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난공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폭이요 리어가 댕길 정도로 두껍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거 공사 제대로 한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거예요.”

새로 지은 상가는 튼튼했지만, 장사하기에 좋은 구조가 아니었다. 손님이 잘 들지 않았다. 그 후 건물은 여러 차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운영 상의 잘못으로 손님이 빠져나기도 했고, 건물을 짓는 동안 상권이 제 기능을 못하기도 했다.

“경비들이 있잖아요. 9시에 끝난다 하면은 8시나 7시 돼 가지고 들어오면 못 들어오구로 하네. 들어온 사람만 보고 나가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장 아니면 없느냐. 옛날에 이제 초창기에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야채가 죽었어. 왜냐하면은 시장 지을 동안에 개인들이 야채를 해야 하는데 야채 할 사람이 없잖아. 힘드는데 멀라고 하느냐. 카는 거야. 그러면 강제로 당신 야채 하라고 시킬 수도 없는 거고.”

8.

상대원은 이제 재개발 이야기가 나돈다. 봉씨가 생각하기에도 상대원은 많이 낙후되고 노후된 지역이 되어 버렸다. 마치 낡은 흑백필름 속의 세상을 보는듯, 혹은 이미 오래전에 변화가 멈춰버린 고립된 마을을 보는 듯하다.

“새로운 신선한 이미지도 없고 노후될대로 됐고, 사람들도 전부다 나태해졌고, 상인들도 요즘 들어온 사람들도 옛날에 있던 사람이 나태해 있으니까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태해져 있으니까 달아서 나태해지고, 들어오면은 아하 이렇다 저렇다 하잖아요.

그래도 봉씨는 상대원시장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변신과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에서도 이렇게 협조를 해 줄라카고 문화재단에서도 협조해 줄라카고 하니까 상인들도 분발 많이 하잖습니까. 그라고 위치적으로 좋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에서 사람 끌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대형마트가 할 부분이 있고 요기 주위에 재래시장에서 맡아서 할 부분이 있고.

요걸 유기적으로 잘 조화해서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같은 사람은 내 말은 부분은 열심히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라고 내가 그렇습니다.”

봉씨는 상대원시장이 변화가 마음 아프다. 그래서 일부러 희망스런 생각을 하려고 애쓰는지 모른다. 상대원시장이 아무리 쇠퇴해 가도 봉씨의 삶에서 그것은 지울 수 없는 큰 부분이다. 아니 삶의 전부에 가깝다. 상대원시장이 아니었다면 삼남매 대학 공부를 어떻게 시켰을까 싶다. 이제 큰 아들은 조정설계사가 되었고, 둘째는 가정을 꾸려 잘 살고, 막내딸은 자동차 디자인 설계를 한다.

9.

봉씨가 처음 상대원으로 이사왔을 때 상대원의 땅값은 굉장히 싼다. 한 평에 천원 남짓.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서 성남만큼 땅값이 많이 오른 데가 없다. 상대원시장에서 장사하던 상인들 중에서도 복덕방에 자주 놀러다니고 땅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모두 잘 산다. 반면에 착실히 장사만 했던 사람들은 먹고사는 것으로 끝이었다.

다행히 봉씨는 아내가 서둘러, 이사온 지 10여년 만에 집을 장만할 수 있었다.

“집은 그때 집값이 싼지요. 용자 끼고 그때 1500만원인가 1400만원 이래 샀는데, 57평이요. 그때 나는 사지 말자 카고 이 양반은 사자 했는데 그것도 용자를 많이 끼고. 그제 새마을 용잔가 무슨 용잔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조금 조금씩 값아가면서 했는데 그거라도 없으면 큰 일 날뻔 했지요. 살 자리가 없지요. 그러니 여자 말을 들어야지요.”

10.

봉씨는 70년대 초 호시절에는 옆 가게를 인수해서 3개까지 운영했다.

처음에는 기름가게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고추를 추가했다. 그때 고추를 팔고 빵아주면서 벌었던 돈이 전대에서 흘러나올 정도였다. 한 달 벌이면 집을 한 채 살 정도였다. 손님은 넘쳐났고 장사는 잘 되었는데, 돈은 안 모아지고, 남는 것이 없었다.

고추를 시작한 후 일손이 딸려 종업원을 두게 되었는데, 종업원은 고향 아버지 부탁으로 들인 사람이었다. 고기 귀할 때 소고기국 끓이면 같이 나눠먹으면서 고기도 더 건져주었고, 휴가 간다면 휴가도 보내주었다. 그랬는데 종업원이 물건을 빼돌려 파는 일이 생겼다. 그렇게 팔아치운 물건이 돌아서 다시 봉씨에게 오기도 했다. 종업원을 잘못 둔 후유증이 심했다.

그런데다 봉씨는 마음이 후해서 덤을 마구 집어 주었다. 그러다 보니 일년 장부를 정리하고 나면 계산이 안 맞았다.

“덤을 줬어요 내가. 600그램 주고 그 다음에 덤 준다고 하면서 한 움큼 더 줬어. 그러니 75그램이 까지는 거야. 손님이 오는 게 좋아가지고 무조건하고 손님이 끈다 싶어가 생각도 안하고 준 거야. 손님은 바글바글 거렸지. 이래 줘뿌고 줘뿌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 1년 한 것이 적자가 완전히 나. 그런데 이상하게 물건은 일부 외상 가오고 일하다보니까 자꾸 외상값이 밀리고 그렇더라고. 그래가 나중에 한 번 허리가 휘어지면 이게 퍼질 않아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방산시장 같은 텔 가가지고 미원 같은 걸 사가지고 왔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박정희 때 미원 500그램짜리를 400원에 사와서 500원 받아라 해요 공식가격이. 근데 보통 때 우리가 450원을 받아. 900원에 나와가지고 천 원 받아라 카는 거야. 그러면 950원에 보통 팔아요. 6개월 동안 450원에 팔았어요. 450원. 그러니 안 되지요. 그러니 참 인자 생각하니 후회가 되지. 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장사가 뭐예요.”

장사샘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봉씨는 가게를 줄였다. 처음에 시작하던 크기 그대로 가게를 줄였다. 그후로 봉씨의 장사는 빛을 거의 보지 못했다. 그것이 벌써 28년 전의 일이다. 막내딸을 낳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다.

11.

상대원시장은 1970년대 초창기에 제일 좋았고, 80년대까지만 해도 괜찮은 편이었다. 그러던 것이 막내딸이 태어나고 얼마 후, 그러니까 87, 88년 쯤부터 기울기 시작했다. 그게 지금 있는 대형 상가가 새로 지어지고, 또 노전이 없어지면서 부터였다.

“모란시장처럼 천막을 쳐놓고 양쪽으로 노전을 얹혀놓고 노전길에서 사람이 많이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저렇게 백화점 식으로 해놔 버리니까 물건은 다른 공산품은 괜찮게 싸놓는데, 첫째 사람이 꼬이는 거는 야채, 생선, 이게 사람을 제일 많이 꼬이게끔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채가 안 되고 생선이 또 그렇게 되고, 야채가 다라이 장사도 안아야 되고 대대적으로 벌여 갖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되지. 지금도 여기는 야채를 가지가지 해가지고 왕창 갖다 때려넣어 가지고, 싸게 싸게 해가지고 막 밀면은 잘될 거 같아요.”

12.

봉씨는 요즘 손님 한명 한명이 아쉽다. 시절이 변하다 보니, 물건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를 해도 손님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기름장사도 거의 개점 휴업 상태이고, 예전에 그렇게 호황이던 고추장사도 힘들어졌다.

“사실은 말만 기름장사지 기름 안 나갑니다. 왜 안나가느냐. 요즘 주부들이요 맛을 보고 먹어야 되는데 맛을 모르고 값싼 거만 찾아 돌아다니니, 그러니 장사가 다 한물 간 거예요. 그러니 고추도요 전보다 시골

서 갖고 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와서 다 뺏아버려요. 그러니 고 추장사 힘들지.”

손님 중에는 시골서 한 되 두 되 얻어온 깨를 내밀면서 기름을 짜 달라는 손님도 있다. 사실 그렇게 소량으로 기름을 짜면 기계 돌리는 원가도 안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성의껏 기름을 짜준다. 혹시나 봉씨의 마음을 알아주는 손님이 있으면 다행이려니 생각할 뿐이다.

손님이 넘쳐나던 예전에는 손님에게 인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래도 손님은 넘쳤다. 하지만 지금은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아이고 어서 오이소’하고, 애를 업고 오는 손님이 있으면 ‘아이가 이쁘네요’ 하고 너스레를 떨어보기도 한다. 시에서 서비스 교육을 받을 때 강사가 해보라는 데로 해보기도 하지만, 이제는 별무소득이다. 좋은 시절이 다 갔다는 생각이 든다.

13.

봉씨는 보통 오전 9시에 가게 문을 연다. 그 시간에 아내는 집안일을 해결하고 좀 늦게 가게로 나온다. 벌써 오래된 생활 규칙이지만, 요즘은 낮 동안에 낮잠 자는 일이 많아졌다. 한참 바쁠 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가 내려오면 둘이 밥 먹고 낮에는 낮잠 자야지. 왜냐하면 손님 없으니까.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자버리는 거야. 손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은 보초 서고 한 사람은 자고, 둘이 이려고 있어야 돼. 볼 일 있으면 집에 가서 빨래하고 뭐 하고 오너라. 또 안 그러면 내가 이발하고 오께. 저녁 되면 5시나 6시나 옛날 같으면 정신도 못 차릴 때, 여보 내가 올라가께, 올라가서 쉬어, 그럼 혼자 있잖아. 손님 없으면 할 수 없이 텔레비전 보다가 한숨 푹 자고 나면 한 8시나 돼버려.”



이발소라든지, 수예점 같이 손기술이 필요한 가게는 지금도 장사가 그럭저럭 되는 편이다. 하지만 봉씨의 가게는 자꾸 적자가 늘고 있다. 손님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는 가게를 접고 아파트 경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내도 그런 말을 가끔 비친다.

그래도 봉씨는 장사를 계속 하고 싶다. 체력도 아직은 괜찮고 마음도 젊다. 그래서 희망을 저버릴 수 없다. 그의 한 평생을 온전히 버텨준 상대원시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14.

가게는 쉬는 날이 없었다. 연중무휴로 장사를 했다. 언젠가는 여러 가게가 의논하여 정기 휴일을 정한 적이 있었다. 휴일이 되어 다른 용무를 보고 돌아왔는데 어느 집에서는 가게를 열고 손님을 받고 있었다. 신사협정은 그후로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은 제대로 된 휴일도 찾아먹을 수 없었고, 그럴싸한 취미생활도 하지 못했다.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 틀어놓고 꾸벅꾸벅 조는 것이 휴식의 전부였었다.

하지만 봉씨와 아내는 2008년 들어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다. 남한산성 공원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전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남한산성은 무슨 남한산성이고 잠이나 자자고 했는데, 몇 번 딱 가보니까 공기가 달아요. 그래가 아침에 두 시간 정도 5시 반에 일어나 남한산성 가서 한 바퀴 돌고 맨손 체조 한번 하고 오지 않습니까. 여기 오면 8시 되요. 밥먹고 부리나케 오고.”

어쩌면 취미라기 보다는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겠다. 늙어서 쓰러지면 자식들이 힘들어질 테니, 보험 드는 마음으로 산행을 하는 것이다. 어느새 건강을 걱정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하는 산행이 장사에 바쁘던 예전에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장사 잘 될 때는 손님하고 싸워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그러니까 좋은 걸 몰랐어요. 솔직히 손님이 많아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랬는데 이젠 즐겁고 그런 거는 요즘 와서.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해 돈은 쪼달리고 그렇지만도 아까하고 들어서 산에도 가고. 내가 첫째는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 마음을 다 비우고.”

봉씨는 아내의 이런 말을 새삼 마음에 새겼다. 작년까지만 해도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는 트러블이 많이 생겼었다. 지나가는 까마귀도 들어와서 먹고 가라고 할만큼 낙천적인 자신의 성격과 당장 생활을 챙겨야 하는 아내의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에 다니면서 서로가 마음을 접어줄 수 있을만큼 여유가 생겼다. 부부는 나이 60 즈음에 철이 들었다.

15.

굽이굽이굽이 고생고생고생 하면서 살아오는 중에도 아이들 키우는 일이 제일 힘겨웠다. 내외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늘 저희들끼리 놀았다. 장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집안은 발디딜 틈도 없이 어지럽혀 있었다. 그럴 때면 큰 소리가 오가고, 속도 상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냉장고를 처음에 쪼매난 거 하나. 참 좋아서 죽겠더라고, 냉장고 사니. 냉장고에 뭘 사 놓야 되느냐. 사이다? 사이다 한 박스를. 근데 그게 아이들 몸에 나쁘다는 걸 모르고,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한이 되니까 그놈을 산 거야. 두 박스 정도 되지 싶었다. 냉장고에 막 집어넣었어. 넣어 놓고 했는데 한날 오니까 둘이 어떤 거는 한 모금 마시고 놔둬버리고 어떤 거는 다 마시고, 거기 있는 걸 전부 다 조져놔어. 완전히 방이 개판 나버린 거예요. 아 배는 골골 썩썩거리고.”

그후로도 줄곧 아이들은 저희끼리 컸다. 아들 둘은 아이큐가 147, 148이었다. 딸은 아이큐 150에 공부도 잘했고, 전교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효심도 깊었다. 공부만 하기도 바쁠 고등학교 2년 만에 89, 90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와 계셨던 적이 있었다.

“이때고등학교 들어가 가지고 5등 안에 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말에 3학년 올라갈라 하는데, 자꾸 노인네들이 치매가 깜빡깜빡 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계시는데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니까는 우리 딸내미가 뒤처리 다 해놓고”

봉씨의 아내는 10남매의 막내로 아주 부유하게 커서 그런지 비위가 무척 약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대신 딸이 굶은일을 맡아야 했다. 딸은 그일을 알아서 감당했다. 그래서 그는 딸이 더욱 고마웠다.

16.

상대원시장은 밥솥 같이 오목한 지형에 자리잡고 있다. 물을 부으면 물이 모이듯 재화가 그득하게 쌓일 장소이다. 시장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터에서 삶을 이어왔다. 웃는 날도 많았고, 힘들고 치열했던 날들도 있었다. 한때는 전대에 돈이 넘쳐나도록 장사가 잘 되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형마트와 재래 점포가 분리되어 서로 소통하지 못하면서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래 점포 중에는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곳도 있다. 지금까지 20년, 30년, 많게는 4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왔으니 얼마간을 더 버티라면 못 할 것도 없다. 다만 희망이, 예전의 좋던 시절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신념이 문제인 셈이다.

봉씨가 성남문화재단이 벌이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를 남다르게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도 살리고 또 우리 개인도 좋고 이런 문제거든요. 물건 싸게 파는 것도 알아야 되고 신선한 것도 알려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같

은 공동체라는 것도 인식이 되어거든요. 여기 주민들이 여기서 사면은 값싸고 동네사람 살리고 이런데, 동네 사람 잘되는 게 배 아플 일 없잖습니까. 동네 사람 잘 되는 게 낫지요.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거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릇가게,  
- 상대원 엄씨 이야기





# 그릇가게,

## - 상대원 염씨 이야기

1.

7남매의 장남이라서 눈치가 뵈었다. 그래서 염씨는 열 여섯 무렵에 고향 포천을 떠나야 했다. 조그만 시골 농사로는 얼마 안되는 중학교 학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더구나 밑으로 동생들이 줄줄이 있었다.

“제가 스스로 학교를 그만 뒀어요. 나 하나만 학교를 안다니면 그 밑에 동생들은 줄줄이 있고 나 혼자만 학교를 안다니면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을 안하실텐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 때 당시에는 거의 다 서울로 서울로 오는 분위기였어요.”

염씨는 그렇게 고향을 떠났고, 아는 사람의 주선으로 그릇가게에 취직을 했다. 몇 년을 그곳에서 심부름하며 일을 배웠다. 차츰 자신의 가게를 갖고 싶다는 꿈이 생기면서부터 돈 씹씹이를 최소로 줄이고 번 돈의 대부분을 저축했다.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염씨는 가난한 집안의 맏형 노릇을 외면하지 않았다. 셋째 동생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그는 지금을 조금 헐어 등록금으로 보냈다. 그리고 다른 동생들을 위해서도 줄곧 그렇게 했다. 그 덕분에 동생들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염씨는 악착같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만큼 열심히 살았다. 학력이 모자라 군대도 면제되었고 덕분에 좀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었다. 1975

년 들어 그는 서울 성수시장에 자신의 가게를 냈다.

2.

염씨는 성수시장에 가게를 열고, 순박한 시골 아가씨와 중매로 결혼도 했다. 하지만 장사는 하면 할수록 힘들었다. 가진 자본이 얼마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성격이 너무 고지식한 탓도 컸다. 장사를 하다 보면 물건을 외상으로 들여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염씨는 도무지 그걸 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진 돈이 없으면 필요한 물건도 제때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게 고전을 하던 참에, 염씨는 우연히 상대원시장을 구경하게 되었다. 이웃하여 가게를 하던 분이 성수시장 가게를 처분하고 상대원시장에 개업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소매상에 물건을 대는 중상으로부터 상대원시장의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그건 일본말인데 나까마라고 하나요? 중상이죠. 물건을 대리점에서 해가지고 소매상에 물건을 대주시는 분이니까 여기저기 많이 다니세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아는 거예요. 어느 시장에 장사가 잘 되고 어느 지역이 어떻고 그런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하는 얘기가 너도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이 시장에는 크게 발전이 없다. 내가 성남으로 가니까 개업식 때 구경을 하고 니가 괜찮으면 옮겨라.”

개업식 때 구경한 상대원시장은 성수시장 보다 훨씬 활기가 있어 보였다. 성수시장보다는 훨씬 비전이 있어 보였다. 그는 아내의 동의를 구하여 상대원시장으로 가게를 옮겼다. 그날이 1980년 4월 1일이었던 것을 염씨는 잘 기억했다. 그리고나서 바로 첫딸의 백일이었기 때문이다.

3.

상대원의 첫 가게는 겨우 5,6평 정도 밖에 안되는 조그만 크기였다.



그래도 자리가 난 가게는 거기 밖에 없었다. 가게를 상대원으로 옮기긴 했지만 장사 밀천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처음 연 가게는 단골 손님도 없었다. 가게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염씨는 아끼고 또 아껴야 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때 여기 처음 이사와 가지고 김장을 50포기가 했을 거예요. 김장이 제일 싸니까. 돈은 없고 두 식군데도 돈은 없고 어떡해요? 그렇다고 제 스타일이 어디 가서 막 빛나오고 그런 스타일은 못 돼요. 그냥 있는 돈에서 아껴서 하는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김치, 점심에도 김치, 저녁에도 김치. 그리고 시골에서 어르신들이나 와야, 손님이나 와야, 돼지고기 반 근이라도 사서 찌개에다 좀 넣고 간신히 먹을 그런 형편밖에 못 돼요.”

다행히 장사는 금새 자리를 잡아갔다. 단골도 생기고, 저축이 가능할 만큼 벌이도 늘었다. 염씨가 82년에 아들을 낳을 때쯤 해서는 장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좀 더 목 좋은 곳으로 가게를 늘려 갈 수 있을 만큼 되었다. 상대원시장은 그때까지도 호황이었다.

“저희가 80년도에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참 몇 년만 먼저 왔어도 참 괜찮았을 건데 좀 늦었다. 한 몇 년만 빨리 오지, 그랬으면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됐데요. 그랬는데 그때도 괜찮았어요. 저희가 생각해도 그 때온 것만 해도 너무 늦은 건 아니었어요.”

#### 4.

상대원시장은 위쪽일수록 장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염씨는 얼마 가지 않아 알아차렸다. 그러던 차에, 82년 무렵이었을 것이다, 근처에 새 건물이 지어지면서 가게 자리가 하나 났다. 염씨는 서둘러 계약을 했다. 처음 가게에서 네 가게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 얻은 가게는 염씨의 아내가 맡아보았다.

“저는 밑에서 보고 제 집사람은 위에 쪼그만 가게 거기서 보고, 그렇

게 장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애 꼴도 안 되고, 저희 집사람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갓집에서 보기에 딸내미가 너무너무 고생을 하잖아요. 애 둘 키우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힘든데. 이건 가게 하나를 맡아서 장사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장모님하고 장인하고 의논을 하셨던가 봐요.”

염씨의 처가는 아들 없이 딸만 많았다. 사는 형편은 팍팍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골 동네에서는 제일 잘 사는 편에 속했다. 딸들 중 처형들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처제들은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염씨의 장인은 그리저럭 어렵지 않게 생활하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육아에 장사까지 힘들게 하루하루 생활하는 셋째 딸이 안쓰러웠다. 그래서 딸 네집 근처로 옮겨 딸을 도와주고 싶었다.

1882년 추석이 막 지났을 때 처가가 상대원으로 이사했다. 장인은 농사짓던 땅을 팔고 그 돈으로 집을 구입했고, 염씨 일가는 그곳에 방 하나를 얻어 들었다. 그후로 애들은 장모님이 맡아서 길렀다.

## 5.

육아가 해결되어 집안이 안정되자, 장사도 차츰 나아졌다. 이후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그렇게 다시 3년여가 흐르면서 돈도 좀 모아졌다. 그즈음 해서 위쪽 가게 바로 옆에 빈 가게 자리가 하나 났다. 그래서 염씨는 아래쪽에 있던 첫 가게를 정리하고 그리로 옮겼다. 아내가 맡은 가게와 자신이 맡아보는 가게가 이제 나란히 있게 되었다. 그 후로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염씨는 같은 자리에서 그릇을 팔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를 쭉 하다가 보니까 제일 황금기가 86 아시안게임하고 88 올림픽 그때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되었어요. 그때는 아침에 나가서 저거하면 돈이 진짜 막 들어와요. 아침서부터 문만 열기 시작하면 그냥 손님이 거의 끊이지 않고 쭉 들어오니 까. 그리고 그 전에 어려웠던 생각을 하니까 돈을 쓸 일도 없고, 그래가

지고 장사를 쫓 잘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88올림픽 때도 장사를 쫓 잘 하고 있었어요.”

6.

상대원시장에는 가게 앞마다 노점도 많았다. 노점을 하는 사람이나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 모두가 상대원시장이라는 공동체 내에 있었다. 그들은 친목회도 같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염씨는 친목회 회원에게서 동업 제안을 받았다. 현집을 매입하여 새집으로 지어 파는 일이었는데, 집을 많이 지어본 사람의 제안이라 거절하지 않았다.

“88 그때를 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팔고 하면 돈이 얼마씩 떨어지고 그러더라구요. 저한테도 주택이 없고, 그 사람도 무주택이고 하니까. 현 집을 사가지고 지어서 팔고 하면 세금 내는 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제 앞으로 했고, 그 사람 앞으로도 해 가지고, 상대원에도 지었고 인하대병원 앞에 그쪽에서도 짓고 몇 군데를 해서 돈도 좀 벌고.”

신뢰가 중요한 동업 관계에서, 동업자는 염씨를 신뢰했고, 염씨도 동업자를 신뢰했다. 장사하면서 보아온 서로에 대한 평판과 신뢰가 좋은 동업관계를 만들어 주었다. 집짓는 동업으로 돈을 좀 벌긴 했지만, 염씨는 장사에 소홀하지는 않았다. 염씨는 그릇 가게 일을 본업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본업이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고향을 떠나 어려서부터 해 오던 일이라 익숙하면서도 애착을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7.

염씨는 90년 분당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다. 장사에서든 이문이 많이 남았고, 거기다 집짓기 동업에서도 이윤이 있었던 터라, 그는 돈의 여유가 있었다. 처음에는 집짓기 동업자의 추천대로,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분양 신청이 가능한 시범단지를 노렸다. 하지만 경쟁률이 워

낙 심했다.

“그 다음서부터는 주택청약예금인가 뭐를 얼마를 넣으면 하는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삼십 몇 평 그거를 할라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얘기 듣기는 아파트는 크면 클수록 나중에 팔아도 이문이 많이 남는대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당시에 400만원인가 얼마를 넣으면 중대형 아파트를 할 수 있는 거고, 200만원인가 300만원이면 한 삼십 몇 평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건데, 너는 여유가 있으니까 큰 평수를 해라,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시범단지 떨어지고 바로 은행 가서 청약저축인가 예금인가를 해 가지고 9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된대요. 마침 한 10개월 정도가 됐는데 자격이 되잖아요.”

염씨가 1순위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했다. 성남시 거주자한테는 분양 물량의 20%를 선분양하는 혜택을 입은 건지, 어쨌든 염씨는 운 좋게 분당 6차 48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염씨가 48평이나 되는 대형 평형을 분양 받은 것은 단지 가진 돈의 여유가 있어서만도 아니고, 다음에 비싸게 팔아 큰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만도 아니었다. 당시 염씨의 가족은 장인 장모에 두 처제, 그리고 염씨 부부와 아이들까지 총 8식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두집 식구가 합쳐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48평형 아파트는 두집 식구 8식구를 위한 집이었다.

염씨의 대가족은 92년 1월에 분당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 사이, 장인이 7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처제도 하나 결혼을 한 상태여서 분당으로 옮긴 식구는 모두 여섯이었다.

8.

염씨네 가족이 아파트에서 좀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시작했을 때, 염씨

의 가게가 있는 상대원시장은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하고 있었다. 분당 신도시로 인해 상대원시장은 차츰 활력을 잃어갔다. 상대원시장의 손님들이 신도시에 들어선 백화점과 현대식 마트들로 발길을 돌렸다. 특히 분당의 백화점들이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상대원시장에 치명적이었다. 상대원의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쇼핑 기회를 제공했던 백화점 셔틀버스가 상대원 지역 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돌아온 셈이었다.

“분당 쪽에서도 그랬고 여기 단대쇼핑에서도 그랬고. 하여튼 큰 쇼핑물 운행버스가 구석구석 다 다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손님을 다 쓸어가는 거야. 다. 편하잖아요. 요금도 안내지, 거기 가면 많지. 그러니까 자연 그대서부터 도태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그 버스만 타면 데려가고 데려오고, 시간 맞춰갖고 하루에도 몇 번 씩 운행 해주니까. 백화점이라는 게 서울 가야 있었는데, 분당에 가니까. 분당은 여기서는 굉장히 크게 봤어요, 아주 좋게. 그러다보니까 자꾸 거기다 뺏기는 거 같아요.”

문제점이 지적되어 백화점 셔틀버스를 중단시켰지만, 손님들은 상대원시장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넓은 주차장에 깨끗하고 고급스런 매장을 갖춘 분당의 대형상점들에 비해, 상대원 재래시장은 주차장도 좋은 매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손님은 점점 빠져나갔고, 그런 추세가 계속 될수록 시장상인들도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갔다. 그래서 문을 닫는 가게도 하나 둘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되었다. 염씨도, 그의 아내도 상대원시장은 그렇게 결정적인 첫 번째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 9.

그래도 1996년 무렵까지는 어느 정도 장사가 유지되었다. 문제는 97년 IMF였다. IMF 1년 전부터 장사는 급격한 내리막을 걸었다. IMF가 될지 시장 사람들은 잘 몰랐다. 가게를 닫고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겨우 현상 유지를 하면서 IMF 터널을 벗어나길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

엄씨는 후자에 속했다. 장사는 가게 세 내고 먹는 거 충당하고 나면 끝이었다. 그래도 그는 다행히 빚이 없었다. 그동안 안 먹고 안 입고 모 아온 덕분이었다.

“옛날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돈을 거의 안쓰다시피 했어요. 제 먹는 것까지도 아까울 정도로다가 생각을 했었으니까. 어디 물건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집에 와서 먹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도 왜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국수 한 그릇 먹는 것까지도 아까울 정도로. 집에 와서 그 시간에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얼마가 절약되는데. 하다보니깐 무조건 그냥 절약만 하고 절약만 하고, 아 언젠간 내가 이렇게 저축을 해놔야 나중에 편하겠지, 편하겠지. 그 돈이 어디 가나. 저축을 해놓으면 어떻게 좀 되겠지.”

엄씨는 그렇게 모은 돈만으로 대출 한푼 없이, 분당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았고 수원과 여주에 땅도 좀 사두었다. 부동산에 탈탈 털어 투자를 하면서 노후대책이려니 생각했었다.

IMF로 장사가 안되고 수중에는 현금이 돌지 않았지만, 엄씨는 최악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팔아서 쓰면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갖기도 했었다. 물론 부동산이 반토막되면서 현금을 좀더 갖고 있을 걸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 어쨌든 IMF는 엄씨와 상대원시장 사람들 모두에게 어려운 시절이었다. 그리고 상대원시장은 그것으로 인해 두 번째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10.

IMF가 어떻게 지났는지, 시장 사람들이 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상대원시장은 다시 한 번 큰 변화에 내맡겨졌다. 상대원시장 한 가운데 대형 건물이 새로 들어서고 그 안에 마트가 들어온 것이었다. 그로 인

해 재래시장 자체가 사라질 운명을 맞게 되었다. 많은 상가들과 노점들이 사라지고, 남은 상인들도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기는커녕 가진 돈을 더 밀어넣어야 될 형편이었다. 염씨는 앞일이 걱정이었다. 뉴스를 보면 사람의 수명은 점점 길어진다는 데 돈벌이는 점점 궁색해지니 캄캄할 수 밖에 없었다.

“시장이 이렇게 하다보면은 몇 년 안갈 거 같은 느낌이 와요, 이제는. 시장이 점점 안되니까, IMF 때 그릇 계통에서는 좀 빠른 사람들은 대형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IMF가 되니까 퇴직한 사람들이 갑자기 음식점 내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대형 그릇가게 낸 사람들은 장사 잘 되는 거예요, IMF때요. 음식점을 내면 그릇을 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우리도 대형으로 좀 내야겠다. 그렇게 준비를 할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이제. 시장도 짓고, 장사는 점점 안 되고, 현상유지가 힘든 거예요. 진짜 돈을 갖다가 끌어박아야 되는 형편이에요”

장사가 너무 안 되고 돈도 부동산에 다 묶여 있어서 염씨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가게를 크게 내든 뭘 하든, 그는 부동산 중 하나를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염씨는 분당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이나 여주 땅은 판매가 너무 여의치 않았다.

## 11.

염씨는 분당 아파트에 입주한 지 10년만에 팔아버렸다. 한국에서 월드컵 열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갔던 2002년이였다. 48평 아파트를 3억 5천에 달랑 팔아치웠으니, 지금 생각하면 싸도 너무 싼 가격이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아파트가 최고점을 찍고 1년 만에 반토막에 가까워진 지금 시세보다도 싼 가격이었다.

그리고 염씨네는 다시 상대원동으로 들어왔다. 처음에 살던 장모님 소유의 집을 팔지 않고 전세를 주었었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었다. 2700만원에 전세 들어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염씨가 전세를 들어온 격이었다.

그렇게 아파트 팔고 수원 땅도 팔아 쥐게 된 목돈으로 염씨는 대형 그릇가게 터를 물색했다. 서울이 됐든, 지방이 됐든 좋은 자리가 나서면 상대원을 뜨려고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저기 화곡동이라는 데로 갈라고 했는데, 그게 마땅치가 않게 됐어. 한 1년 동안 추진을 했는데 떠나고 갈라고. 그게 마침 안 되요, 뭐가 이상하게. 거의 마음을 굳히고 했는데. 그쪽에 먼저 있던 사람이 나가게 그렇게 됐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염씨가 아파트를 팔고 난 이후 얼마 안 지나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갔다. 정부에서는 판교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고, 인접한 분당 아파트 값은 덩달아 계속 뛰었다. 속이 상했다. 아니 쓰러왔다. 대형 그릇가게는 이미 염씨에게서 멀어져 버렸는데 팔아치운 아파트는 금값이 되어 오르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다. 어쩌면 좋겠냐고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용인 동백지구의 상업용지를 권했다.

12.

염씨는 동백지구 상업용지 매입하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돈이 모자랐다. 은행동에서 그릇가게를 하는 여동생과 공동투자 형식을 택했다. 남하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피붙이가 나을 듯 싶었다. 공개입찰에 몰려든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래서 염씨는 남들보다 좀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응했다. 토지공사에 하는 거니까 정확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고, 또 토지공사 보증으로 60%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다.

염씨는 2003년 동백지구 상업용지를 분양받고, 신도시 상가가 하루 속히 형성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도 상가가 형성되는 것도 더디기만 했다. 그동안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면서 버텨



야 했다. 다행히 그 무렵 제대한 아들이 벌고, 딸도 대학 졸업 후 벌이가 있었다. 염씨까지 합하여 셋이서 번 돈으로 대출금 이자는 감당할 수 있었다.

“2005년부터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상가는 활성화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입자를 구해가지고 1층만이라도 지을라고. 2008년 봄에 세입자를 구했어요. 2008년 6월 달 7월 달에 상가를 지었죠. 상가를 지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여기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석달은 월세를 면제를 해줘라.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8월 1일 날 준공검사가 났어요. 8, 9, 10월 달까지는 못 받고 이제 11월 달부터는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아직 활성화가 안 되니까 아직은 이자에 조금 못 미쳐요.”

애들이 몇 년 번 돈까지 싹쓸이 하듯이 투자했지만 염씨는 5년이 지나도록 대출 이자도 못 뵈었다. 운 좋은 사람은 투자만 하면 뽕뽕 튼다는데 자신은 좀처럼 그런 운이 따라 주지 않았다.

13.

염씨는 요즘 들어서 세상살이가 더 걱정스럽다. 의학 발달로 수명은 길어져 가는데 늙어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동백지구에서 장사를 하든 임대료를 받든 어떤 식으로든지 노후대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나이 먹어 아파트 경비하고 파지나 고철 줍는 노인들이 그냥 보아 넘겨지지 않는다.

진짜 열심히 살았고 진짜 아끼며 살았다. 하지만 세상 흐름은 너무 빨랐고, 염씨는 그것을 따라잡지 못했다. 그런 자신이 다리 짧은 난쟁이 같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장사한 지도 1980년서부터 했으니까 28년이나 되지 않습니까. 같은 한 시장 내에서 거의 같은 장소. 근테 아마 직장 생

할했으면 퇴직금이 나왔으면 꽤 나왔을 거예요. 28년 동안 근무를 했으니까. 근데 저희도 벌써 장사가 벌써 1995년부터는 장사가 덜 되기 시작을 하니까. 언젠가 재래시장 없어지는 거 아냐? 뭐 하는 거 아냐? 그런 감지는 했어요. 그랬는데 당장 부동산은 다 묶여 있지. 현금이 있어야 뭘 움직이죠. 그러다보니까 파는 시기도 잘못 선택했고. 뭘 하다보니까. 그게 좀 힘이 들어요. 빨리빨리 변화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14.

상대원 재래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좀 비싼 가격이라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깔끔한 매장을 선호한다.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쇼핑도 여기에 가세했다. 염씨의 딸도 한 달에 몇 번씩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고 있다. 이래저래 상대원시장은 긴 침체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만 같다. 염씨가 운영하는 그릇가게도 월매출이 계속 줄더니, 요즘 들어서는 임대료 내고 가족의 한달 생활비가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떨어졌다.

“제 자신은 건강한 거 같거든요. 근데 가게 와서 보면 혈 게 없어요. 손님이 와야 뭘 하죠. 그렇다고 해서 마진을 많이 버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들 다 정찰제 해요. 정찰제 하지, 지금은 카드 없으면 안되는 세상이니깐, 신용카드 결제기 다 있지, 현금영수증 해달라면 현금영수증 다 해주지. 하는 건 다 해요. 손님이 안 오는데 뭐, 진짜 어떤 때는, 야 이걸 뭐 찌라시를 한번 뿌려볼까.”

염씨는 상대원시장이 이제 5년 이상 버티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상대원 지역 재개발이 시작되면 시장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재개발이 되는데 2동은 거의 다 20평, 19평, 18평 뭐 다 그렇게 90프로는 분양지예요. 3동도 그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2동도 한다고 그러지. 여기도 곧 한다 그러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5년 후에, 6년 후에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떠나야 된다고 생

각을 해요. 재개발이 되면은 아무리 빨라도 3년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철거하는데 1년 보고, 짓는데 한 2년 보고, 빨라야 3년이거든요. 그럼 3년을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어디서 어떻게 버팅기겠어요.”

15.

염씨는 여름휴가를 가본 적이 없다.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장사가 잘 될 때는 바빠서 못 다녔다. 장사하고, 돈버는 일 외는 별다른 취미도 여가생활도 없었다. 친목회 일 이외에는, 시장 밖 나들이를 하는 경우도 흔치 않았다.

85년도에 상가 사람들이 모여 한우리라는 친목회를 만들었다. 꽃집 사장님도, 고춧집 사장님도, 옆에 앞에, 앞에 옆에 다 해서 열 몇 사람이었다. 고향을 따져보면, 호남 사람이 많아서 진도가 세 사람, 여수가 두 사람, 장흥, 부안, 목포, 영암이 각각 한 사람이었고, 경상도 청송 하나, 충청도 둘, 그리고 염씨는 경기도 포천이었다. 친목회의 활동은 계원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일이 큰 부분이었다. 특히 계원들 집안에 초상이 나면 계원 모두 장지까지 따라가도록 되어 있었다.

“상대원 이쪽으로 다가는 호남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무슨 때 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초창기에는 차량도 없고 하니까, 봉고차 하나 빌려서, 밤에 장사 끝나고 거기까지 가죠. 한 아홉시 열시 까지, 여기서 열시쯤 해서 출발을 하는가 봐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거의 새벽 두 시, 세 시 그때쯤 들어가기도 하고.”

상가에 조문하러 밤길을 도와 지방을 다녀오는 일이 여름휴가를 대신 했던 셈이었다. 물론 친목회에서 야유회를 가기도 했지만 몇 년에 한번 정도에 그쳤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제대로 된 외출을 해 본 적이 없다. 이모를 따라 몇 번 다녀온 놀이공원 외출이 전부였다. 염씨는 그것이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고 미안한 일이다. 또 공부를 제대로 살펴주지 못한 것도 미안한 일이다.

“지금도 애들한테는 너무너무 미안해요. 애들 공부하는 것도 못 봐주고, 애들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진 않았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질 못했어요. 우리 딸내미는 그런대로 그래도 4년제 대학으로 갔으니까 나한테, 아들내미는 겨우 전문대 갔어요. 기초가 초등학교 때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못 갔는데. 처제들 애들한테 신경써주는 거 보면은 그게 너무너무 많이 부러워요.”

어려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그러기 위해 무조건 돈을 버는 것을 지상과제로 여겨 온 삶이었다. 염씨는 다시 살아보라고 하면 그렇게는 안 살 것 같다.

16.

염씨가 상대원으로 왔던 80년대 초는 장사가 참 잘 되던 시절이었다. 그 시절 상대원공단은 활발하게 돌아갔고, 근로자들이 시장의 주요한 고객이었다. 젊은이들은 간이부엌이 딸린 방 하나 짜리에 주로 살았다. 방안에는 비키니 옷장 하나에 조그마한 호마이카상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는 석유 곤로와 밥공기와 국그릇 정도가 갖추어졌다. 또한 돌이나 백일이 되면 뷔페를 찾는 지금과는 달리, 80년대 이전에는 집에서 잔치를 많이 했다. 잔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수저도, 밥그릇과 국그릇도 여러 벌이 필요했다. 그래서 가게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다.

좀 먼 데서 상대원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이용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자가용이 흔치 않던 시절이었으니까. 택시를 타면, 사람들은 ‘원다방 갑시다’고 했고, 그러면 택시는 손님을 시장 입구에 내려주었다.

“지금 코너에 보면은 화장품 그 자리가 원약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원다방. 그러니깐 사람들이 상대원시장 가자는 소리 안하고 대부분 원다방 갑시다. 남자들은 원다방 가자, 여자들은 원약국 가자.”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시간은 오후 4시에서 저녁 전까지였다. 그 시간을 사람들은 ‘장시간’이라고 불렀다. 장시간이 되면 물건 사러 온 사람도, 그들의 지갑을 노리던 소매치기도 들끓었다. 좀 밀린다 싶으면 지갑이 없어지기 일쑤였다. 그 중에서도 원약국에서 그 위쪽 언덕까지는 사람 천지였다. 야채며 생선, 과일 노점도 뭐가 났든 나오기만 하면 다 팔 수 있었다.

염씨는 문득 문득 상대원의 좋던 때를 생각하며 깊은 회한에 잠긴다. 그럴 때면 30년 세월을 건너오게 해준 상대원시장이 고맙기도 하다. 저축은 안해도 좋으니 임대료 내고 세끼 밥만 먹을 수 있다면 십년이고 이십년이고 시장을 지키고 싶다. 그리고 지금까지처럼 검소하게 살면서 작은 나눔 생활도 실천하고 싶다.



스묵여덟 해,  
- 상대원둥이 이야기







# 스물여덟 해, - 상대원동이 이야기

## 1.

스물 여덟 해 그의 삶은 평범했다. 그 중에서 열다섯 해는 상대원에서 보낸 세월이었다. 비슷한 환경을 가진 상대원 주변 지역에서의 삶을 더 하면 스물다섯 해를 보낸 셈이었다. 그곳은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 대학에 입학하고, 군복무를 하고, 다시 복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그의 삶의 근거지 역할을 했다. 물론 대학 입학 이후에는 상대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리고 바야흐로 3년 전부터는 상대원을 완전히 떠났다. 이제 그에게 상대원은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곳일 뿐이다.

그의 유년시절의 기억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또래 아이들 누구에게나 유치원의 기억은 크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유치원을 몇 번 옮겨던 기억, 상대원에서 다니기도 하고 상대원 윗동네로 나가서 다니기도 했던 기억 이외에는 솔직히 특별한 일이라곤 눈썰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

“그때 기억은 거의 안 나는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이렇게 유치원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도 유치원 졸업앨범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대부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원에 살면서 나중에 어디선가 한 번씩 만났던 사람들이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앨범 사진에 지금의 얼굴 생김새가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은데 옛날 사진만 보고도 아, 애는 어디서 만났지 하고.”

유치원 차량이 애들을 실어다가 커다란 교실에 내려놓으면 아이들은 오밀조밀 모여 앉아 뭔가를 열심히 했었다. 유치원 교육이라는 것이 급할 것도 중요할 것도 없는 시절이었다. 시대가 변해서조기교육 열풍이 일고 유치원에서도 영어를 가르친다 영재교육을 시킨다 난리들이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 교육이랄 것도 없이 그저 같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던 정도였다.

## 2.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장난기가 많은 아이로 자랐다. 중원초등학교, 그 당시는 중원국민학교였는데 거기를 입학했다. 1학년 때 짝꿍이 여섯 번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 말씀에, 짝꿍이 여섯 번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초반에. 학급이 딱 배치가 되면 짝꿍을 맺어주는데 여섯 번인가 바뀌었다고. 처음에 짝꿍을 붙여줬는데 엄청 괴롭히더라고요. 금 그어 놓고, 금 넘어 온 만큼 찢어버린다든지 때린다든지. 막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짝꿍이 하도 견디다 못해 바뀌달라고 해서 선생님께 요청을 하면 바뀌었는데, 바뀌고 바뀌어도 계속 제가 그랬어구요. 그러다가 결국에 선생님이 안되겠다 해서 어머니를 불렀대요. 애가 너무 짝꿍을 괴롭힌다. 근데 어머니라고 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너 때문에 내가 학교에 불려갔다 그러세요. 짝꿍을 왜 괴롭히냐고. 결국엔 선생님이 극단의 조치를 내린 게 뭐냐면 맨 뒷 좌석에 덩치 좀 크고 쉽게 건들기 힘들 애를 옆에 앉혀 놔는데 그 뒤로는 조용히 지냈대요. 저 1학년 때요”

아마 그런 행동이 그의 여자 대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다. 원래 어린 애들이란 관심 있는 애를 괴롭히는 법이니까. 그도 여자 짝꿍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낯설고 관심도 가고 해서 많이 괴롭혔던 걸로 기억한다. 그맘때 그는 여자애들 앞에서 숫기도 없고 부끄럼도 많이 타던 성격이라서 오히려 그렇게 짓궂은 행동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

헤름게 해결을 못하시고 오히려 원천봉쇄를 해버리셨다는 것이 지금도 못내 아쉽다.

1학년 때 선생님은 배가 많이 나오신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술도 많이 드시고 수업에도 열정적으로 임하지 않았던 분이였다. 2학년 때 선생님은 기억조차도 없다. 3, 4학년 때는 같은 분이 연속으로 답임을 맡으셨는데 여자 선생님이였다. 그 분은 한자교육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방과 후에는 칠판에다 한자를 많이 적어 놓으시고 가르쳤다.

“저는 조기교육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때를 떠올려보면 조기교육도 할 만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배웠던 한자들이 정말 많이 기억이 나거든요. 엄청 험악한 분위기에서 가르쳤어요. 한자 하나 모르면 엄청 맞았어요 정말. 그 많은 학생, 한 50명 되잖아요. 다 시킬 수 없으니까 무작위로 뽑아서 읽어, 뭐야 뭐야 뭐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걸릴지 모르니까 항상 하루에 스무 자씩 그렇게 외었어요.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많은 도움이 되더라구요.”

그는 수학 과목을 좋아했다. 대부분 학생들은 수학은 싫어하는 데 3학년 때의 특별한 경험 이후로 좋아하게 됐다.

“그때가 나눗셈을 배울 땐데.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쳐주실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곱셈까지는 어떻게 버티겠는데 나눗셈부터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3학년 때쯤 나눗셈을, 나눗셈을 3학년 때 배우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그맘때쯤 배웠던 것 같은데 그때 나눗셈을 배우는데 뭘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왜 앞에서부터 나누기 시작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수업시간에 멀뚱히 칠판을 바라보다가, 순간적인 깨달음을 얻었죠. 아 이게 저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수업시간에 저도 모르게 아! 하는 큰 소리로 탄성을 질렀어요. 선생님한테 혼났죠. 수업시간에 왜 소리치냐고. 그때부터 갑자기 아, 이상하게 엄청 어려운 걸 혼자 골똘히 생각해서 깨달으니까 관심이 가

는 과목이 돼버렸어요. 정말 그 느낌이란 게 묘하더라구요. 뭔 말인지  
통 모르겠는데 골똘히 생각하니까 알겠더라. 알았을 때의 느낌이란 건  
되게 좋더라구요.”

아무리 수학이 어렵다고 하지만 스스로가 집중적으로 생각에 몰입하  
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까 수학이 가장 관  
심이 가는 과목이 됐다.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수학과 관련된 경시대회  
도 많이 나갔다. 물론 상을 탄 건 아니지만 그런 순간적인 경험이 커서  
도 참 많은 영향을 미쳤다.

### 3.

집에서 학교까지는 초등학생이 걷기에는 조금 먼 거리였다. 당시 상  
대원동의 집들은 산에다 대충 막 지어놓은 것들이었다. 산을 규모 있게  
깎아놓은 것도 아니고 산의 나무들만 어정쩡하게 베어버리고 그 곳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굴곡진 고개를 몇 개는 넘어야 학교로 갈 수 있었  
다. 초등학생 걸음으로는 30분 정도 걸렸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먼 거  
리라고 생각됐다. 그냥 잘 닦아 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내  
리락 하는 길이 많다 보니까 더 멀게 느껴졌던 것 같다. 당시에는 왜 이  
렇게 한참을 가야하나 하면서 투덜대면서 학교를 다녔다.

“저희가 3형제인데요. 나이 차이가 두 살씩 차이가 나지만. 제가 생일  
이 빨라서 한 살 일찍 입학해서 형이랑 1년 차이 나고 동생이랑 3년 차이  
나요. 초등학교 때는 매일 셋이 같이 다녔어요. 제가 약간 못된 구석이  
있는 게 뭐냐면 동생을 많이 괴롭혔어요. 등굣길에도 많이 괴롭혔어요.”

당시 아이들은 서류가방 모양으로 생긴 가로가 긴 형태의 딱딱한 책  
가방을 메고 다녔다. 그때는 가방뿐만 아니라 필통도 플라스틱 케이스  
로 된 것이었고 뭐든지 크고 딱딱해서 참 무거웠다. 책이나 학용품들이  
눌리지 않고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  
지만 애들이 들고 다니기엔 참 힘들었다. 그렇지만 애들이란 게 가방이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장난하면서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 그도 등교할 때는 동생을 많이 괴롭히면서 다녔다. 학교 가는 길이 지루해서 그랬는지 동생이 미워서 그랬는지 동생이 짜증낼 정도로 많이 괴롭혔다. 그러나 집에 가서는 동생이 등굣길에 있었던 얘기를 부모님께 일러 바치니까 그는 집에 가면 많이 혼났다.

하교할 때는 동생이랑 마치는 시간이 다르니까 집 방향이 같은 친구들이랑 다녔다. 등굣길은 학교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택해서 가지만 하곤했는데 여러 길을 거쳐서 오는 경우도 많았다. 친구네 집을 들렀다가 오기도 하고 일부러 여러 곳을 둘러돌려 오기도 했다. 재미있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 당시에는 가장 재미있는 것이 바로 문방구였다.

“중원초등학교를 떠올리면 문방구가 가장 기억나요. 그 중에서도 문방구에서 팔았던 떡볶이. 떡볶이 햄버거 그런 거 팔았거든요. 햄버거지만 햄이 들어있지 않은, 그냥 빵에 야채와 케찹과 그런 소스로 버무려져 있는, 그리고 햄은 안 들어 있는 그런 햄버거였는데, 그 당시 50원이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때 떡볶이가 되게 맛있었다고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서 항상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은 쌀떡볶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쌀떡볶이 없잖아요. 밀가루 떡볶이. 그래도 그게 정말 맛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장 맛있는 떡볶이 같아요. 저는 쌀떡볶이가 싫어요. 그 떡볶이 맛이 안나요. 빗물에도 좀 젖어 있고, 비가 오면 빗물도 들어가 있고 한 떡볶이가 좋아요. 길거리에서 서서 먹는, 문방구가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없잖아요. 길거리에서 먹는 건데, 하도 끓여대 가지고 밀가루 떡볶이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온 밀가루들이 걸쭉하게, 양도 많았어요.”

떡볶이 이외에 또 기억나는 것은 뽑기와 오락게임이다. 어른들이 앉으면 쪼그리고 앉을만한 자그마한 사이즈의 오락기계가 있었는데 50원 짜리 하나 넣고 하는 게임이었다. 초등학생들 여러 명에서 그 기계 앞

에 모여 앉아 게임을 자주 했다. 어쩌면 초등학교 앞 문방구는 신기한 디즈니랜드 같은 곳이었다.

“그런 문방구들이 학교 앞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문방구가 모두 일률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문방구마다 특색이 있어요. 어떤 문방구는 학생들의 교육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재들만 파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완전히 놀이공간으로 이렇게 불량식품, 그때는 불량하다는 생각은 없었죠. 우리들만의 식품이라 생각하지 불량식품이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식품들도 많이 구워먹고.”

#### 4.

지금의 상대원은 거의 차탈 데가 없을 정도로 도로를 차들이 점령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자랄 때만 해도 거의 차가 없었고 당시에는 체구도 작아서 동네길도 운동장처럼 느껴져서 동네만큼 놀기 좋은 곳도 없었다.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바로 거기서 동네 친구들이랑 뛰어 노는 게 그에게는 제일의 재미였다. 그 곳에서 그는 모든 게임들은 거의 다 섭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열심히 놀았다.

“‘비석까기’라든지 정확한 명칭 잘 모르겠지만 ‘오징어’라고 하는 놀이, 오징어 모양을 바닥에 그려서 두 편으로 나눠서 노는 놀이를 많이 했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땅바닥에 잘 그어지는 돌맹이를 하나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로 바닥에 그려가면서 많이 놀았어요. 그때는 상대원길이 아스팔트가 아니었고 여기저기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시멘트 바닥도 있고 엉망진창인 바닥이었죠. 그 바닥에 학교에서 가져온 분필로 그림을 그릴 때도 있고 동네아이들이 모두 쓰던 커다란 돌맹이를 가지고 그리기도 했어요. 땅바닥에 사각형을 그리고 거기에 번호를 써놓아서 하는 놀이도 있었고 ‘다방구’하는 놀이도 많이 했어요. 술레잡기 비슷한 놀이였어요. 사실 그때도 정확하게 놀이의 이름을 부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충 애들끼리 통하는 이름으로 놀이를 했어요.”

상대원은 언덕진 곳이 많다. 그의 집도 비탈에 자리하고 있었다.

“저희 집이 산중턱과 정상 그 즈음에 있는데요. 놀기 안 좋죠. 경사져 있으니까. 애들이랑 축구를 하면 위엘 점령하는 것이 우선이었죠.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나 아래에서 위로 공격하나가 정말 달라요. 위에선 땡 질르면 테굴테굴 계속 굴러가서 골인이 되기도 하고, 아래에서는 골인이 될라고 하는데도 밑으로 다시 굴러내려 오고, 동네에서 축구를 많이 했는데 되게 많이 혼났던 게 집 바로 옆에 이발소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이발소 입구로 공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데로 많이 들어가요. 공을 차면 그런 데로 많이 들어가서, 정말 아저씨한테 공 뺏긴 적도 있고, 많이 혼났어요. 가게가 유리문으로 돼 있잖아요. 공이 꼭 그 유리문을 때려가지고, 아저씨가 되게 저희들을 미워했어요.”

5.

초등학교 때 그의 어머니는 골목길에서 삼형제의 머리를 깎아주셨다. 당시 다른 친구들도 집에서 머리를 깎는 아이들이 많긴 했지만 그의 어머니처럼 집이 아닌 골목길에서 깎아주시던 분은 없었다. 삼형제가 골목에서 나란히 앉아 머리 깎을 차례를 기다리던 모습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데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앉아 있었다.

“어렸을 때는 헤어스타일이 되게 우스웠어요. 지금도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웃겨요. 어머니가 고데기로 말아주셨거든요. 어렸을 때는 되게 긴 머린데 말리니까 짧아진 스타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덩수룩한, 삼 형제가 다. 머리스타일이 어렸을 때는 그러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턴진 모르겠지만, 그때부터는 말진 않으시고 단정하지만 귀가 안보이게 각지게 앞에는 일자로 자르고 뒤에는 일자로 돌리고, 바가지 머리 비슷하게, 어머니가 깎아주셨어요.”

지금에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가 어렸을 땐 아버지의 오토바이에 다섯 식구가 함께 타고 다녔다. 아버지는 충청남도 부여가 고향인

데 무일푼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신 분이다. 그때는 아버지가 목수일을 하셨는데 운송수단이 오토바이였다.

“그 오토바이에 우리 다섯 식구가 한꺼번에 타고 다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은 벌금을 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버지 맨 앞에 타시고 어머니 맨 뒤에 타시고, 가운데는 삼 형제가. 그게 가능했어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나요.

덩치가 너무 커져서 더 이상 못 탈 때까지 그렇게 다녔어요. 덩치가 커지면서 한 명 두 명씩 빠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렇게 타고 다녔어요. 그 오토바이가 VF정도의 사이즈였는데 되게 위험하잖아요. 떨어지면, 그땐 저희는 위험하다고 생각도 못하고 다녔죠.”

그걸 타고 그의 식구들은 계곡이나 남한산성 근처를 놀러 다녔다. 지금으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하다고 밖에는 뭐라 표현을 못할 것 같다.

## 6.

초등학교 3, 4학년 무렵 어느 날 어머니께서 동네 형을 집에 데려와서는 그 형한테서 장기를 배우라고 하셨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던 형인데 그 형한테서 그 날 삼형제가 장기 기본을 배웠다.

“그 형이 근데 오래 안 가르쳐 줬어요. 그 날만 가르쳐줬던 거 같아요. 그 날 장기를 했는데 서로 엉망이잖아요. 규칙도 없어요. 이 형이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 아니거든 하면서, 엉망으로 하는데, 어느 순간 다들 재미를 붙였어요. 삼형제랑 어머니가. 아버지는 못 두시는 것 같아요. 넷이 장기에 어느 정도 몰이 올랐어요. 집에 있으면 장기만 뒀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네 명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면서, 아 정말 재밌게 했어요. 약간 자존심 게임이잖아요. 원래 두뇌게임이 그렇잖아요. 두뇌를 썼는데 지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물론 몸으로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지지만. 두뇌싸움일수록 크잖아요. 형제건 부모님이건 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정말 진지하게 많이 뒀었죠. 어머님도 많이 장기를 좋아하셨죠. 네 명이서.”

어머니께서 형제들에게 장기를 가르쳐주신 건 아마도 혼자 집에 계시면 심심하니까 함께 어울려 놀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특히 삼형제 중에서도 유독 그와 장기 두는 것을 어머니가 좋아하셨다. 어떤 날은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급하게 찾으셨다. 정말 난리가 난 것처럼. 무슨 일이 난 줄만 알고 집으로 간 그에게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장기 같이 두자고 찾았다고 할 정도로 어머니는 장기를 좋아하셨다. 덕분에 집에서는 다른 놀이는 거의 안하고 장기만 했다.

## 7.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 아버지는 목수셨는데 특별히 출퇴근을 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 그의 집에는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버지 목공 일 하시는 장소가 있었다. 거기서 아버지는 자개장을 만드셨다. 조개껍질 같은 게 붙은 검은 자개장이 그 당시만 해도 비싸게 팔리고 엄청난 인기였다. 아버지가 집에서 직접 제작을 하시고 판매도 하셔서 꽤 잘 나갔던 기억이 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그런 것들을 하나쯤 들여놓고 비싸더라도 사고 그랬는데 차츰 자개장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유행이 자개장에서 원목가구로 바뀌면서 아버지가 고민고민 끝에 그 일을 그만 두셨다.

“이제는 수요가 없으니까. 되게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자개장 만드는 일을 접으셨어요. 어머니가 많이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벌은 돈으로 집을 하나 지으셨지요. 살던 그 장소에다가. 어릴 때는 몰랐죠. 집이 원래, 아버지는 원래 나이가 드시면 집을 하나 지으시는구나 생각을 했죠. 돈에 대한 개념이 뭐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짓는구나, 집도 허름하고 하니까 나이도 드시니까 집을 지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거지요.”

집을 지을 때 설계나 전체적인 관리는 이모부가 지휘하셨다. 마침 그런 일을 하시던 이모부가 계셔서 덕분에 모든 것은 그 분에게 맡겼다. 당시 상대원의 집들은 모두 허름한 것들뿐이었는데 그의 집이 가장 먼저 새 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여기저기서 새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가 초등학교 무렵이었으니까 1990년 전후쯤의 일이다.

“집의 층은 어중간해요. 이상하게. 층이 딱딱 나뉘진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2층집이었어요. 그리고 상대원에 새로 지은 집은 요즘 말하는 다가구 주택, 연립 같은 형태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부터는 예전의 집들이 다 허물어지고 상대원이 새 집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동네 모습들이 다 그런 비슷한 집이 됐지요.”

## 8.

상대원시장은 혼자서도 다닐 수 있을만큼 가까운 곳이었다. 지금은 시장형태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시장이 정말 시장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는 기억한다. 사실은 시장터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렸을 때니까 상대원시장이 그에게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다. 완전 재래시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다.

“바로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시장이었는데. 지금 상대원시장은 큰 건물이 하나 들어가서 쇼핑몰처럼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었는데. 예전엔 그게 아니었죠. 완전 시장이었죠. 방앗간도 있고 채소 파는 데 있고 정육점 있고. 요즘에도 다른 데서는 시장형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죠. 완전 그런 모습이었는데. 특별히 시장에 많이 다니진 않았는데. 토끼를 키워가지고. 어머니가 토끼를 키울려면 니네들이 토끼밥을 해결하라고 해서. 아침마다 가서 시장바닥에 떨어져 있는 배추같은 걸 먹었죠.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랑 같이 시장 간 적도 있고. 어렸을 때 특별히 많이 다니진 않았어요. 토끼 때문에 시장에 간 적 외에는 별로 갈 일이 없었어요. 상대원시장에는 위로 천막이 쳐 있어서 어둡고 방앗간 냄새도 나서 애들이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어린 소년에게 시장은 그다지 흥미로운 공간은 아니었다. 시장이란 아주머니들이 다니는 공간이란 개념이었다. 예전에 흔히 볼 수 있던 재래시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부턴지 다 없어지고 큰 건물로 바뀌었다. 비록 시장을 흥미롭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바뀐 시장의 모습에 아쉬움이 들었다. 이젠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들도 많지 않고 상권이 죽은 걸 보면 차라리 옛날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면 더 나았을걸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의 시장은 완전 반듯한 건물인데 예전에는 건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밖에다가 물건들을 내놓고, 사람들이 서로 비켜가기도 하면서. 지금 시장이 반듯한 느낌이라면 예전 시장은 꼬불꼬불한 길 같은 느낌이지요. 사람 냄새가 안나요. 지금 시장에서는. 예전에는 그래도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뭔가 활기차고 뭐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용품, 먹을거리를 해결하는 장손데. 향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젠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요. 아무튼 지금의 시장은 마음에 안 들더라구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가 가장 안타까운 건 상대원 본래의 느낌이 너무 없어졌다는 점이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도시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예전의 모습이 그리워진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엔 공터도 많이 있었고. 동네 내에서도 흙바닥도 있었고. 저희 집 뒤편에 유치원이 있었는데. 우리 집 바로 뒤에 절이 있었는데요. 절이. 지금은 건물이 들어와 있는데. 예전에는 절이 있었어요. 단층짜리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그 옆에 있었고. 되게 컸어요. 널따란 흙바닥이 유치원 안에 있어서 거기서 많은 게임들을 했죠. 구슬치기를 거기서 주로 많이 했어요. 놀 수 있는 공터들이 많이 있었어요.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어렸을 때 많이 하던 불량난 많이 하던 공터도 있었고.”

이제 상대원에서는 공터를 볼 수 없다. 요즘 애들이 너무 컴퓨터만 한

다고 문제라지만 정작 애들 놀 수 있는 빈터가 없는 것이 그의 어린 시절과 비교하면 가장 아쉬운 점이다. 차들이 점령한 도로에서 애들끼리 뭉쳐서 뭘 하며 놀 수 있을까. 그가 어렸을 때는 좁지만 아이들에게는 엄청나게 넓었던 골목에서 놀이를 했던 기억들이 있다. 그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시절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신은 요즘 애들이 맞볼 수 없는 즐거움을 맛보며 살았다고 생각된다.

9.

상대원 아이들이라고 별다르게 논 건 아니었다. 상대원의 지형적인 특성을 살린 특별한 놀이도 없었고. 어렸을 때는 사내들끼리 남성다움, 난 남자다 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던 약간 위험한 놀이들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죽을라고 환장했는지 모르겠지만. 동네마다 비탈졌는데 제대로 비탈진 긴 거리가 많아요. 저 비탈진 끝부분엔 사거리고. 차들이 왔다갔다 하는. 골목길인데 차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사거리였죠. 한쪽은 되게 비탈져 있고 나머지는 평지인 그런 지형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녀석이 이러는 거예요. 잘 보라고, 내려간다고. 짹 계속 내려가요. 차가 오면 치어 죽는 거고 안 오면 사는 거예요. 가서, 멋있게 내려가서. 어깨 으쓱해서. 내가 차오는 지 망 봐줄 테니까 한 번씩 내려오라고 해요. 차가 없다는 신호를 하면 내려왔는데 그 당시 많이 다쳤어요. 왜냐면 내려가는데 속도가 정말 빨르거든요. 짧은 거리가 아니고 되게 길었어요. 지금도 걸어가면 힘들 정도로. 그런 짓을 많이 했죠. 근데 남들이 하는데 제가 안하면 자존심에 금이 가잖아요. 다 내려가는데 나만 안 내려갈 수도 없고. 재도 하는데 나도 못해? 한번은 심하게 다쳤어요. 장난으로 친구가 차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급제동한다고 제동을 걸었는데 바닥을 쓸고 내려왔어요. 질질 끌려서 내려왔어요. 정말 다 끌려서. 심하게 다쳤는데. 그 후에는 그 짓을 별로 안 할려고 했죠.”

하지만 중학교 올라가서는 자전거로 똑같은 장난을 했다. 그 때도 자

동차 범퍼에 무릎이 부딪치는 바람에 큰일 날 뻔 했던 적이 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그 장난을 그만 뒀다.

“저희들은 공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장난 많이 했거든요. 불장난도 많이 하고, 남들 괴롭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불꽃, 폭죽을 많이 사서 사람들 놀래켰어요. 심지어는 오락실 같은데 폭죽을 던져서 실내에서 팡 터뜨리게 하는. 그것도 어쩌면 용감함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안 할려고 했는데, 한 녀석이 딱 하고 나니까 웬지 모를 짜릿함 있잖아요. 주인아저씨가 뛰쳐나오고 우린 도망가고. 도망자라는 짜릿함을 맛봤어요. 그런 짜릿함을 많이 느꼈어요. 어렸을 땐 그런 것들이 짜릿했어요. 길바닥에 야밤에 폭죽 많이 설치해서 조용한 골목에서 빠바바방 터뜨리게 한다든지. 놀이란 놀이는 많이 했고 장난이란 장난도 많이 쳤어요. 땅강아지 주우러도 많이 갔거든요. 땅강아지란 쪼그만 곤충이 있는데 되게 귀여워요. 그 당시는 어땠냐면 그런 걸 마음먹고 구할려면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거든요.”

또 하나 기억나는 것 중 하나는 철없던 고등학생 형에 대한 것이다.

“나이가 분명히 많은 형이었는데. 되게 차이 났어요. 키도 컸고. 저희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형은 고등학생인가 그랬어요. 저희들하고 같이 놀아요. 그 형이 이해가 안 돼요. 수준이 낮은 건지.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형이 되게 한심해요. 초등학생이랑 왜 같이 놀아. 친구가 없었는지. 그 형 집 옥상에 창고 같은 데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형이 창고 앞으로 불렀어요. 그래놓고는 여길 청소하자고 해요. 여기가 이제부터 아지트래요. 그래서 막 청소를 했어요. 의자 같은 거 갖다놓고, 그 아지트의 역할은 뭐냐면, 그날 구슬치기를 하면 구슬치기한 성과를 애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쪽 둘러앉아서 몇 개 땀다 그런 걸요.”

어렸을 때 재산은 구슬, 딱지였다. 친구들과 그는 동그란 딱지가 아닌 네모난 딱지에 특히나 집착했다. 잃으면 다시 집으면 되는 걸 그때는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그런 것들이 그에게는 자랑이자 재산이었다.

“그 형네 집에서 프로레슬링 비디오를 많이 봤어요. 그 당시 한참 열띤 논쟁을 벌인 게 뭐냐면, 프로레슬링이 정말 진짜 싸우는 거냐 짜고 싸우는 거냐 그거였어요. 의견이 거의 반반이었어요. 진짜다, 쫌다. 저는 항상 어렸을 때는 다 진짜라고 생각했었어요. 설마 짜고 싸우는 걸 사람들이 왜 보냐. 중학교 때 쇼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 그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릴 속일 수가 있는가. 정말 진짜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봤거든요.”

당시 그의 집에는 비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그 형이 프로레슬링 비디오를 보여준 건 참 고마운 일이다. 사실 그와 친구들에게 아지트는 필요 없었지만.

10.

“제가 중원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대일초등학교가 새로 생겼어요. 원래는 여중인가 여고가 썼던 건물인데 이사를 갔데요. 그래서 거기에 새로 대일초등학교가 들어선 거예요. 상대원 3동에 살던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그 학교로 전학을 가게 한 거죠. 아쉬운 건 그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기억은 솔직히 앨범 보면 날 수도 있잖아요. 아, 애, 애.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는 앨범을 봐도 누굴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담임선생님도 기억이 안 나고. 그게 아쉽더라구요. 1회 졸업생인데 대일초등학교.”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는 학습자료 만든다고 학생들에게 많은 걸 시켰다. 새로 생긴 학교라서 비디오 촬영을 많이 했다. 학생들 서예 하는 거라든지, 장기 하는 것, 특별활동하는 것들을 주로 많이 찍었다.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이런 저런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그에겐 학교에 대한 애착은 별로 없다. 1회 졸업생이긴 하지만 고학년이 돼서 전학 갔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 기간이 2년이 안 된다. 오히려 중원초등학교에 대한 애착이 더 많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는 집이 같은 방향인 친구들과끼리 뭉쳐서 놀았다. 같이 집에 가는 도중에 누구네 집에 놀러간단든지 노래방을 간다든지 하는 일도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때 노래방이 생겨서 처음 가 봤는데 그 때는 한 곡당 500원, 만 원이면 스무 곡을 부를 수 있었다. 그렇게 노래방을 가든지 친구집에 가서 만화책을 보든지 하면서 초등학교 때와는 놀이의 종류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중학교는 하대원에 영성중학교를 다녔어요. 남학교였죠. 남자들만 모여 있는 학교라서 그런지 별로 아름다운 기억이 없어요. 싸움하고. 초등학교 때도 싸움은 좀 하죠. 근데 남자여자 섞어 놓으니까 그게 좀 희석이 되는지 모르지만 과격한 느낌을 그렇게 크게 받진 않았거든요. 중학교부터는 엄청 과격한 애들끼리 뭉치다 보니까 싸움이 되게 컸죠. 저도 학교 입학해서 초반에 많이 싸웠어요. 치고 받고 막 싸웠었는데, 별로 안 좋아요. 기억이. 근데 그때 같이 뭉쳐 다니던 친구한테도 우정이라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았어요. 그때 저는 키가 많이 작았어요. 같이 다니는 애들은 키가 컸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애들이 같이 다니는 저를 약간 동생 대하듯 대하지 않았나 싶어요.”

노는 문화도 그때부터 많이 달라졌다. 중학생이 되면서 그 많던 구슬을 다 버리게 됐다.

“이거 안쓰지 하고 어머니가 버린다고 하면, 안 쓰지만 웬지 아까운 생각이 들긴 했어요. 되게 소중하게 여겼던 구슬인데 어머니가 다 버렸어요. 분유통으로 몇 통되는 거. 책상 밑을 보면 흐트렸거든요. 그걸 보면 되게 뿌듯했어요. 그랬는데 다 버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문화로 접어들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방과 후에 딱히 재미있는 놀이를 한 건 없고 그냥 친구들과 만화책 보는 것이 전부였다. 골목에서 놀던 것이 이젠 실내로 들어

가 버린 것이다.

고등학교를 가면서는 생활의 폭과 활동의 폭이 학교 안으로 완전히 한정돼 버렸다. 야간자율학습 때문에 새벽에 학교 가서 밤늦게 집으로 오니까 친구들과의 놀이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다. 초등학교 때는 작은 보폭으로 온 동네를 누비고 다녔는데 중학교 때는 더 좁아지고 고등학교 때는 오로지 학교에 얽매어 살아온 나날이 되었다.

12.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그는 처음 성남을 벗어났다. 지하철로 학교에 통학을 했는데 처음엔 무척 재밌었다.

“지하철이라는 게 재밌더라고요. 열차 타는 거 같고, 처음에 대학교 다닐 때 몇 달 간은 재밌었어요. 처음 타보잖아요. 지하철 처음 타는데 재밌었어요. 웃겨요. 마주 보고 앉아 있는 게. 마주 보는 게 이상하지 만 그때는 모든 게 재밌었어요. 신기하고, 대학생인데도 신기했어요. 처음 타보니까.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지겹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예쁜 여학생이라도 앉아 있으면 보는 재미라도 있는데. 이걸 지켜워요. 더 이상 짜증나고, 학교 등교시간에는 엄청 붐벼요. 거의 막 비명소리 많이 들리죠. 악악! 지하철 출발하면 아프고 멈춰도 아프고. 하여튼 그 지하철이 이젠 지겹죠.”

이제 그는 성남에 있는 시간보다 서울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서울에서 처음 받은 인상은 정리된 느낌이었다. 성남의 꾸불꾸불한 느낌과는 상반된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는 서울보다는 성남을 더 좋아한다. 성남이 더 정이 간다. 서울에 모든 것이 다 모여있다고 하지만 성남에도 있을 건 다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불편한 것도 별로 못 느낀다. 그건 아마 그가 성남에서 태어나 성남에서 자랐기 때문에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들은 모두 성남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성남에 더 향수를 느끼게 된다고 한다.



“상대원 재개발에 대해서 은근히 집에서도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기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겐 큰 관심거리죠. 재개발하면 과연 우리집은 어떻게 비싸게 팔릴까. 우리는 어떤 이익을 받을까. 그런 기대요. 여기 사람들은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저분한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요즘은 건물들이 다 많이 올라가 있는데 여긴 너무 보기에 안 좋나봐요. 미관이나 이런 지형 자체가. 그래서 좀 평평하게 펴야할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재개발을 하면 과거 그 자리가 갖고 있던 느낌이 없어져 아쉽다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변해버린 상대원의 모습에서 그런 향수는 감내해야 할 몫이라고 그는 말한다.

“사람이 새 물건을 구매했을 때랑 예전의 물건을 썼을 때랑 그 물건에 대한 느낌이 다르잖아요. 낡은 물건은 버리고 싶지만 그 낡은 걸 쳐다보면 옛날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니까 그걸 소장하게 되죠. 어르신들도 옛날 자기가 어렸을 때 보던 물건을 보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너무 많이 변해버리면 옛날 향수를 자극 못해서 애착이 많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성남이 이제는 좀 많이 아니잖아요. 이미 변할대로 변했는데 어떻게 지금 모습을 고수할 수도 없죠. 기왕 재개발을 할 것 같으면 상대원 본연의 모습도 간직하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해야겠죠.”

그는 상대원을 좋아하고 상대원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이 동네의 길이나 건물들이 정신없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재개발을 하더라도 예전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형태가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이 아닌 공터가 있던 상대원의 여유로움이 묻어났으면 한다. 그리고 시야가 확 트인 공간이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이야기북1

2008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757 성남아트센터

[www.sncl.or.kr](http://www.sncl.or.kr) / [www.snart.or.kr](http://www.snart.or.kr)

